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4월 30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25 호

"나를 나쁜놈이라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자만심으로 살아왔다.

아직도 그 생각이 다 가신 것은 아니다. 항시 배사를 억울하게 당했다는 자기합리화가 몸에 젖었다. 그런 나에게 참회의 기회가 올리 없다. 그저 그러지 말아야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후회와 체념을 같은 것이 가끔 마음을 스쳐간다. 나는 10여년전 생각지도 않았던 출판계의 단체장에 선출이 되었다. 임단 선출이 되었으니 나를 선출해 준 조합원들을 위해 함께 일을 해보려고 발낮으로 뛰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최고 출자자인 M씨가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조합을 위해 공급소에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윤 형 두

가서 약속해 온 안건들을 이사들을 충동질하여 부결시키거나 공공연하게 지방색을 들추어내어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면 자기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 정심대접 등을 하고는 오후2시에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무조건 안건마다 부결을 시키는 것이다. 나는 심한 심적 고통으로 5개월만에 10kg이나 빠졌고 회의를 진행할 때나 그들을 보면 다리가 떨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신과병원을 찾았다. 의사의 말이 이대로 가다가는 불행을 당한다는 것이다. 나는 사의를 표했다. 내 욕심도 중요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지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합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도 단체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의는 받아들여졌다. 건강도 차츰 회복이 되었다.

그러다 얼마 후 M씨가 세상을 떠났다. 부음을 듣자마자 빈소를 찾았다. 응어리진 매듭을 풀고 싶었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이고 나의 마음에 안위를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나에게 그럴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의 앙금은 가시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 원한도 삭혀준다고 하니 시간을 벌자는 범속된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나는 가끔 〈법구경〉에 나오는 "쇠에서 나오는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이지만 차차 쇠를 먹어 버린다. 이와 같이 마음이 올지 못하면 그 음지 못한 마음이 그 사람 자신을 먹어버린다"는 법구를 떠올리곤 한다. 이제라도 겸손과 참회는 온갖 악을 녹여버리는 용광로라는 생각을 되씹으며 살아야 할 것 같다. (범우사 대표)

참회는 惡을 녹이는 용광로

성보박물관 건립 '허점'

성보보존위 회의서 밝혀 "설계 비합리적…유물 보존장치 등한시"

폐사지 조사도 논의

현재 건립추진중인 8개 사찰 성보전시관 건립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성보보존위원회 1차회의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성보전시관이 설계에서 건립, 유물전시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비없이 진행돼 시급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범해스님(통도사 박물관장)은 "해인사를 제외한 전시관의 설계가 비합리적이며, 성보 보존·관리에 대한 사찰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씨(문화재위원)는 "용주사 마곡사의 경우 창소가 협소해 10년 후에는 재건축해야 할 실정"이라며 "유물수에 맞는 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남철교수(고려대 건축공학과)는 "전시관이 경내에 위치할 경우 콘크리트 건물은 경관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사전 검토를 통해 부지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준씨(서지학회장)는 "기립사 성보전시관은 폴속으로 지어져 공광이 넘쳐가 날 정도"라며 "문서나 고서류는 특수보존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관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은 "각 사찰의 중진스님 모임과 정부의 연차적인 예산보조를 통해 시정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고, 법하스님은 "획일적인 전시관을 탈피, 사찰과 유물의 특성에 맞는 성보전시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보전시관은 지난해 수덕사와 대흥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기공식을 가졌고, 지난 11일 월정사가 기공식을, 용주사와 해인사는 5월중 기공식을 갖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폐사지 실태조사,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2호) 보호각 설치,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화 관리건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윤기석 기자〉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이 사천왕상으로는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사찰 입구의 천왕문에 봉안되는 사천왕은 손에는 칼·창을 들고 발로는 마귀를 짓밟고 있는 호법신이다. 남방증장천(사진)은 만물이 태어날 수 있는 덕을 베푼다는 상징으로 비파를 들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사천왕상 첫 보물지정

진각종 통리원장에 성초정사



진각종 제25대 통리원장에 엄태 정사(前 교육원장·사진)가 임명됐다.

진각종은 23일 정기종의회를 열고 건강상 이유로 사퇴를 표명한 락해 통리원장 후임에 성초정사를 선출하는 한편, 교육원장에 일정정사(前 총무부장), 진각대학장에 석봉정사(前 총교부장)를 새로이 임명했다.

신임 성초 통리원장은 89년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고 중앙교육원 교육부장을 거쳐 지난해 진각대학장 겸 중앙교육원장으로 재임해 왔다.

조계종 홈페이지 개설 봉축 정보서비스 개시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24일 4층 회의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회를 갖고 한국불교안내와 부처님오신날 관련 정보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사이트에는 한국불교역사, 한국의 사찰, 스님의 하루, 한국불교의 예술, 경전과 가르침을 비롯 북한돕기운동, 연등의 의미, 관불의식, 연등축제, 봉축행사 주요 일정 등의 정보서비스가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제공된다. 한편 총무원측은 사찰과 불교계 주요기관을 인터넷상으로 연계하여 국내외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종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ww.buddhism.or.kr



◇조계종 홈페이지 초기화면

복제인간 실험 규제

복지부 '유전자 지침' 공포

인간복제등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실험이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을 제정 공포하고 7월2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실험금지등 지금까지 각 시험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아무런 통제없이 실시해오던 유전자 재조합이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인간복제가 금지될 전망이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직장 직능단체 지역연합 19면
5월 '초의 스님의 달' 행사다채 13면
열린마당—불교와 생명복제 2면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초의스님 영정

신록의 계절 5월의 문화인물은 한국차문화를 중흥시킨 초의스님입니다. 초의스님은 연담스님의 선지(禪旨)를 이은 대선사일뿐 아니라 조선후기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한 대표적 문인입니다. 초의스님은 대흥사 말사인 일지암에서 40여년간 머물며 '선다일미(禪茶一味)' 사상을 꽃피웠습니다. 스님은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등 당대 학자들과 긴밀하게 교류했고 따라서 일지암은 불교와 유학이 자연스럽게 사상·문화적으로 발흥된 산실로 유명합니다. 대흥사는 서산 사명 처영 스님 등 고승 대덕들의 부도와 비가 무려 60기나 되고 13대종사와 13대강사를 배출했고 조선후기 불교의 중흥을 이룬 대가람입니다. 25일은 제17회 '차(茶)의 날'입니다. 차의 날에 서산·사명대사와 초의선사를 추모하며 차향 가득한 해남으로 떠나보시죠.

禪 茶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5월 테마여행—대흥사·일지암

■ 참가 안내

◇출발: 5월 24일(토) 저녁 10시·조계사 앞
◇안내: 여연스님(일지암 주지) ◇회비: 4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범우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꺼지지 않는 燈' 밝힙시다

2541개 법보시燈 공양…1구좌 1천원

부처님은 왜 이땅에 오셨을까요. 예토를 정토로 만들기 위해 사바세계에 나투신 부처님의 전생 500대원(願)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기2541년 부처님오신날 특집을 통해 '500대원'의 뜻을 되새기며 군부대 교도소 등에 법공양하는 '작은 등 밝히기'를 전개합니다. 1구좌당 1천원으로 올해 불기년도에 맞춰 2541명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면서 인도의 가난한 여인처럼 꺼지지 않는 등공양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참방법
▲1구좌 1천원 (한 사람이 여러 구좌를 하셔도 됩니다.)
▲마감 : 1997년 5월8일
▲접수 : 현대불교신문 (02)722-4162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
※동참자 명단은 부처님오신날 특집 신문(127호)에 게재됩니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개인소장용으로 제작 · 보급되는 반가사유상!
우리문화재 사랑의 시작입니다.



■ 작가: 이진형(불교조각원 원장)
·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68호 불교조각원 이진형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 4회
· 제1회 불교조각 개인전 개최 (1995년)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현재 · 전통문화재 기능인 협회 이사

■ 주문시 오동나무 박스로 완전포장하여 판매 및 발송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크기·형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형태 / 규격(폭×높이)	골동품형(左), 코팅형(右)
11cm × 26.5cm	230,000원
16cm × 40.5cm	350,000원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 기획 · 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2-1522, 737-8881 팩스 : (02)737-0697 ●



사 설

관광특구 포교전략

정부가 13개도 17곳을 '관광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화엄사·천은사 등 천년고찰이 위치해 있는 전라남도를 비롯 유명사찰이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찰을 중심으로 '관광특구'를 개발한다.

사찰 중심의 관광산업 증진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찰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유대강화를 통해 포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찰이 관광지화 됨으로써 사찰환경이 파괴되어 불교문화유산과 수행공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지금까지 사찰환경분쟁이 제기되어 갈등을 겪고있는 사찰이 50여곳이 넘고 있다. 개발의 주체인 정부나 기업들이 불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고 무작정 '개발호'를 띄우기 때문이다.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가 자리잡고 있는 가야산 위락시설계획, 금산사의 모악랜드건설, 통도사 일주문 앞의 '통도환타지아'라는 대규모 놀이시설의 건설 등 사찰 수행공간의 훼손문제로 많은 갈등이 노출되어 왔다. '사찰환경과 민족문화 수호'는 불교계의 화두이다.

정부의 관광특구지정의 확대조치를 접한 우리 불교계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보다 치밀한 대책과 함께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겠다. 관광산업은 아름다운 우리의 금수강산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21세기 문명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국가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선정문화에 바탕을 둔 심성산업(心性産業: mind industry)의 주요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조건 불교계가 '관광개발'을 반대할 수만은 없다. 국가발전과 불교포교의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향으로 우선 불교계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관광특구개발 지역의 포교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전통사찰은 삼보정재이고 민족문화유산이므로 잘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위락시설·관광시설에도 포교당과 같은 전법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스포츠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문서포교자료의 비치와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참선지도나 선수련공간, 법당 마련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선정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한 친불교적인 수련시설(예를들면 기공, 선무술, 선무용, 요가 등)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관광특구지역 안의 사찰부동산이나 재산이 개발의 대상이 될 경우 불교계가 직접 개발과 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불교사상에 바탕을 둔 공간배치나 경영기법이 실천될 수 있고 이른바 '생산불교'를 지향하는 길이다.

셋째, 관광개발에 앞서 사찰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보존장치가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조계종이 얼마전에 '사찰환경보존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설치했으나,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계의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불교 환경전문가가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활동이 요망된다. 정부에 대해 각종 관계법령의 정비를 촉구하고 사찰 수행환경 수호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이나 사찰환경의 수호는 제일차적 국가사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관광개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불교계가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 대 만 평 박구원

처음부터 다시하겠습니다

기조발제—불교는 생명복제 어떻게 볼것인가



인간 공산품화 우려…佛陀생명관 밝혀야

권기종〈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인간의 과학기술 발달로 이제 생명을 복제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복제기술은 과학기술의 성과라는 찬사와 함께 그것이 가져올 역기능과 윤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역기능에 대한 관점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삶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둘째는 종교적 교의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윤리적 정서에 부당한 처사라는 견해다. 생명복제, 특히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존엄성 훼손과 인간의 공산품화 등의 우려로 윤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교 역시 생명복제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먼저 윤회의 이론이나 업식(業識) 등 불교의 교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도전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불교의 교설은 본래 무아의 입장으로 생명도 본래 고유한 실체가 없는 오취온(五取蘊)에 의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생명복제의 문제는 유·무용의 차원을 떠나 오취온설(五取蘊說), 12연기설, 업보와 업식의 문제, 무아와 윤회, 생사의 문제 등 불타의 많은 교설들에 대한 종합적인 바른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열 린 마 당

불교문화硏 '생명복제' 세미나 요약

21세기를 앞두고 의학계는 잇따른 생명체복제와 유전자 조작에 의한 생명조작의 성공을 발표하고 있다. 생명체복제는 나아가 인간복제에 대한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어 세계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이 5월9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불교의 시각에서 본 생명복제'를 주제로 생명복제에 대한 불교적 해안을 모색한다. 이날 발표될 논문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10년내 복제인간…서구 법적규제

생명복제 정의와 현황

박인국〈동국대 교수·응용생물학〉



60여년전 독일의 발생학자 스페만이 "핵 속에 생명체 형성에 필요한 유전정보가 간직돼 있다"고 발표한 이후, 개구리 도룡농 같은 양서류를 이용, 복제연구가 진행돼 왔다. 1960년 최초로 개구리 복제에 성공한 이후 복제기술은 가축이나 어류 등의 품종개량에 널리 응용됐다. 윌머트박사가 양복제에 사용한 방법은 기존의 복제방법과 다르다. 그는 종래의 수정란이 아닌 성숙한 동물의 체세포를 분리 배양해 반복되는 세포분열을 통해 수많은 동일한 세포를 만들었다.

복제동물의 건강과 수명도 문제가 된다. 복제과정에서 복제동물의 유전자가 손상돼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배양된 많은 체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에 제한없이 많은 동물을 복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성숙한 체세포를 사용한 윌머트박사의 복제기술을 이용할때 인간복제는 양의 경우처럼 세포주기의 각 단계에서 분열을 조화롭게 조절하면 가능하다.

미국의 코넬대학 키리교수는 앞으로 10년이내 인간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덴마크, 독일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은 인간 복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인간복제' 실험지침을 마련,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실험을 규제키로 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골수암 어린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똑같은 어린이를 복제하는 것이 잘못이냐며 항변하기도 하지만 애당초 원치 않았던 생명을 복제한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또다른 반론도 생각할 수 있다.

윤리적 대응책 세워 인류불행 막자

유전공학과 인류의 미래

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



미국에서 지난 3월에 열린 '인간복제 의회청문회'에서 톰 하킨(상원의원)은 "복제기술의 규제는 인류의 올바른 발전을 무분별하게 막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이안 윌머트(과학자)와 조지 안나스(생명윤리학자)는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환경과 경험 등 후천적 요소에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의는 결국 생명공학을 둘러싼 인류의 견해를 반영하기도 하고 인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복제인간의 탄생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인류의 불행, 곧 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류가 인간복제 연구를 진전시키는데 아무런 제약을 두지않음으로써 생명공학을 무한히 확대시켜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예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설혹 그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과가 만들어주는 과보는 인류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인류의 파멸로까지 볼고갈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윤리학자나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그런 개연성 앞에서 인류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끝없이 반성하고 회의하며 견제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생명복제에 관한 유보와 윤리적 판단, 연구상의 규제등 여러 장치를 두기를 촉구한다.

인위적 생명조작 이익중생 배반

불교윤리와 생명복제

정병조〈동국대 교수·국민윤리학〉



생명복제를 향해 거론된 윤리문제는 대부분 생명창조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학적 도전이라는 기독교적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주장은 폐쇄적일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다.

불교는 현대산업문명 속의 '멈춤 신호등'이어야 한다. 과학문명뿐 아니라 물신(物神)주의, 즉물(卽物)주의, 퇴폐적 허무주의 등을 멈추게하는 완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기불교의 윤리관은 오계·업·윤회·연기 등의 금계(禁戒) 위주로 설명되는 것이 통례이다. 반면 대승불교의 입장은 보다 실천적으로, 육바라밀·육화경·십지 등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반야의 공관적 이해, 화엄의 육상원융을 윤리적 실천원리로 삼는다.

이 원리는 보살계 사상으로 동체대비의 근간이며 법계(法界) 즉 '다르마'(dharma)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실천덕목이다. 다르마의 원리를 가장 소박하게 표현하면 연기(緣起)이며 보다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육상(六相)의 논리로 대변된다. 육상이란 전체성·개별성·동질성·개성(個性)·완성·자기희생 등이다. 모든 사물 사이에 내재된 육상이 '조화'를 이루면 다르마가 구현된다.

생명복제는 근본적으로 인위적 조작이기 때문에 다르마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익중생(利益衆生)이라는 불교윤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한다. 불교윤리의 궁극적 목표는 중생의 삶을 변환시킴으로써 부처의 삶으로 성숙시키는 질적 변환이다.

거부보다 생명관 발전계기 삼자

불교의 생명관

이중표〈전남대 교수·철학〉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명관은 영혼불멸을 믿는 종교적 생명관과 영혼은 물질의 소산이라는 과학적 생명관으로 대비된다. 그러나 영혼에 편향(偏向)된 생명관이란 결국 인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명관일 뿐이다. 생명의 기원과 영혼에 자유로운 불교적 생명관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

근본불교의 12연기설은 '유전문'과 '환멸문'을 통해 인간에게 육신이나 영혼은 실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적 망념임을 설명해 생사가 없는 생명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대승불교는 생명의 실상을 공(空)하다고 교설한다. 따라서 우리가 실유(實有)를 고집하는 집착에서 탈피해 공(空)의 공덕을 이룰 때 나와 남의 구별이 없는 동체대비를 이룰 수 있다.

'12연기설' '불성' '법신'의 생명관에는 생명과 세계의 차별이 없다. 생명속에 세계가 있고 세계 속에 생명이 있으며 하나의 생명 속에 만생명(萬生命)이 들어 있다.

생명과 물질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물질과 생명, 자연과 인간을 동등한 가치로 바라볼 때 인간의 삶은 보다 숭고해질 수 있는 것이다. 생명복제 역시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기 보다는 올바른 생명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진실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생명에 대한 인간의 이해에 잘못이 있었음을 깨닫는 일이다.

불교방송이 이룩한 불교계의 숙원사업











한국 불교 최초의 연감

불교뉴스연감은 한국불교 사상 최초로 제작된 연간단위 역사기록으로 불교사는 물론 사회·문화사로 기능할 소중한 자료입니다.

- 역사적 소장 가치를 높여 구성했습니다.
-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컬러 화보 중심으로 제작했습니다.
- 범 종단의 다양한 활동상을 객관적 시각에서 기록했습니다.
- 96년 불교계의 모든 동향을 불교계 일지로 정리했습니다.
- 최고급 제작으로 품격을 높였습니다.

이 책의 탄생으로 불교의 역사는 해마다 새롭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97불교 뉴스연감

가까운 이웃에 역사의 기록을 전해주십시오 이는 곧 佛法과 믿음의 둑을 쌓는 일입니다



BBS 불교방송

불교계의 한해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97불교뉴스연감'은 각 종단을 초월한 시각에서, 기록의 가치를 지닌 다양한 종교활동을 수록대상으로 하여 꾸며졌습니다. 모두 708쪽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연감은 각 종단의 포교활동, 일반신도들의 신앙생활, 사건 사고, 행사 등 96년 불교계를 특징지우는 500여 항목을 선정, 관련 사진과 개요를 한데 묶는 형식의 화보중심 편집으로 구성되었으며 책 뒤에 1년간 발생한 2천여 사건을 일지 형태로 정리함으로써 사료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별책 부록으로 꾸민 '한국불교 인명록'은 현대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승가 재가의 불자 2천여명의 이력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최대의 불교인명 사전으로 편찬했습니다.

창간호 수록내용

- 96년 불교계 10대 뉴스/불교방송이 96년말 선정한 10대 뉴스를 화보와 사건 개요 설명으로 꾸몄다.
- 되돌아본 96년 불교계/96년 불교계의 각종 사건을 종단동정·포교활동·종교정책·사찰환경·신도동향·문화예술활동 등으로 분류해 종결산했다.
- 특집 - 사찰환경보존운동/사찰환경을 위협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위락시설 설치 계획 등에 대해 교계와 환경단체, 시민들이 공동대응하며 사찰주변 환경보존을 위해 활동한 내용을 이슈별로 묶어 소개했다.
- 월별뉴스/96년 불교계의 각종 사건·사고 및 각종 행사활동 등 총 500 여 항목을 월별로 분류해 원색 사진과 관련 기사로 수록했다. 월별 뉴스 중 96년의 불교계를 대표할만한 큰 행사였던 5월의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7월의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 9월의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를 월별특집으로 구성하였다.
- 기획특집-불교계 국제교류/한중일 불교교류 서울대회를 비롯해 96년 한해 동안 활발하게 진행됐던 한국 불교의 국제교류활동을 담았다.
- 96년 불교계 일지 - 총 2천여건에 달하는 불교계 각종 사건과 활동의 전말과 의미 등을 자세히 기록, 96년 불교계를 일목요연하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불교역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 부록-불교인명록/불교계 승가 및 재가 인사 2천명을 선정해 그들의 출생지 및 학력, 경력, 현직, 저서, 수상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 총 164페이지의 부록으로 제작.

불교방송 연감기획팀 02)713-0101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 빌딩

값 150,000원


◇서돈각 사장


◇류진수 부산사장


◇이상진 광주사장


◇법타 대구사장


◇박재선 청주사장

'깨침의 소리'로 포교혁명

불교방송 개국 7주년 성과와 과제

지방국 4곳 확충 전국방송망 가속

횡령사고 규명등 상처치유 시급

지난 90년 5월 1일 세계최초의 '불교방송국'이 첫 전파를 터뜨렸다. 라디오 방송매체를 통한 포교의 새 장이 2천만 불자들의 원력과 성금으로 이뤄져 7주년을 맞았다. 불교방송은 개국 이후 94년에는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국을, 95년 11월에는 불교대구방송국, 그리고 지난 25일 불교청주방송을 개국하는 등 1개 중앙국과 4개 지방국을 통해 불교방송의 전국화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또 개국이래 '자비의 전화'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등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신행과 포교의 혁신을 이루었으며 '거룩한 만남' 프로그램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도 했다. 또한 17사단 불상폐기사건 등에 대한 신속한 보도와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고, 90년 여름 수해때는 수재민 돕기에 앞장서는 등 공증파매체로서 몫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교방송의 오늘 모습은 상처투성이다. 지난 95년 2월 불교방송사태로 홍역을 앓았던 불교방송이 그 상처를 씻고 새로 태어나는가 싶더니 올해 1월 70억원이 넘는 횡령사고로 다시 수렁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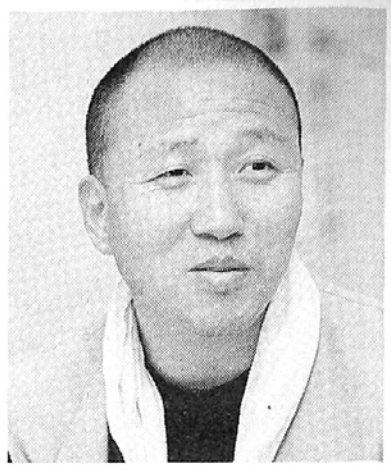
불교방송의 이같은 오늘의 모습은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계의 분석이다. 전문경영과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제작 등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 그 단적인 예로 방송국 개국초기 전체지출비 가운데 약 60%를 차지했던 방송제작비가 지난 96년에는 약 17%로 대폭 감소된 것이라든가, 지방국의 잇단 개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방국 관리의 미비로 불협화음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점도 그 하나다. 또 방송국 운영의 최고 의결기관인 재단이사회가 제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출자금 3억조차 완납하지 않은 이사도 있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교방송을 이끌어갈 '주인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1대 장상문 사장을 제외하고는 개국이래 사장 임기 4년을 제대로 채운 사장이 없었다. 장 사장의 타계로 93년 7월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인섭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김태호, 강한필, 박종하, 조해형, 서돈각씨 등 3명의 사장 또는 사장직무대행이 불교방송을 거쳐갔다. 불교방송이라는 큰 배를 움직일 제대로된 경영진 없었던 불교방송은 흔들리고 또 흔들려 표류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의 상황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지적이다.

치밀한 전문경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없이는 위성방송, 케이블TV, 지방민영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의 출연으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라디오방송매체로서의 전문성을 살리고, 불교포교라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위해 불교방송은 거듭나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강원, 제주, 전라지역등 계속적인 지방망 확보로 명실상부한 전국권방송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여기에 걸맞는 질높은 프로그램 제작으로 타매체들과 승부를 겨뤄야 한다.

새로 거듭나기위한 불교방송 개국 7주년의 최우선 과제는 이번 공금횡령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이와함께 내부결속과 투명하고 신속한 방송국 정상화 운영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만 개국이래 표방해온 '깨침의 소리 나눔의 기쁨'을 전하는 불교방송 고유의 기능과 특성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교계 북한동포돕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범불교기구로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총재 월주)가 발족돼 구심점을 갖게 되었다. 29일 출범한 불교추진위의 상임집행위원장 효림스님(보광사 주지)을 만났다. 〈편집자 주〉



수요 인터뷰

북돕기 불교추진위 상임 위원장 효림스님

"범종단 민족공동체운동 전개"

"굶주리는 동포 구함은 민족화해 한 방편"

-범불교적 모금창구를 마련한 셈입니다. 그 과정과 창립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단체들이 모였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굶어죽어가고 있는 내 민족을 살리자는 의지, 그것 하나지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간다면 큰 무리가 없을거라 기대합니다. 모든 불자들이 범불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의 식량지원은 동포의 생명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족화해의 길을 여는 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북한돕기 범불교기구로서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있는지요.

▲전국 규모의 산하단체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결합했기 때문에 기구확산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22일 월주스님을 방문하고 종단협의회를 통한 각 종단의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이에 제동을 거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알아보니 중앙신도회 회장이 개인의 생각을 내부적 논의없이 신도회장 명의로 게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신도회 역시 함께 북한돕기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조직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동포돕기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타종교인에 비해 저조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불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현재 경제가 악화되다보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 도울 여력이 어디있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1년간 음식쓰레기로 버리는 돈이 8조원에 이릅니다. 반면 북한 식량문제는 4천억원이면 가능하지요. 배고픈 호랑이를 만나자 나를 잡아 먹으라고 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불자들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기자

"자율성 확보 신행결집 모색"

직장 직능단체 지방연합 추진 배경

구성원들 소속종단 다양

中信會 사찰등록 규정 불만


◇재가불자연합은 23일 16개 단체대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단을 보강하는 한편 신도단체 결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가 창립 한달을 넘기고도 부회장단의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가불자연합(공동회장 안동일 외3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재가단체 결집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가 상반기중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초 창립할 (가칭)대구신행단체연합회도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독자노선 선언의 가장 큰 이유는 재가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앙신도회는 사찰신도회가 아닌 직장 직능 및 개별신도단체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나, 조계종 사찰등록이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신도단체들은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굳이 사찰에 소속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찰에 등록하면 아무래도 자율성에 제한이 따른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3일 재가불자연합은 임시총회에서 사부대중의 종단운영 참여를 강령에 포함시키는 정관개정을 회장단에 일임했다.

정관개정(안)에는 △사부대중의 종단운영 참여 △민주적 공개적 교단성취 △불교개혁의 지속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 제정 △불교내 폐단 및 사회불합리를 극복하고 정토세계 구현을 재가불자연합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앙신도회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중앙신도회 미가입 신도단체의 결집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초파일 이후 신도단체 간담회를 통해 서로간의 이견을 확인하고 거리를 좁혀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종래 사무총장은 "설령 가입하지 않더라도 서로 협조하는 관계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모든 신도단체의 중앙신도회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재가단체는 조계종사찰 중심의 중앙신도회와 특정 종단·사찰에 소속됨이 없는 직장·직능 및 개별 신도단체 결집체의 두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직능 단체들은 구성원들의 소속종단이 다양해 특정종단에 소속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승단과 협조하는 별도의 재가조직으로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들 직장 직능단체들이 지역을 단위로 재결속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앙신도회 외의 신도단체 결집에 대해 교계에서는 '대립'이라는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나의 단체로 힘을 결집시킨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성격을 달리 하는 단체가 협조 보완하는 체제가 불교계로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재가불자연합의 한 관계자는 "승단의 영향 아래 있는 중앙신도회는 아무래도 활동반경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앙신도회와는 성격이 다른 신도단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신도회가 승단이라는 구심점과 튼튼한 재정력이 뒷받침되었다면 새 신도단체는 말그대로 맨손이다. 단지 민주적 합의구조가 얼마나 힘을 결집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정성운 기자

목어

'과외 망국병'

"지난해 우리 국민은 사교육비로 20조원을 썼다. 교육부예산 15조원과 합치면 국가예산의 절반과 맞먹는다."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95%가 평균 2.5개의 과외를 받고 있다. 가구당 과외비용 월평균 35만원. 서울시 2천가구중 3.1%는 매월 1백만원 이상의 과외비를 지출하고 있다."

"과외비 조달을 위해 주부들은 파출부로까지 나서고 있다."

"사교육비가 국민생활 수준을 희생시키는 주범이다. 과외비 부담을 못이겨 자녀를 조기유학시키거나 이민을 가는 사례도 많다."

"과외비의 과중한 부담이 부정부패를 조장한다."

"서초구 S고의 한 학생은 6과목을 주2회씩 1천2백만원의 고액과외를 받았다."

"학부모들은 과외에서도 백화점식 소비행태를 보인다. 비싸게 불러야 명강사인 줄 안다."

"지나친 과외부담으로 우울증·불안증을 호소하며 정신과를 찾는 어린이도 많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조차 '학교에서는 기본만 가르친다. 나머지는 학원에서 배워와라'고 한다."

"사교육 병폐 해결책으로 '학원수강료 인상억제' '과외금지' '공교육 내실화' '입시위주 교육정책 개혁'같은 근원적인 대책이 강조되고 있다."

'과외망국병' 실태를 조사분석한 매체들의 보도 내용이다.

자식 잘 되라고 부모들은 피땀흘려 번돈을 아까운줄 모르고 쏟아붓고 있다. 그것이 나라와 집안에 망조들게 하고 자식 시들게 하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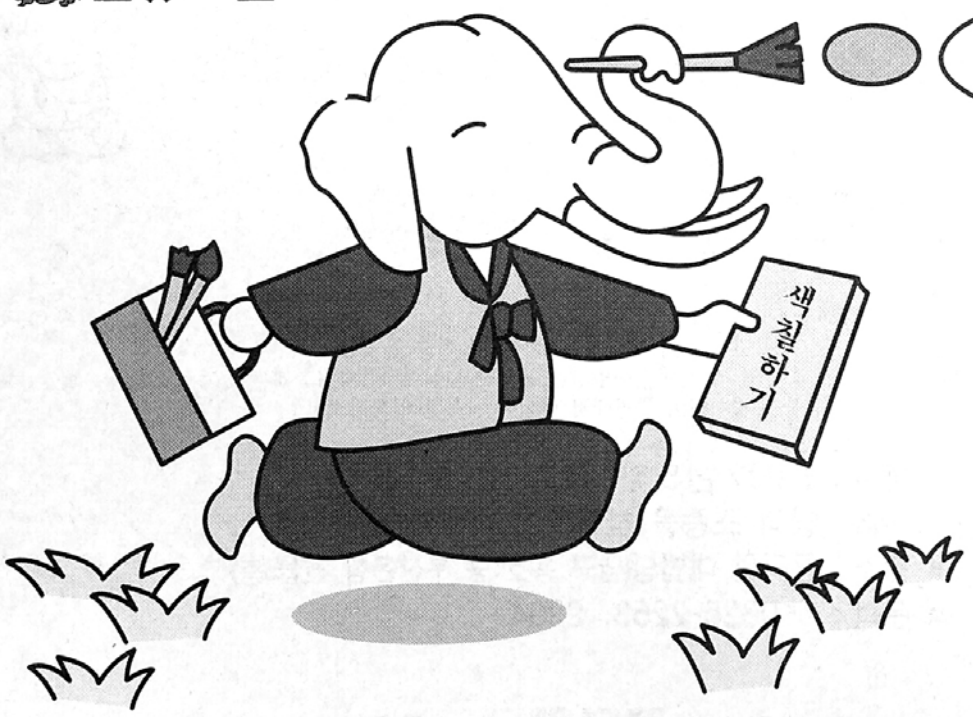
과외망국병을 고치려면 먼저 이땅의 어머니들이 현명해져야 한다. 더불어 교육정책이 하루속히 개혁돼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가꾸는 참교육이 실현돼야 한다.

"강건너 기다리는 언덕 있어라/ 하늘에 별 있어라/ 기다리는 사람의 눈에 별 있어라/ 별 있어라/ 별 있어라."

최근 출간된 高銀시인의 시집 〈어느 기념비〉에 실린 '별'의 일부분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책가방과 경쟁심에 눌리기 보다 강건너 언덕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기다림에 가슴 설레이며 자랐으면 좋겠다.

연꽃그림



코끼리 스님과 함께하는 —
부처님 (팔상도편) 색칠하기

◎크기: 크라운판(360×250㎜) 76p
◎정가:오천원(₩5,000)

두손에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쥐어주기만 하면
그냥 아무곳에서나 그림을 그려대는 새싹불자들의 맑고 깨끗한 가슴에
바른불교의 새김을 위하여 「부처님 색칠하기」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코끼리스님과 함께 부처님 오신뜻을 되새기며 색칠하는 과정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훌륭한 재능을 무럭무럭 키울수 있습니다.

편집인 김지산, 발행인 박진성행 합장

예금주 : 박미경
◎ 국민은행:293-21-0061-451 ◎ 농협:054-12-150637
◎ 조흥은행:327-04-058551 ◎ 우체국:104935-0006753

※ 단체주문, 법보시용주문에는 특별할인가격으로 드립니다. ※ 사찰단체구입시 앞표지에 사찰명을, 뒤표지에 법회안내를 해드립니다. ※

도서출판 연꽃그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빌딩 1104호
TEL: 02-3273-0066 FAX: 02-3273-1915



푸른 눈 선재동자 '연등불심'

Focus

주한외국인 어린이들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연등만들기에 동참했다. 미국 영국 등 20여개국 주한 외국인 어린이 20명은 25일 연등국제불교회관(원장 원명)에 모여 한 잎 한잎 정성들여 연잎을 붙여 예쁜연등을 만들었다. 손끝에 빨강, 노랑물 들이며 연등을 만드는 이들의 모습은 '눈푸른 선재동자'처럼 진지했다. 외국인 어린이들은 연등을 다 만들고 난뒤 조계사를 방문, 무진스님으로부터 부처님오신날 및 연등에 대한 의미 등 현장교육을 받았다. 한편 연등불교회관은 5월 4일 외국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연등만들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신심 북돋우는 계기 됐으면..."

전통등 재현한 동국대 백 창 호 씨



"직접 문헌을 찾고 큰스님들이 구술을 받아 한지로 전통 연등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수백년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전통등이 내 손으로 재현돼 불자들의 신심을 다시 돋워준다는 생각을 하면 보람을 느낍니다. 전통등 재현이 곧 불교문화를 살리는 첩경이 아닐까요."

전통등 연구모임 백창호 회장(동국대 미술학과 4년)의 말이다. 백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봉축위원회 후원으로 10여명의 회원과 함께 전통등연구모임을 결성했다.

큰스님들이 주석하고 있는 사찰과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수집한 정보와 불교미술학을 배우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결합, 5개월의 연구끝에 한지를 이용, 단청기법 등으로 채색된 코끼리등, 탑등, 용등, 거북등 등 20개의 전통등을 재현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에 재현된 전통등은 다시 고증을 받고 몇차례 더 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구전되어오는 것까지 재현해 등전시회도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중근 기자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 캠페인 3,050,520원 △밥 한 공기나누기 5,941,400원 △한마음선원 34,464,000원 △우리는 선우 3,000,000원 △불교아카데미 외 15개단체 9,901,550원 △백우 2,000,000원 △김남식 1,500,000원 △김세일 1,000,000원 △박용훈 1,000,000원 △한초자 1,000,000원 △황홍훈 1,000,000원 외 158명 〈23일 현재 총 299,595,623원〉

- 후원금 접수(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교차로

30시단 불광사서 법문

활안 송광사 천자암 조실스님은 5월 4일 육군 30사단 호국불광사(주지법사 송호경)가 주최하는 큰스님초청대법회 및 봉축 점등식에서 법문한다.

구로복지관 1돌 행사



도후 구로사회복지관장 스님은 30일 오전10시 구로종합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02)852-0525

나리와 구민위한 법회



지우 금강사 주지·도봉구 사암연합회장 스님은 5월 8일 도봉구 구민회관에서 도봉구청과 공동으로 봉축기념 '나라와 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개최하고 법어를 한다.

범어사서 자연보호 캠페인

흥교 맑고향기롭게살기부산모임 회장스님은 13일 범어사 경내에서 50여 어린이회원과 스티커 부착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부산역 봉축탑 점등식





성오 부산불교연합회장 스님과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은 29일 부산역광장에서 부산발전과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가졌다.

'금강경전서' 출판회



무비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스님은 5월 2일 오후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금강경전서〉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철벽부대 위문·수계식



원행 두타산 삼화사 주지는 20일 동해안을 경비하는 제68사 철벽부대를 방문하고 부대내 호국용해사에서 수계식을 봉행했다.

중국 상해 소년원 방문



삼중 부산자비사 주지는 12일스님 신도 70여명과 중국 상해시 소년원 징원중학을 방문했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TV 1대와 시계 볼펜 등을 기증하고 수용생들에게 정기설법을 약속했다.

'고승 무차대법회' 열어



우학 관음사 주지·영남불교대학장 스님은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고승 무차대법회'를 개최한다. (053)475-3707

'올해의 장애극복상' 받아

국선 예산보국사 주지는 1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가 처음 제정한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수상했다.

원로회의 사무처장에

효림 보광사 주지(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는 26일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혜암)에서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리마린포체 초청법회

혜인 삼화불교대학장 스님은 수행도량으로 해인사(성북구 돈암동)를 중창불사하고 5월 1일 오전11시 티벳 聖 라마린포체 초청 '마정수기' 대법회를 봉행한다. (02)511-2026

대불청 고문에



박완일 前 전국신도회장〈사진 위〉과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 대불회장이 지난 12일 대한불교청년회 중앙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됐다.



불암사 총신도회장 재임



정형식 일양약품 회장은 19일 열린 불암사 거사림회 신도회 합동총회에서 불암사 총신도회장에 재추대됐다.

칠성전망대서 점등식



박춘근 칠성부대 백암사 주지법사는 5월 1일 백암산 칠성전망대에서 통일기원 점등식을 개최한다.

무의탁노인·결식아동 위로

이양배 범어사 지장암 만일기도 봉행회장은 27일 지장암에 무의탁노인과 결식아동 3백50여명을 초청, '자비의 숨결' 행사를 개최했다.

"장애인 권익보호 행정 절실"

'올해의 장애극복상' 받은 양 만 석 교사



"상받은 것이 부끄러워 상금을 학교위난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1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가 처음 제정한 '올해의 장애극복상' 첫 수상자 10명중 한 명인 조계사 원심회 양만석씨(54세 서울맹학교 교사). 형체를 희미하게 보는 1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양교사는 60년대부터 맹인협, 안마사협 결성과 법제도개혁, 맹인신협 맹인라이온스클럽 조직 불교경전및 교리학습교재 점역 등의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에 앞서온 산증인이다.

양교사는 원심회 시각장애회원들과 경전 교리학습서 교양서적의 점역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틈틈히 양로원의 노인들에게 안마봉사활동을 하는 등 각종 사회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봉축행사용품 아이디어 '호평'

불교 이벤트하우스 박 상 균 이사



"조계종 봉축위원회 캐릭터사용 공식업체로 지정받아 내어놓은 다양한 봉축행사용 상품들이 불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상품들을 통해 봉축행사의 경축분위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축행사용품의 질을 한차원 높였다는 평을 듣고 있는 불교이벤트하우스의 박상균이사(前 선학원 사무국장·36)는 "종단 및 사찰 포교의 마당쇠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지난해 12월 교계최초의 불교계 종합 컨설팅회사로 출범한 불교이벤트하우스는 현수막 제작의 최첨단 기법인 전사방식을 이용하는 등 앞선 기술로 불교이벤트를 장엄하고 있다.

(02)3785-3381

김재경 기자



"동포애 일깨운 교육"

북한동포돕기 나선 증립 청담종고

청담종합고등학교(교장 이근우) 교사들과 학생 1천여명은 현관과 교실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자발적인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정한 액수를 정하지 않고 용돈을 절약해 모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큰 돈을 모을 수는 없지만 옥수수 10톤(약 1백67만원)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담종고는 교외모금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5월 7일 광택시 불교연합회와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시내탁발을, 초파일에는 불교학생회 학생들이 소속사찰에서 모금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

게시판

♣ 봉축법회

국립경찰병원 경승실=국립경찰병원 경승실(실장 혜광)은 5월 9일 오후6시 병원 대회의실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법회를 갖는다. (02)3400-1795

고려선원 국립극장소극장서=고려선원(원장 영산)은 30일 오후7시30분 국립극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연다. (0348)49-3658

♣ 모집

영아담당교사=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범산) 부설 동자어린이집은 전문대학 졸업자 및 경력자를 대상으로 영아반을 담당할 교사를 모집한다. (051)893-5034

헌혈기증자=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골수이식을 받기위해 서울대학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지항석씨(28·영광 연충사신도)를 위한 성분헌혈 기증자를 모집한다. 헌혈대상은 O형. (02)702-1316

자원봉사자대상 공모=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불교자원봉사자대회'를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 봉사분야는 사회복지 환경의료 교육 범죄예방 등이며 각 10팀에게 상금 1백80만원과 상패 부상이 수여된다. (02)723-5101

자원봉사자=대구불교사회복지회에서는 '메아리 청소년 자원봉사단원'과 '다소니 대학생 자원봉사단원'을 모집한다. 지원자는 월1회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벌이게된다.(053)427-1907

♣ 순례

중국불교성지 답사=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10일까지 중국 남화선사, 백두산, 연길 등을 방문하는 '불교, 비움의 순례' 동참 접수를 받는다. 출발은 6월 4일. (051)464-2020

♣ 강좌

야생화강좌=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5월 6일 오후2시 이옥순씨를 초청, 들꽃(야생초)강좌를 개최한다. (053)784-3669

청소년 범죄예방聯 총재



◇ 최일산씨

"청소년들이 참불자로서 불법을 호지·홍포하며 범죄없는 불국정토 건설의 역군이 되도록 군부대 일일입소 등 현장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24일 창립된 (사)한국불교청소년범죄예방연맹의 최일산 총재(월곡청소년센타 관장)는 매월 1일과 말일을 '범죄없는 날' '참회하는 날'로 각각 정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필〉



불기 2541년 부처님 오신날



나눔의 기쁨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저희 법인 공덕원에서는 청소년 생활보조금을 전달코자 아래와 같이 자리를 마련합니다.

불기2541년 4월 좋은날

사회복지법인 공덕원 이사장 석용산 합장

- 일시 : 1997년5월9일 (금) 오후7시
- 장소 : 파라다이스비치 호텔
- 내용 : 법인 경과보고 및 생활보조금 전달

당일행사는 초청자에 한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공덕원**

석용산 큰스님 대법회

삼보에 귀의하옵고
공덕원에선 불기2541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회주 석용산 큰스님을 모시고 강연 및 연등점등법회를 봉행하오니 여러불자님들께서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시어 무명에서 벗어나는 복된 인연되소서

- 일시 : 1997년5월13일 (화) 오후8시
- 주제 : 영적 스승을 찾아(인도 티벳불교 수행담)
- 장소 : 공덕원 대법당(남구 용호1동 부산은행 건물5층)
- 문의 : (051)625-2253, 2254

불교교육회관 **공덕원** 주지 석효선 합장

PC통신에 스님 대화방

천불동 교리강좌 연계 온라인 수계법회 추진

PC통신 천리안에 스님 전용 대화방이 마련되고, 온라인상의 교리공부를 통해 수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천리안 불교동호회(시삽 박수호, ID=zsbud)는 19, 20일 대전 동학사 부근 명산신장에서 전국모임을 갖고 스님전용 대화방인 '지대방'을 신설하고 '기초교리'와 '경전강독'을 연계, 수계법회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메뉴변경 초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스님들의 대화방 이용이 더욱 확대됨은 물론 실명사용으로 신분을 확인 할 수 없었던 스님들의 PC통신 이용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간 1만여명 이상이 접속하는 불교동호회 이용자 중 상당수가 통신상으로 수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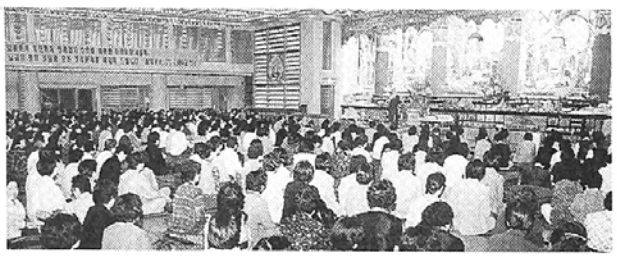
특히 수계법회는 '기초교리'방에서 기본교리와 사찰예절 등 초발심자들이 익혀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시킨 뒤, '경전강독'방에서 기본경전에 대한 이해와 토론과정을 거쳐 수계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함으로써 직접 사찰에 다니기 어려운 불교입문자들이 PC통신을 통해 간편하게 불교를 공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물론 수계법회는 사찰에서 열리게 된다.

91년 9월 6일 창립, 현재 1천3백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천불동은 두달마다 전국사찰을 돌며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년 7월에 수련대회를 열고 있다. 또 봉사모임인 보은회(회장 김수남)와 지역별 소모임을 통해 봉사활동과 지역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전 동학사=김재경 기지



◇천리안 불교동호회는 19,20일 대전 동학사 부근 명산신장에서 전국모임을 갖고 스님전용 대화방인 '지대방', 문화관련 게시판인 '예인의 향', '교계소식' 등을 신설하는 메뉴변경 초안을 확정했다.



◇능인선원 새벽예불에는 매일 2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다.

해탈 서원 '새벽불심'

강남 능인선원 매일 2천여불자 기도동참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에 빠져있을 새벽 3시반. 강남구 포이동에 위치한 능인선원(원장 지광스님) 대법당. 이른 새벽인데도 2천여명의 신도들이 지광스님과 함께 기도문을 같은 호흡으로 동음창화(同音唱和)하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벽 3시면 대문을 나선다는 정선명주(송파구 오륜동·48)보살은 "어제 하루를 반성하고 자신을 되돌아 보는 귀중한 시간인 새벽기도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루가 괴로울(?) 정도"라면서 환희심에 가득찬 얼굴을 보였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2천여명의 신도들은 한 목소리로 화엄성중과 반야심경을 독송했으며 일제히 염불소리에 맞춰 구슬땀을 흘리며 40여분간 정근했다. 도심포교당으로 출발한 능인선원의 새벽예불에는 10년동안 매일 2천여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지정 좌석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

지광스님은 "참불자로서의 삶을 살아 가고자 한다면 새벽을 잘 열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기상을 돈독히 다져야 부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탐방 외환은 불교법우회

일년만에 법화경 강독 회향

회원 3백40명…매달 회보 '연등' 펴내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연수실. 근무시간이 끝난 저녁 7시가 가까워 오자 서류가방을 든 말쑥한 차림의 은행원들이 하나 둘씩 강의실로 들어선다.

이곳은 외환은행불교법우회(회장 이제민 강서본부 부본부장·55)의 매월 셋째주 정기법회가 열리는 법당.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법화경〉 강의가 1년 2개월만에 회향되는 날이다. 중앙승가대학 교수인 종범스님이 강의실로 들어서자 원례법회가 시작되고, 이어 스님의 자상한 법문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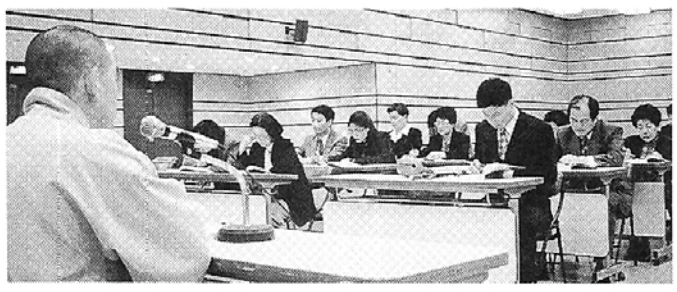
오늘은 〈법화경〉 강의의 대장정을 마감하는 날이라 모두들 표정이 밝다. 방대한 〈법화경〉을 통독했다는 자부심과 끝까지 처음의 발심을 잃지 않았다는 흐뭇함으로 강의실에 미소가 가득하다. 따로 책걸이는 하지 않았지만 여직원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했다. 바쁜 와중에 한번도 강의를 빠뜨리지 않은 스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지난 89년 1월20일 창립(초대 회장 유진종)된 외환은행불교법우회는 경전공부 외에도 분기별로 사찰순례를 떠나고 매달 회보인 〈연등〉지를 펴내고 있다. 특히 3백4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빠짐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상당액의 회비로 봄·가을에는 양로원과 고아원 등 불우이웃을 방문하면서 불심을 다지고 있다.

법우회는 이제까지 경전공부 위주로 진행해 온 법회를 내달부터는 수행법 실수(實修)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명규 총무(전산운영실 계장·40)는 "선경그룹에서 유행중인 아침 단전호흡 수련처럼 매주 아침 또는 저녁에 참선·선체조·요가·명상 등 실제적인 수행법을 스스로 체험케 해 직장생활에 건강과 활력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외환은행 불교법우회는 16일 1년2개월만에 〈법화경〉 강의를 회향했다.

우리 모임에선

청와대불자회 수계법회

청와대불교신행회(회장 박세일)는 26일 서울 종로구 법련사에서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를 받은 회원들은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이각범 정책기획수석, 배재욱 사정비서관 등 61명.

이날 청하스님은 법문을 통해 "5계는 부처를 이루는 근본인(根本因)"이라며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제자로 새롭게 태어난 오늘부터 열심히 정진하여 나라의 모범이 되는 공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기사회 영정 무료촬영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5월 4, 11일 부산역광장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정사진 무료촬영 봉사를 실시한다.

간식제공도 겸한 이날 행사에는 머리손질, 화장 등 사진촬영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봉사요원들이 친절히 도와줄 예정이다. (051)464-2020

무량회 봉축 제등행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이완배)는 부처님오신날 하루전인 5월13일 올림픽공원 호수주변에서 제등행렬 행사를 가진후 올림픽공원회관에서 가족법회를 봉행한다.

정법회 맹인불자 무료수송

대구개인택시정법회(회장 김주본)는 27일 대구 팔공산에서 대구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가 주관하는 봉축기념법회 및 등산대회에 차량 40대를 지원, 무료로 맹인불자들을 수송했다.

서울구치소 교리공부 회향

서울구치소불심회(회장 임장수)는 30일 오후 7시 서울 사당동 전광사에서 불교교리반 회향법회를 봉행.

40여명의 교도관이 지난해 말부터 전광사 주지 송암스님 등의 강의로 기초교리와 〈반야심경〉 〈법화경〉 등 경전공부를 시작, 5개월만에 회향한 것.

붓다클럽 '나라위한 법회'

제주지역 불자기업인들의 신행모임인 붓다제주중앙클럽(중앙총회장 문인종)은 오는 5월10일 오후 6시 제주 칼호텔 2층 연회장에서 '나라와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를 갖는다. 이와함께 효행·전통예술·사회봉사부문에서 각 1명씩을 선정, 제5회 붓다대상도 시상한다.

국회 보좌진 '법우회' 창립

회원 50여명 내달 1일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국회 보좌진 불자모임인 법우회(회장 정병국)가 창립된다. 지난달 경기 파주 보광사에서 발심법회를 가진 바 있는 법우회는 이날 주지 효림스님으로부터 모임의 명칭을 정하고 총무 이건식 보좌관 등 집행부를 구성, 5월1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현재 국회내에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회장 서석재)와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모임인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이범이)가 있으나 국회의원의 업무를 주관하는 보좌진들의 모임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각종 불교관련 입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지도법사는 효림스님, 회원수는 50여명 내외가 될 예정.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4천장병 수계

육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법사 경연수)는 지난 20일 법당앞 연병장에서 부대장 정화언소장을 비롯 군장병 4천여명과 전북불교회관 합창단, 가족·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수계법사로 장병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매주 3천여명이 법회를 보고 있는 호국연무사에서는 지금까지 60여만명의 장병이 수계를 받고 불자로 태어났다.



장애인의 날 기념법회 및 자비잔치

제17회 장애인의 날 기념대법회 및 자비잔치 한마당이 20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교계 4개 장애인단체 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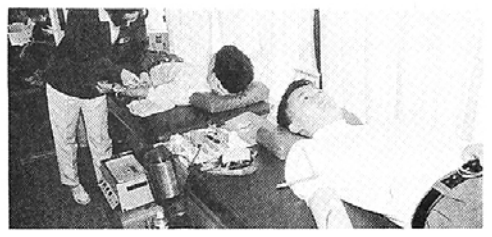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인영(원심회) 김광록(광립사연화북지학원) 양만석(서울맹학교 교사) 도춘자(혜광맹인불자회) 박종필(장애인문인협회) 박인철(한마음회)씨와 부름의전화 김정희씨가 감사패와 부상을 받았다.



57사단 호국통일탑·일주문불사 회향

육군 제57사단 호국용마사(주지법사 문병렬)는 20일 봉선사 주지 밀운스님, 사단장 김효수소장과 불자장병 및 가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통일탑 및 일주문 불사 회향법회를 가졌다. 1,050만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480명을 투입, 2개월만에 완공한 호국용마사 통일탑은 5층 높이의 3층석탑이다.

한편 57사단은 지난 1월 사단예하 독수리부대의 호국무량사를 증축, 불자장병들에게 호국불심을 심어주고 있다.



파라미타 봉축기념 전주서 헌혈행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는 지난 18일 동대부고에서 6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헌혈행사를 벌였다.

5월14일까지 9천여명이 참여할 이번 헌혈행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생명공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적십자동부혈액원은 96년 서울 동부지역에서 개신교인 7천3백40명, 천주교인 1천3백30명이 헌혈을 한데 비해 불교에서는 41명만이 헌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통신강좌 안내

1. 제1기 기초반

개론, 생활차·의식차 행다법, 배례법, 다례복 입는법, 차 만드는법, 성분, 차음식과 다식만들기
수강료 : 월40,000원

2. 제1기 전문반

(삼국시대 행다법)

고구려의 무용총 행다법(무용총, 각저총), 가락국의 행다법(김수로왕묘의 행다법), 원효선사의 행다법(지장법사, 행다법), 보천·효명태자의 행다법, 충담선사의 행다법, 실습(비디오교육), 진감선사의 행다법(수칠화상의 행다법)
최치원의 행다법,
사선랑의 행다법,
수료식
수강료 : 월50,000원

차 문화 강좌 안내

전문반 강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에는 전문반 강좌(100회강좌 석용운 스님강의)

기초반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에는 기초반 강좌(석용운 스님외 4인)
장소 : 인사동 초의선원

제9차 한국차문화연수

신라의 고도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계속할 것입니다.
참가인원 : 선착순 100명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지 않고 좋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석용운스님의
한국차문화특강
통신강좌

3개월간 매주 1~2개 테임(석용운 스님 강의)을 받아 청취를 하고, 한달에 1번(지정된 일요일 2시~4시 : 세번 출석) 초의선원(인사동)으로 출석하여 실습을 하며, 마지막 일요일에는 수료식을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초의문화재단으로

주소 : 종로구 관훈동 196-6
전화 : 02-732-2317, 8
팩스 : 02-732-2319

계좌번호 006-01-0452-791 국민은행 전종석
010579-0026125 우 체 국 전종석

초의차, 감로차, 초의선사 다기

초의선사에 의해서 정립되어온 차의 숨결과 맥을 용운스님께서 전해 드립니다.

분청다기

조선초기부터 오늘날까지 끊이지않고 안목있는 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우아한 분청의 멋이 함께 합니다.

고려시대 찻상

고려시대에 쓰던 찻상을 고증/재현하여 만든 찻상 3개 1셋트

은 차숟가락

고려시대 궁중에서 쓰던 은 차숟가락을 재현

서적과 테잎

석용운스님 강의 테잎
한국다예(석용운스님 저)
차는 인간을 멋있고 향기롭게 해준다(천병식교수 저),
차와 명상(이중해선생 저),
차의미학(고세연 저)

중국 / 대만의 명차

그 밖에도
무이암차(중국 무이산에서 생산), 벽라춘, 보이차, 철관차, 천첨, 공첨, 용정차와 같은 중국의 명차들과 동정오룡, 백호오룡(동방미인차), 고산오룡, 문산포종과 같은 대만의 고급 차들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圓虛堂 仁弘 禪師께서 지난 불기 2541년 4월 14일 세수 90세 법납 56세로 입적하셨습니다. 이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영결식과 다비식에 참석하여 추모해주신 원로대덕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문도들은 圓虛堂 仁弘 禪師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정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불기 2541년 4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말사
석남사 문도일동 합장

49재 봉 행 안 내

■일 시 : 불기 2541년 6월 1일 (음 4월26일) 오전 10시
■장 소 : 석 남 사 (경남 울산시 울주구 상북면 덕현리 1064번지)
■문의전화 : (0522)64-8900

법회안내

정각사(02)742-1231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주지 광우스님
어린이법회 매주일요일 오전9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0431)273-6946
교리법회 매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
법회재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8시
청년법회 매주 목요일 오후7시30분
대학생법회 매주 월요일 오후7시30분
유치부·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5시
고3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
신행화법회 매주목요일 오전10시30분

능인정사(02)462-1335
초하루기도
매월1~3일
(음) 오전10시
30분

◇주지 법경스님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중·고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기초교리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6시

광양 보광사(0667)763-1192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격주 토요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4시

광명 금강정사(02)693-2700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 학업성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염불사(02)938-9395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1시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1시
거사림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학생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준법 임금이 바른법 행하면…

지도자가 법(法)답지 못하면 아래 사람들도 모두 법답지 못하게 된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왕의 법이 옳지 못한 때문이니라.

우리나라의 헌시국을 진단하는 듯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들을 비롯 장관·국회의원 등 공무원, 기업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모두 제 위치에서 각기 법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오늘날의 혼란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5월1일 '법의 날'을 맞아 사회의 제규범인 법의 경전적인 의미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 민생이 다 고통을 받는 것은 왕법(王法)의 부정에 말미암고 민생이 다 낙(樂)을 받는 것은 왕의 법교(法敎)가 정(正)다움에 말미암는 것이다. 〈증일아함경〉

○…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하여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으로써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수행자 등을 보호하고 보살피라. 〈중아함경〉

○… 다만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유행경〉

○… 만일 임금이 정치와 교화를 바른 도리로서 하지 않으면 대신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이요, 대신들이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왕의 태자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태자가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신하와 관리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증일아함경〉

○… 국왕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정사를 행하고 악한 일은 덜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방등경〉

○… 왕이 되어도 살생하지 말고 남을 시켜 살생하지 말며, 한결같이 법대로 행하고 법 아닌 것을 행하지 말라. 〈작왕경〉

○… 물을 건너는 길잡이 소가 길을 잘 인도하면 뒤따르는 많은 소들이 빠지지 않고 물을 건너듯 나라의 임금이 바른 법을 행하면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즐거우니라. 〈증일아함경〉

○… 대왕이시여, 왕중의 왕을 전륜왕(轉輪王)이라 합니다. 이 법왕의 통치는 칼과 몽둥이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법에 의지하여 덕을 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므로 모든 악으로부터 항복을 받습니다. 〈대살차니건지소설경〉

○… 국왕은 납세를 적게 하고 노역을 덜어주며, 관리를 등용하여 직책을 맡기되 번다하지 않도록 힘을 쓰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어 내쫓으며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예전 성인의 법을 순종하여 가혹한 형벌이나 목숨을 없애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방등경〉

○… 선남자여, 나의 궁궐에서는 정법(正法)으로 중생을 교화하며 이로써 받아들인다. 벌할 것은 벌하고 다스릴 것은 다스리고 모든 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두려워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도록 한다. 〈화엄경〉

○… 마하삼마디라고 함은 '여러 사람에게 뽑힌 이'라는 뜻이다. 곧 여러 사람을 위해 법을 맡은 통치자를 말한다. 〈이함경〉

신행수첩


◇23일 우리는선우 모임방에서 백련상조회 이화수 부회장이 회원들에게 염습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불교장례 무료 봉사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한번씩 경험하게 되는 죽음.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다음 생을 시작하는 회향의 뜻에서 죽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관련 우리는선우 백련상조회(대표 이화수)가 재가 신행결사 운동의 일환으로 무료 안구시술 및 불교장례 봉사를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영가와 그 가족들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 입종에서 발인(화장비 포함)까지 무료로 봉사한다. 무연고자, 보호자 사망으로 소년소녀 가장이 되는 경우 신청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02)278-8672

보명스님 천도의식 강의

갑자기 가족·친척이나 이웃이 상(喪)을 당했을 때 불교의식을 잘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상을 치르는 방법이나 49재 등의 의식을 알고 있으면 여법하게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능인회(회장 황보천) 애사봉사부는 보명스님(능인선원)의 강의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능인선원 소법당에서 영가천도의식교육을 실시한다. 각종 의식법문의 독경순서와 목탁·요령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02)406-3626

생활속의 환경문제 진단

생태위기는 단지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은 생활속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삼는 '제14기 생태학교 강좌'를 5월2일부터 6월22일까지 개설한다. 50명 모집에 참가비 7만원. (02)765-6324

만해기념관 상량식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주지 마근)에 건립되고 있는 만해기념관이 5월7일 오전10시 상량식을 갖는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회장 명호근)가 건립하고 있는 만해기념관은 지하1층 지상1층 총1백여평 규모로 연말경 완공 예정이다. 이 기념관이 완공되면 만해사상을 연구하고 재조명하는 '만해사상연구소'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본부사무실과, 만해스님의 〈님의 침묵〉 등 각종 저서와 자료 등을 전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0365)462-3244

직장인 강좌 석굴암답사

국립증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이 매주 토요일마다 여는 '직장인을 위한 역사·문화공개강좌'가 오는 5월10일 불국사 석굴암 답사에 나선다.

유문룡 문화재전문위원의 설명으로 진행되는 이번 답사는 현장체험학습에 비중을 둔 것으로, 문화유산의 현장에서 우리민족의 정서와 뿌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발은 오후2시30분 박물관 동문주차장. (02)398-5083(임광용)

교통안전기원 목탁달기

"무사고 운전기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금은보화도 아닌 하나뿐인 생명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사회는 부주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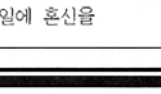
혜은정사(주지 혜은스님)는 5월12일 마포구 서교동 청기와예식장 앞 사거리에서 오전9시부터 낮12까지 운전기사들의 무사고 운전을 기원하는 '목탁달아주기 운동'을 벌인다. (02)338-2158

부처님마을 '소쩍새' 위로

PC통신 불교동호회인 나우누리 부처님마을(시샵 권상목)은 오는 5월18일 소쩍새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정신장애자와 지체부자유자 등이 수용된 시설에서 청소와 원생목욕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인간방생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오전 7시30분 조계사에서 출발. 동참자는 나우누리 nowbud(불교마을)로 신청.

나의 수행일기


안 정 황

"40만 어민 불자화" 원력세워

조석염불 생활화… 아내와 함께 전법

봄 나들이도 아닌 공무수행으로 도시를 벗어나 동해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차창 속에서 청정무한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센 파도가 용솟음치는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문득 뇌리를 스쳐가는 것은 이슬같이 미약하고 단명한 삶의 고뇌였다. 바람따라 강건너 산등성이 넘어 운문사 말사인 대우암으로 찾아들면서 나는 부모님의 고생담을 되새겼다.

어머님이 나를 잉태하신 연의 고뇌는 다른 사람과는 사뭇 달랐다. 부처님께 자식 하나 점지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서원불공으로 나를 낳으신 것이다.

그러나 전생에 살생업보 때문인지 잉태하신 지 7개월만에 아버님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으며 홀어머님이 부처님께 의지하며 외롭게 나를 키우셨다. 농촌 시골댁의 맏손자로 귀여움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좀더 자라 30여리 떨어진 읍내 중·고등학교를 도보로 다니면서 항상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며 불심을 키웠다.

대학시절에는 부산불교청년회에서 활동하다가 대학졸업과 동시에 ROTC 장교로 임관하여 최전방 부대에서 불자회를 구성, 호국이념을 목표로 불공수행을 하였다.

제대후 공무원이 되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한 생활이 싫어 하월곡동 소재 탑주심인당을 찾아 다시 불교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불교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직장 동료와 함께 주경야독으로 야간에는 남산에 있는 불교학교에서 공부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애들과 함께 나를 기다리는 아내는 밤늦게 온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였지만 나는 언제나 하심으로 대하였다. 나중에는 아내도 불교학교에 입학해 매일 저녁 부부학생이 되었음은 물론 애들도 엄마와 함께 학생회에 참석하는 불심돈독한 가정이 되었다.

불교학교 학생회장을 맡아 학교일에 혼신을 다하면서 집 서재에 불당(佛堂)을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을 외우고 출퇴근시에는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을 염송하는 등 참회와 실천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게 되었다.

좀더 불교에 심취하면서는 동국대대학원에 부부가 같이 수학하는 동시에 대한불교법사회 법사로서 포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편 아내는 최근 강남 역삼동에 소재한 참빛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동심속에 부처님의 자비한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

아내가 어린이 포교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나는 직장(수협중앙회)에서 불자회 운영을 위한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직장직능법회 운영의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하심수행의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40만 어민을 불자회원으로 만들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



매월 정기법회와 매 주말 불자 교육원이나 경로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체험의 장이 숙명적인 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나날이 즐거운 하루가 되고 있다.

수년전 불교계의 기쁨인 불교방송국 개국이 이루어지자 칠순의 시골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평생 농사지어 채소 팔아 한푼 두푼 모은 돈을 불교방송국에 기탁하였다. 또 불교지방방송국 및 불교TV발족 추진위원회에도 참여해 불음(佛音)의 전파에 일조하시었다.

이처럼 어머님의 깊은 불심이 나와 우리 가족을 부처님의 품안에서 열심히 정진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온 가족 모두가 일체동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실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내가 아는 것만큼 이웃에게 전하리라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수협중앙회 가락공판장長〉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백봉 김기추 거사 법어집
● 세계사 刊
※ 각 서점에서 판매중

無邊虛空一句來 가이없는 허공에서 한구절이 이에오니
案山踏地大圓鏡 허수아비 땅밟을새 크게둥근 거울이라
於此莫問知見解 여기에서 물지마라 지견풀이 가지고는
二三六而三三九 이삼이라 여섯이요 삼삼이라 아홉인걸.
(본문중에서)

● 백봉 선생님 저서 : 절대성과 상대성, 금강경강송, 유마경대강론, 백봉선시집, 선문염송요론 1-14권

구입 문의처 : 보림선원 서울지부 (02) 3453-4496

● 법회 안내

법 회	시 간	장 소
수 요 법 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10시	강남선원
금요철야정진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익일 아침 6시	강남선원
토요철야정진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익일 아침 6시	정릉 보림사 선방
동,하계철야정진	동,하계 각각 1주일간	정릉 보림사 선방

보림선원 서울지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20 태경빌딩 3층
TEL : (02)3453-4496 FAX : (02)508-2734

법화경 무료 특강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4·8봉축기념 및 본교 책임교수 최공덕스님 부산불교방송 일요특집 8회〈법화경 강의〉를 회향하는 자리로 〈법화경 무료특강〉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양력 5월 7일(음 4월 1일)오후2시~4시
2. 장소:부산·국제신문사 4층강당
3. 법사:최공덕스님(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4. 전화:(051)633-6224 · 017-501-8711

※ 동참자 선착순 300명에는 법화삼부경 독송용(싯가 3만원)1권씩과 액자용〈佛〉字 1점 그리고 동남불교신문에 연제되는 〈법화경 강의〉 지난호분 일체를 법보시(무료)로 드립니다.

한국승가대학원 사회교육부
701-600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3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4월 20일 ~ 5월 20일
■ 개강일시 : 1997년 5월 20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선법사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불자 세상보기

귀순 황장엽씨가 말하는 北식량난



황장엽씨가 20일 서울에 도착했다. 정부는 그동안 궁금하게 여겨온 북한에 대한 각종 의문이 적지 않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이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착 성명을 전후해 밝힌 내용은 포괄적인 수준이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전달하고 있다.

"빌어먹는 나라로 전락"

"인민들은 기아에 신음하고 있으며, 당국은 드디어 국제사회에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여 놓았다고 호언장담하던 나라가 빌어먹는 나라로 전락했다."

지난해 8월 작성한 논문 '조선문제'에서도 북한 식량상황을 밝혔다. "매년 1백만~2백만톤의 양곡이 부족할 것이다. 최소한 1백만톤의 원조는 있어야 굶어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떡값이 사회 어지럽힌다"

국민회의 初選 30명 자정선언

경조사비등 정치경비 최소화
"단순한 결의아닌 실천 앞서야"

국민회의 초선의원 30명이 22일 국회 로텐다홀에서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떡값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정치와 검은돈의 단절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라며 "어떠한 명목의 떡값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조사비 등 억제가능한 정치경비의 지출을 삼가하고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선거법과 정당법의 재정비 △떡값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선언에는 정세균 김한길 설훈 김영환 천정배 조성준 배종무 김병태 정한용 유선호 조한천 이성재 최선영 방용석 정동영의원 등 30명이 동참했다. 한편 전북도가 최근 뇌물과 촌지 거절방법을 소개한 팸플릿 1천여부를 제작, 도내 공무원들에게 배포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자정선언은 정치권이 검은돈 수수의혹에 휩싸여 탈출구를 못찾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한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92년 민주당 초선의원 12명이 주도했던 '깨끗한 정치선언'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 점에 비추어 이들의 선언도 단순한 결의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성운 기자



◇국민회의 초선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떡값근절'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다짐했다.

불교의 눈 "깨끗한 마음이 곧 부처"

일면스님(서울 불암사주지, 조계종 종회의원)은 "이같은 자정선언이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초발심의 마음으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철교수(동국대 정치외교학과)는 "자정선언에 머물지 말고 떡값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서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이 곧 부처라고 가르치신다. "악한 일 멀리 하고 힘따라 선행하며 내 마음 밝힌다면 모든 부처님 미소짓네."(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증일아함경 권1서품)

시론

배고파본 사람만 안다

북한주민들의 기아상황에 관한 보도가 외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 국민중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60년대의 보릿고개시절을 익히 겪었기에 북한주민들의 식량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앞으로 하나될 민족인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아프리카 난민구조나 아시아저개발국에 대한 원조의 대열에 들어선지 오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을 대하는데 있어서는 언제나 이념적 적대관계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정치현실속에서 살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이 번번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목도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겪으며 50여년을 서로 반목하며 살아왔으면서도, 우리가 동포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등돌릴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으며, 앞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이 은 기
〈法博 · 변호사〉

얼마전 식량문제협의차 중국에 다녀온 스님의 얘기를 우연히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북측불교관계자가 부피가 큰 곡물인 옥수수를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을 정도로 식량사정이 절박한 모양이라는 것이다. 그 정도라면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오히려 사치스러워진다. 오죽하면 질은 고사하고 우선 양으로라도 배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요청을 했을까. 어느 누구도 배고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굶주림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말그대로 허구일 뿐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교육부는 각종 학교에서의 북한주민 식량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금한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전달창구를 단일화하고 체계적으로 북한주민돕기운동을 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온갖 종류의 성금을 학교에서 숱하게 거두어 왔으면서 이번엔 왜 그렇게 대처하는지 선뜻 이해가 안된다. 최종전달방법만 정부나 적십자사에서 주도한다면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도하 각 신문에서는 북한주민돕기에 앞서 왜 북한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그 말도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적, 절차적으로 너무 상황이 긴박한 것 같다. 우리가 북한이 그렇게 된 이유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식량지원은 엄밀히 따져보면 정치외적인 문제이지, 정치 그 자체는 아니다. 오직 동포애의 발로로서만 생각하자. 도울 때는 조건없이 도와야 한다. 어떤 의도적 조건제시나 공치사는 '베품'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일찌기 부처님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보시'를 실천수행의 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보시중에서도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즉 받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베푸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으로 들었다. 그런 생각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저 멀리 아프리카의 굶주린 사람들까지도 돕고 있지 않은가.

부처님의 자비심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미친다. 부처님은 만가지 생명체의 인연을 중시하였다.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같은 민족으로 태어난 것도 무한한 인연의 소치다.

먹다 남은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우리의 현실을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일지 두렵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남을 모른체 하는 악업(惡業)을 매일 매일 쌓고 있는지 모른다. 다같이 조금이라도 아껴서 굶주리는 북한주민을 도울 일이다. 그것은 인도주의, 민족주의 등 거창한 수사(修辭)를 떠나서 불자들의 이타적 실천행(利他的 實踐行)이 아니고 무엇이랴. 남을 돕는 것 만큼 큰 선업(善業)을 쌓는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들뜨지 말고 조용히 돕자

일각에서는 북한주민을 도우면서도 식량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 문제는 식량의 배급과정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감시나 통제를 강구할 수도 있겠고, 북한의 위정자들로부터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소박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달통로도 가까운 길을 놔두고 굳이 먼 길을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

남북양측이 이제는 지엽적 문제는 접어두고, 대승적 견지(大乘的 見地)에서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계 금주 파계

'인간의 책임' 윤리 제정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선언이 제정된다. 21,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적 종교지도자와 석학 20여명은 사회 각분야의 도덕적 책임과 어린이 존중, 환경을 포함한 지구와 우주에 대한 책임의 규범화를 담은 윤리선언 초안을 심의했다. 초안은 6월 26개국 전직 국가수반들이 참석해 열리는 IAC(세계행동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UN사무총장과 전세계 국가수반에게 보내진다.

뇌사어린이 10명에 새생명

●…13일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김민수어린이가 신장 늑골 각막 등 10곳의 장기를 기증, 10명의 새생명을 탄생시킨 뒤 눈을 감았다. 인천중앙길병원 심장센터 박국양과장팀은 김군의 장기를 이용,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옻나무서 항암성분 추출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 나천수 박사팀이 21일 옻칠액의 주요성분인 우루시올(Urushiol)에서 항암효과가 뛰어난 MU2 성분 분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MU2는 항암효과가 탁월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급성독성이 전혀 없는 5가지 물질의 복합체이다. 이번 연구결과가 산업화되면 농가소득 증대와 암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재활전문대 세운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00년 개교를 목표로 수도권 지역에 국립 재활전문대학 1개교를 설립키로 하고 부지선정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학교는 일반학과 7개, 장애인 재활지원 관련학과 4개 등 11개 학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북한어린이돕기 연극잔치

●…북한어린이돕기 '사랑의 연극잔치'가 5월 1일 개막 6월 15일까지 서울 전역의 공연장에서 36편의 연극이 펼쳐진다. 집행위원회는 북한어린이돕기 티켓 2만장을 발매, 티켓 금액 8천원 가운데 3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 무주군청 소속 공무원 4백90명은 21일과 22일 이틀동안 3백여만원을 모금했다.

무의탁노인에 보청기 선물

●…자신도 청각장애인인 온누리보청기센터 주인 홍영희씨(49)가 18, 19일 시가 1천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서울 광진구 환경미화원과 서울시 관내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1백여명에게 전달했다. 홍씨는 지난해에도 생활이 어려운 청각장애인 1백31명에게도 보청기를 나눠주었다.

농약오염 중국산 인삼 유통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최근 '고려인삼정골드' 등 5개 회사 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국내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기준치의 최고 18배 이상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안전본부는 이들 업체가 값이 국산의 1/3밖에 안되는 중국산 밀수인삼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시민 80% 수돗물 불신

●…대구시민 10명중 2명만이 수돗물을 믿고 마시며 2명중 1명은 생수도 믿을 수 없지만 수돗물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대구시상수도본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와함께 상수도 행정등 급수서비스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57.6%에 머물러 상수도행정에 대한 불만도 비교적 높았다.

고속도 휴게소 유해식품 판매

●…고속도로와 국도 이용객들을 상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거나 보관해온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소장 등 12명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적발됐다. 검찰은 여행객들이 휴게소 음식을 먹고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DHEA식품 대량 밀수

●…DHEA등 건강보조식품을 밀수 또는 판매한 업자 3명이 약사법,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이 성인병 및 성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 판매한 '자무퀸 골드' 등은 구토, 현기증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중령 군기밀 빼돌려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22일 미국인 무기중개상 등에게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국방부 군수국 김모 공군중령을 구속하고 관련자 7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모중령은 94년부터 96년까지 2급 기밀인 국방중기계획 초안 등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판돈 46억원 내기 바둑—골프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3일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상습적으로 내기바둑과 내기골프를 통해 46억대의 도박을 해온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하고 정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95년 일본 오이타현에서 한관에 1백만원에서 5억원까지를 걸고 20여 차례의 내기바둑과 내기골프를 친 혐의이다. 이에앞서 60대 여병원장이 도박판에 빠져 43억원을 잃기도 했다.

법륜사 양로원 안내문

노후를 부처님과 함께 …

삼보귀의 하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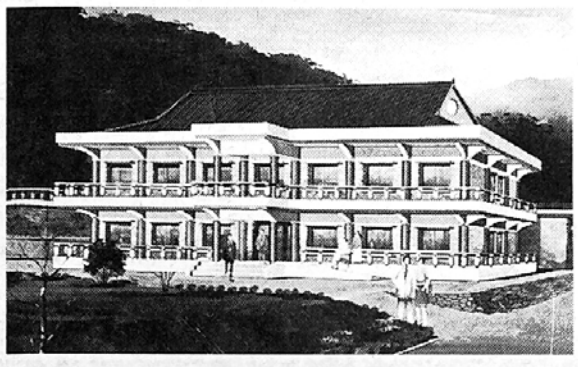
급변하는 사회적인 변화로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 만연과 물질이 좌우하는 배금사상의 톱니바퀴속에서 우리의 자랑인 효(孝)의 근본(根本)이 흔들리는 현실속에서 허덕이다 보니 부모와 자손 형제등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인성이 무너지는 것을 어찌하리!

이러한 불안요소가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연로하신 노인분께서는 한을 갖게됨에 따라 가족간에 갈등이 심화되니 누구에게 책임있단 말인가?

하루가 일년같이 빠른시대에 살고 있는 연법(緣法)인 것을 세상을 떠났다해도 연법은 계속 유지되는 것!

우리 불자님께서는 인연법을 중요시 하므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효행을 할 수 있는 길은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안케 해 드리는 것이 유일한 효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소승이 평소에 보고 들은바 원력에 힘입어 금번 가야산과 지리산이 합쳐진 만대산에 산수 수려하고 운치 좋은자리에 법륜사 대웅전 및 양로원을 창건함에 따라 낙성식前에 불성 깊은 불자님과 인연되어 남녀노인을 자비심 도량에 모시기를 부처님前에 예를 올립니다!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고의 설계 및 시설 또한 자체농사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면 가족분이 오셔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특히 주말 농장을 입주하신 노인분들의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욕탕 및 독서실, 오락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또한 얼키고 설킨 삶의 지치고 허한 가슴에 맺혀있는 한을 기도와 좌선 예불 등을 통해서 노인의 자성이 밝아 성불할 것이며 이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신 가족분들께서도 그 공덕이 세세 손손까지 부처님의 복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인분들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서 비구니 스님께서 불보살을 대하듯 자비심으로 모시게 되오니 많은 인연을 지면을 통해 남 · 녀 노인분을 한정된 인원까지 모시겠습니다.



구분별 양로 내용 및 금액			
1	구 분	유료양로원	기 타
2	남 · 녀 총 인 원	65명 남녀	간염, 폐, 악성피부, 전염성제외
3	방 1 실 인 원	1 실 1 명	서로의 성격을 보고 사주상의 합인을 선정
4	평생양로부담금	1 명 해 당	4천만원 단 사망시 공제됨
5	부부양로부담금	2 명 해 당	1인 삼천오백만원 합7천만원 공제됨
6	평생환불부담금	1 명 해 당	삼천만원에 월30만 사망시 보증금 환불
7	고 시 준 비 생	1 실 1 명	식대, 편의시설 제공 월30만원
8	편 의 시 설	각 방 마 다	벽장농과 거울부착 텔레비젼 전화기등설치
9	접 수 년 월 일	1997년4월1일부터 1997년 5월30일까지	
10	입 주 년 월 일	1997년 5월1일부터 입주까지	

※ 뜻과 불심의 행을 신천하는 가정에 삼보의 자비가 충만하소서!
※ 빠른 시일안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미리 접수바랍니다.

□ 문의안내 : 합천법륜사 (0543)955-1379
마산법륜사포교당 (0551)21-8775

※ 계좌번호 : 우체국 610097-0119059(김상봉)
※ 대구은행계좌 : 208-08-024746(손동분)

법 륜 사 주지 김운봉 총무스님 손자혜 총무 정병진 합장

한형조

무문관 탐방

5

화두

세존(世尊)께서 영산(靈山)의 법상에 오르시니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아무 말씀도 않고 꽃잎 하나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자 다들 의아하게 좌우를 둘러보는데 오직 한 사람, 가섭(迦葉)존자만이 조용히 미소지었다.

염화미소는 선의 최초의 설법이다. 그런데 말을 통하지 않고 마음으로 전했고 미소로 받았다. 선은 언어와 논리를 통한 적극적(positive) 교설의 방식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꺼린다. 그 이유야 별반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불교는 초기의 가르침에서 아비달마, 특히 대승의 공관(空觀)과 유식을 통해 언어에 대한 우려(lingua-phobia)를 주조로 해 왔다. 언어를 통해 언어를 지우고자 하는 역설의 노력이 그래서 불교를 둘러싸고 있다. 진실은 유마의 위대한 침묵 속에 있다! 그것을 기술하려는 어떤 시도도 과녁을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의 독특성은 그같은 불이(不二)의 진실을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직접적 행동으로 구현해 나간데 있다.



언어를 통한 이론적 변증의 한계와 위험을 깊이 자각한 선은 그 대안으로 독창적 수련의 방식을 마련했다. 다름 아닌 공안의 체계가 그것이다. 공안이란 공문서란 뜻으로, 표준이면서 권위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자신의 공부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안도(?)할 것이다. 선은 이 안도를 가로막고 나선다. 눈 앞에 보이는 세계, 상식이 짜놓은 지식에 매몰되어 있는 한 구원은 없다! 청원유신(靑原惟信)의 제2구처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것이다.

화두는 일차적으로 충격의 장치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선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조주무자의 경우는 비교적 점잖은 편에 속한다. 때로는 모순되는 언설을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며, 때로는 전혀 불가능한 비현실적 사건을 현실로 제시하고 해답을 요구하기도 한다.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느끼겠지만 그 장치는 실로 다종다양하다. 학인은 이런 황당무계와 속수무책을 해결하고 문제 밖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생사의 언덕에서 헤매다가 다음 생의 윤회를 기다려야 한다.

조주는 단호하게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불교적 교리의 틀 안에서는 해결될 전망이 없다. 틀을 벗어나면 그럭저럭 이론적 해결은 하겠지만 존재의 변혁은 꿈꿀 수 없다. 긍정하든 부정하든 우리는 어제의 그 누더기 그대로인 것이다. 길은 논리와 사유와 상상력이라는 일상적 정신활동의 통로를 봉쇄해야 열린다. 혜개는 말

사유 통로 봉쇄 "밖으로 나와 봐라"

조사관문 뚫는 충격장치…막다른 골목서 큰길 만나

용어는 지나치게 근엄하다. 거기에는 선이 불교의 주변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해나가야 했던 역사의 흔적이 묻어 있다. 그래서 나는 화두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좋지 않은가. 그냥 '이야기,' 그 덤덤하고 밋밋한 단어는 선의 이념인 일상의 무공용(無功用)과 무기특(無奇特)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화두는 이야기이다. 좀 더 한정하자면 깨달음의 기연이 된 특별한 이야기이다. 이것이 선의 수련을 위한 방편으로 학인에게 제시되었다. 후기 선은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선의 비밀에 접근할 수 없다고 극언한다. 그래서 무문은 "선을 공부하자면 조사가 세워놓은 관문을 뚫어야 한다(參禪須透祖師關)"고 서두를 열고 있다. 그럼 이 관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무문의 자상하고 친절한 지시(指示)도 준비가 없는 초심자에게는 막막한 권유같아 보인다.

학인은 조주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불교교리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은 이 질문의 의미를 알 것이다. 초기 불교는 여자나 일천제(一闡提)에게 성불을 유보했는데, 대승은 공즉시색(空卽是色), 색즉시공(色卽是空)이라 유정(有情) 무정(無情)에 관계 없이 불성(佛性)은 편재한다고 선언했다. 사정이 그렇다면 학인의 질문에 합당한 대답은 "아무렴, 불성이 있지"여야 한다. 그 대답에 학인은 했다. "깨달음을 얻자면 모든 생각의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妙悟要窮心路絶)." 아직 생각을 굴리거나 이로(理路)를 더듬고 있다면, 즉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화살은 이미 서역 저편으로 가버리고 몸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리하여 학인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어졌다. 이 캄캄한 절벽, 어두운 칠통을 어떻게 타파해나갈 것인가. 의식적 모색의 길이 막힌 에너지는 압축되면서 무의식의 심층으로 내려간다. 수직으로 내려가는 에너지는 집중의 강도에 비례하고 표면적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마음이 산란하고 분산되어 있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전신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지속적으로 파지하면 의식과 욕망에 의해 분리된 에너지가 점점 무의식에서 통합되어 나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촛불에 불이 켜지듯 "안과 밖이 하나로 합쳐지는(自然內外打成一片)" 순간이 온다. 그것은 자연스럽지만 존재의 대전회를 알리는 경천동지(驚天動地)이다. 혜개는 그 경험을 "마른 하늘에 벼락이 때리고 대지의 초목군생이 화들짝 놀랄" 만큼 급격한 존재의 카타스트로피라고 증언했다. 그 경험의 본질이 어떤 것이고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적절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흡사 "벙어리가 꾼 꿈과 같은"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삼처전심

法數로 배우는 불교

〈15〉

부처님 가섭에게 마음으로 법 전달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분을 꼽으라면 마하 가섭존자를 빼놓을 수 없다. 가섭존자는 평생 남이 입다 버린 옷만 주어 입었을 만큼 탐욕이 없었으므로 두타제일의 제자로 이름이 높았고 나중에 부처님이 입멸하신 후에는 경전을 결집하는데 책임을 졌을 만큼 영향이 컸다. 〈잡아함경〉에는 가섭존자가 죽지 않고 신통력으로 계족산에 있는 비위를 쪼갠후 그 속에 들어가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오실때까지 선정에 들어 있는 중이라고 말할 만큼 수행력도 대단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중국 선종에서는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비밀하신 마음법문을 이어받은 유일한 제자라고 추앙한다. 바로 그 유명한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함)의 주인공인 것이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근본경전에는 나와있지 않고 중국 선종에서 후에 지어냈다는 〈불설 범천왕문결의경〉이라는 경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에게 세번에 걸쳐 말씀으로써 하신 법문이 아닌 부처님 마음 그 자체를 비밀되게 따로히 전해 주었다고 한다. 이것을 말씀 밖에 따로 전했다고 해서 교외별전(敎外別傳), 혹은 기존적 가르침의 틀을 벗어나 마음으로 직접 전했다고 해서 격외선전(格外禪傳)이라고도 한다. 그 세번중 첫번째가 영산회상에서이다. 영산은 중인도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 동북쪽에 위치한 산이다. 어느날 부처님께서는 이 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다. 그때 하늘 세계의 범천왕이 금빛연꽃을 하나 꺾어서 부처님께 바쳤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꽃을 들어 묵연히 설법을 듣던 대중들에게 보이셨다.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의 이와같은 행동에 어리둥절 하기만 했다. 오직 한사람 가섭만이 그 뜻을 알아채고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이에 부처님은 가섭을 향해 "여래에게 바른 법의 눈과 열반의 묘한 마음이 있으니 형상아닌 참모습이라. 미묘한 법문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니 교(敎) 밖에 따로히 가섭 그대에게 부촉하노라"하셨다.

영산회상－연꽃들어 보임
다 자 탑－자리나눠 앉음
사라쌍수－관밖 두발보임



◇부처님은 가섭존자에게 관밖으로 두 발을 내보여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했다.

두번째는 다자탑에서다. 다자탑은 중인도 서쪽 비야리성에 있는 탑이다. 역시 부처님이 한때 이곳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때였다. 그때 가섭존자는 거지같은 모습으로 멀리서 수행하다가 늦게 법회에 참석하였다. 많은 대중이 이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가섭존자를 부르시더니 자신의 자리의 반을 내어 주시면서 함께 앉자고 하셨다. 이는 부처님의 마음과 가섭의 마음에 차별이 없음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였다. 마지막 세번째는 사라쌍수 아래서이다. 사라쌍수는 부처님이 입멸하신 북인도 쿠시나가라에 있는 나무를 가리킨다. 관속에 모셔진 부처님을 화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관을 옮기려고 했는데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었다. 경전에서는 상수제자인 가섭존자가 다른 지방에 멀리 있어서 부처님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기다리시느라고 신통력으로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늦게 돌아온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입멸을 애통해 했다. 한데 부처님의 두발이 가섭존자를 향해 관 밖으로 가지런히 나오는게 아닌가.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부처님의 육신은 멸해도 진리의 몸인 법신은 상주불멸한다. 그 상주불멸하는 법신을 가섭이 또 받은 것이다.

세번에 걸친 이러한 일로써 가섭존자는 선종의 맨처음 조사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식의 법문은 28대에 걸쳐 달마대사에까지 내려오게되었고 달마대사는 다시 중국에 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선종도 물론 여기서 기인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⑭

불교와 수학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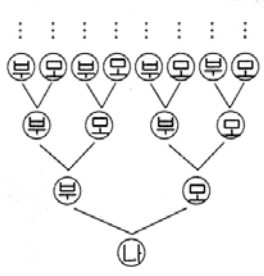
大數와 緣起

김 용 운

무량한 인연 모여 '나' 탄생

멱수셈으로 緣起세계 풀이





〈표〉

지난 주 본란에서 불교 경전에 엄청나게 큰 수, 아승기겁(阿僧祇劫), 항하사(恒河沙), 무량대수(無量大數) 등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불교는 분명히 수학은 아닌데 왜 이처럼 엄청난 수를 다루게 되었을까?

그것은 불교의 기본적 사고방식이 '연기(緣起)'에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나'의 존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여러 얽히고 설킨 인연(緣起)이 있다.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입장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아도 엄청난 수가 필요함을 금방 알 것이다.

실제로 나를 태어나게 한 조상의 수를 어림으로 계산해 보자. 우선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의 부모에게는 각각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며 또 그 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가 계신다. 이렇게 40대(代)만 거슬러 올라가도

2^{40}=1,099,511,627,776

1조995억1천162만7천776명이나 된다.

잠깐 〈표〉를 보자. 1대를 평균 30년으로 생각한다면 불과 1200년 전(前)의 일이다.

40대전 1,099,511,627,736(약 1200년 전)
30대전 1,073,741,824(약 900년 전)
20대전 1,048,576(약 600년 전)
⋮
5대전 16
4대전 8
3대전 4
2대전 2
나

이와 같이 한 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급속히 그 수가 증가하는데 이것을 '멱수의 마력'이라 한다. 가장 계산하기 쉬운 수 체계는 일, 십, 백, 천,… 이라는 식으로 한 단위가 10개씩 모아질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10진법이다. 10진법은 곱셈에서는 0만 붙이면 되므로 계산하기가 쉽다.

10을 중심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0+10=20(덧셈)
(2) 10×10=100(곱셈)
(3) 10^{10}=10000000000(멱수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을 두고 계산하는데도 덧셈, 곱셈, 지수셈 등의 계산법이 있으며 계산법에 따라서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연기의 입장에서 하는 계산법은 위의 3가지 계산법 중에서 마지막 멱수법이다.

가령 하나의 현상이 10개의 요인에 얽혀 나타나고, 또한 저마다의 요인에 대해서 각각 10개의 요인이 있다면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그 연기의 요소를 두 단계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10\times10\times10\times10\times10\times10\times10\times10\times10\times10=10^{10}$

10^{10}=10,0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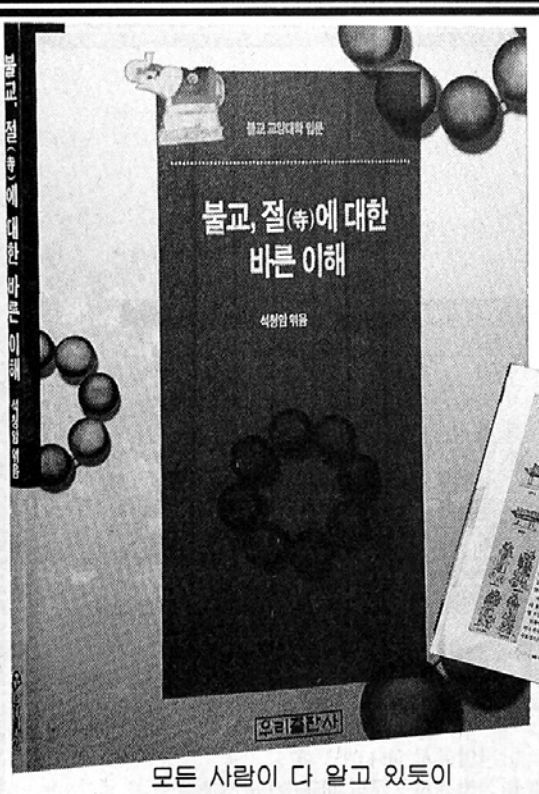
즉 100억의 요인이 있다.

〈법화경〉의 '중지용출품'에서는 6만 항하사라는, 갠지스 강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수라는 비유가 나온다. 이런 엄청난 수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몇대 전의 인연과 나를 중심에 두고 앞으로 전개될 인연의 수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한 삶을 탄생시키는데 얽힌 연기의 수가 어찌 10개뿐인가! 나의 탄생은 바로 이렇게 엄청난 인연의 수에 의한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엄청난 무한을 앞에 둘 때, 세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또 세계의 모양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따지게 된다.

불교철학은 한 대상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수를 등장시킨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교 교양대학 입문(교재)

불교, 절(寺)에 대한 바른 이해

청암스님께서 각 사암에 불교 교양대학을 개설 하시는 스님, 그리고 불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불자님께 쉽게 접할수 있도록 펴낸 교재입니다.



96년 6월 17일 초판 발행 현재 6차 출판

- 이 교재는 각 사암에서 주 1~2회로 3, 4, 5, 6개월 코스로 강의 할 수 있는 불교 교재 입니다.
- 이 교재는 불교를 알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아주 쉽게 불문에 귀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교재는 불교 예법부터 불교건축물, 기초교리 반야심경 강의 까지 손수 그림과 함께 강의한 것입니다.
- 이 교재는 청암스님께서 직접 95개의 건물, 불상까지 자세히 편집되어 있습니다.
- 이 교재로 혹 사암 스님께서 강의 하신다면 교재겸 필기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페이지마다 메모 할수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 교재는 스님이 강의 하지 않아도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법보시 용으로 구입 하셔도 됩니다.
- 이 교재는 전국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이 교재가 한권이라도 필요하여 주문하시면 즉시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만약 다량으로(50권) 주문 하시면 택배로 신속히 보내드리며 권당 1,200원을 할인합니다.
- 청암스님께서 이 책의 작은 이익금은 금하선원 어린불자들을 부처님께 참배 시키는데에 쓰신답니다.
- 많은 스님께 합장 하옵니다.

저희 청암스님의 땀 흘리는 모습은 비오는날 연잎에 티 없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정가 :6,200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배우는 것은 물건을 옮기는 것이요
지혜로 터득하는 것은 유무를 옮기는 것이라.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도
그를 행하지 않으면 이 책은 무용지물이라
- 서문중에서 -

주문 문의 전화 : (02)445 - 3261 FAX : (02)445-3267 대한불교 조계종 금하선원 총무부

시방세계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예초 여행사
안국동로터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대자연은 법당…생활이 禪이죠"



산문밖의 선객 10년째 안거 前 이화여대교수 이남덕 씨

73년 인도 전정각산 순례때 온몸 진동
"사는 동안 할 일은 마음정화 뿐이예요"

"상추씨 뿌리며 불성을 느껴요"
"산도 정들면 존재의미 커져요"

햇살이 눈을 아리게 하는 봄날, 포천의 거처로 그를 찾아갔을 때 사람보다 먼저 풍경이 맞아주었다. 백목련과 자목련, 노란 개나리, 만개한 벚나무의 낙화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오른다. 온통 봄빛이 분분하다. 죽엽산 봉우리를 배경으로 들어선 아담한 한옥, 앞으로는 동에서 서로 등줄기를 뻗친 산자락이 감싸고 있다.

경기도 포천 죽엽산 자락. 이남덕교수(전 이화여대 · 78)는 상추와 쑥갓 씨앗을 심고 있었다. 캐어보다도 작은 씨앗을 이랑에 심으며, 불성을 느낀다고 했다.

"이 작은 씨앗이 우주를 품고 있어요."

오래 전 관응스님이 주신 말씀으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聖人無己 고로 無所不근라, 성인은 몸이 없으므로 자기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지요. 씨앗을 심으며 그 말을 되새깁니다."

재가자로서 안거를 빼놓지 않는 수행인. 88년 청화스님과의 만남 이후 매년 안거를 거르지 않았으니 올해로 10안거(하안거 동안거를 마쳐야 1안거로 친다) 성만을 앞두고 있다.

청화스님과의 만남. 가슴이 조여들고 마음이 소연해지려고 할 때 뜻도 모른 채 '반야심경'을 외우면 신기할 정도로 그 증세가 맞는 것에 만족했던 그를 일대 변화시킨 만남이었다.

"딱 뵈니까 법력을 안 느낄 수 없었어요. 인도 성지순례에서 느꼈던 진동을 다시 경험했어요. 제자부부를 따라 뵙른 태안사에서 그해 예정에도 없이 하안거 결제를 태안사 정중당에서 났지요."

그때 물꼭 아들내외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띄웠다.

"내게는 금생에 꼭 해결해야 할 구도의 숙제가 있고, 지금 여기가 그 숙제를 풀기 위한 가장 적당한 시기, 적당한 장소임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결정한 느낌이 없지 않으나, 무슨 일이든 때가 있고 인연이 있는 법, 나로서는 필연적인 동기를 가진 행동이니 너희는 이해하기 바란다."

청화스님과의 첫 대면의 순간을 73년 인도성지 순례 때의 감동으로 대신 설명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기 전에 처음 깨달으신 전정각산(前正覺山)에서 였다.

"갑자기 등 전체로 진동이 솟구쳐 올라오며 온 전신에 환희의 물결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전율이라는 표현은 그 강도를 나타내는 데는 적당하나 상당한 시간 몸을 가누기 어렵도록 지속되었기 때문에 진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행인가. 노수행자의 대답은 간단하다. 중도(中道)를 얻기 위함이다. "우리가 무도(無道)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시비(是非)와 증애(憎愛)의 극과 극에 떨어져서 중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옳다 그르다' 하는 흑백의 논리로 상대방을 몰아부치는 사고의 유치성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마음의 정화(淨化)에 힘쓰라고 당부한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정화, 그 뿐이예요. 이 순간에 진리의 무량공덕생명이 내 생명과 하나라는 믿음 속에 참선이든, 염불이든, 기도든, 중생봉사행이든 무슨 방법으로든지 마음의 정화를 심화시키는 일, 그 일만이 중요한 일이지요."

따라서 그는 특정한 수행법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진리에 대한 흠모와 갈앙심(渴仰心)의 정서가 풍부한 사람, 특히 여성들은 염불성이 낫다"고 말한다. 물론 우리 전통선의 수승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두를 10년 들고 앉았어도 기쁜 마음이 없으면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죽엽산 얘기를 꺼낸다. 광릉수목원 건너편 임업시험장이 있는 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목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다.

"산도 사람과 같아서, 낯설고 별 상관없이 지내다가 어떤 계기에 정이 들게 되면 그 존재가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는가 싶어요. 나뭇가지 위로 날아가는 태고의 바람소리, 그것은 아마도 나의 전생과 이어지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 솔바람 소리에 흠려 산 많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닐까."

산은 그의 법당이다. 아침 저녁으로 올라 해 뜨고 지는 것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그의 예불시간이다.

"죽엽산 산속에서 소리높이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며 살다가 어느날 대중과 함께 화선하다 좌복위에서 생을 마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신심명〉의 한 구절을 들려준다. 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즉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통연히 명백하리라.

글: 정성운 사진: 고영배 기자

약력
- 1920년 충남 아산 生.
- 이화여전 문과를 거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조선어문 전공) 졸업.
- 동아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국문과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86년 정년퇴임.
- 현재는 포천 죽엽산 아래에서 대자연과 벗하며 구도와 기원으로 정진하고 있다.

나의 참선고백 '아미타불' 염송…일흔여덟살 새출발

동안거 해제날을 앞두고 갑사 대자암 선방에서는 정영 큰스님을 모시고 엷이튿날 자녁 참선시간에 자자회(自恣會)가 있었다. 나는 여기 시방당(十方堂) 선방에서 네번째 안거를 마치는 셈인데 큰스님 모시고 하는 자자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자회란 안거 석달 동안에 겪은 각자의 참선공부, 기타 자기심성의 현주소를 반성 점검하여 대중앞에 공개보고하는 모임이다.)

내 차례가 되었다. 간결하게 요점만 분명히 말하고 싶었으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환희심이 솟구치는 속에 입정으로 직결되면 나는 다른 이들이 화두를 들듯이 '아미타불' 하나로 집결시킨다. 이것은 내나름의 '염불선' 방식이다.

청화큰스님은 그 스승이신 금타화상의 〈보리방관문〉을 우리들에게 설해 주셨는데, 참선 첫머리에 이 관법으로 인도되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함을 금할 수 없다.

"마음은 허공과 같을새 한조각 구름이나 한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생각하고…."

〈보리방관문〉으로 인도된 나의 참선공부는 이제는 처음 한줄 '마음은 허공과 같을새'만 생각해도 우주전체의 생명을 느끼게 된다.

그날 밤 정영스님은 내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다. "지복의 정서에만 잠겨있지 않도록."

깨달음의 체험을 향해서 힘을 모으라는 가르침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아직 나는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老人不修(노인불수) 破戒不行(파계불행)인가, 아니다. 78세의 새출발이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 신선한 자연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 하지만 생활은 또 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 · 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 면역 피부 미용 비누를 사용하세요.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 · 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천방재료추출물 (오이지,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신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 · 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첨단의 생명공학 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발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2-1522(直) 02)737-8881(代)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계신품(誡愼品) ②

戒定慧解 계정혜해
是當善惟 시당선유
都已離垢 도이리구
無碍除有 무화제유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
이를 마땅히 잘 생각해서
모든 허물 여의어 버리면
재앙도 없고 없앨 것도 없으리라

著解則度 착해즉도
餘不復生 여불부생
越諸魔界 월제마계
如日淸明 여일청명

집착에서 풀리면 그게 곧 제도라
다시는 생겨날게 남지 않으니
온갖 마구니 경계 벗어나서
해맑게 빛나는 태양 같으리라

狂惑自恣 광혹자자
已常外避 이상외피
戒定慧行 계정혜행
求滿勿離 구만물리

날 숨 들 숨따라
온갖 사유작용을 놓지지 않고 갖추어 살피며
처음부터 끝까지 날카롭게 통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편안하리라

是則疾出世間 시즉소세간
如雲解月現 여운해월현
起止學思惟 기지학사유
坐臥不廢忘 좌와불폐망

이는 곧 시공을 비춤이라
마치 구름 헤치고 달이 나타나듯
일어나거나 그치거나 앉거나 눕거나
생각하고 배우기에 잊어지지 않네

比丘立是念 비구립시념
前利後則勝 전리후즉승
始得終必勝 시득종필승
逝不覩生死 서불도생사

비구가 이런 생각 바로세우면
처음도 이롭고 나중도 수승하리니
처음에 얻으면 마침내 승리하여
맹세코 생사에서 벗어나리라

"달이 구름헤치고 나타나 시공 비추듯 항상 한마음이면 번뇌·갈애 벗어나"

미친듯 미혹하고 스스로 방자함을
항상 멀리 피해버리고
계율 선정 지혜의
원만키를 구하되 여의지 않도록 하라

持戒淸淨 지계청정
心不自恣 심불자자
正智已解 정지이해
不覩邪師 불도사부

계율지킴이 청정하고
마음이 절로 방자하지 않으면
바른 지혜 이미 깨달은 것
삿된 망념따위 보이지 않게된다

是住吉處 시왕길처
爲無上道 위무상도
亦捨非道 역사비도
離諸魔界 이제마계

이것이 좋은 곳으로 가는것
위없는 도를 행함이니
그른 길을 버리게되니
온갖 악마경계는 사라진다

유념품(惟念品) ①

出息入息念 출식입식념
具滿諸思惟 구만제사유
從初竟通利 종초경통리
安如佛所說 안여불소설

若見身所住 약견신소주
六更以爲最 육경이위최
比丘常一心 비구상일심
便自知泥洹 변자지니원

혹 이 몸 머무는 곳 보려하면
육근을 제일로 삼는다
비구가 항상 한마음이면
스스로 열반 경계를 알게되리라

已有是諸念 이제시제념
自身常健行 자신상건행
若其不如是 약기불여시
終不得意行 종부득의행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스스로 항상 굳세게 행하나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끝내 마음 공부길을 얻지 못한다

是隨本行者 시수본행자
如是度愛勞 여시도애로
若能悟意念 약능오의념
知解一心樂 지해일심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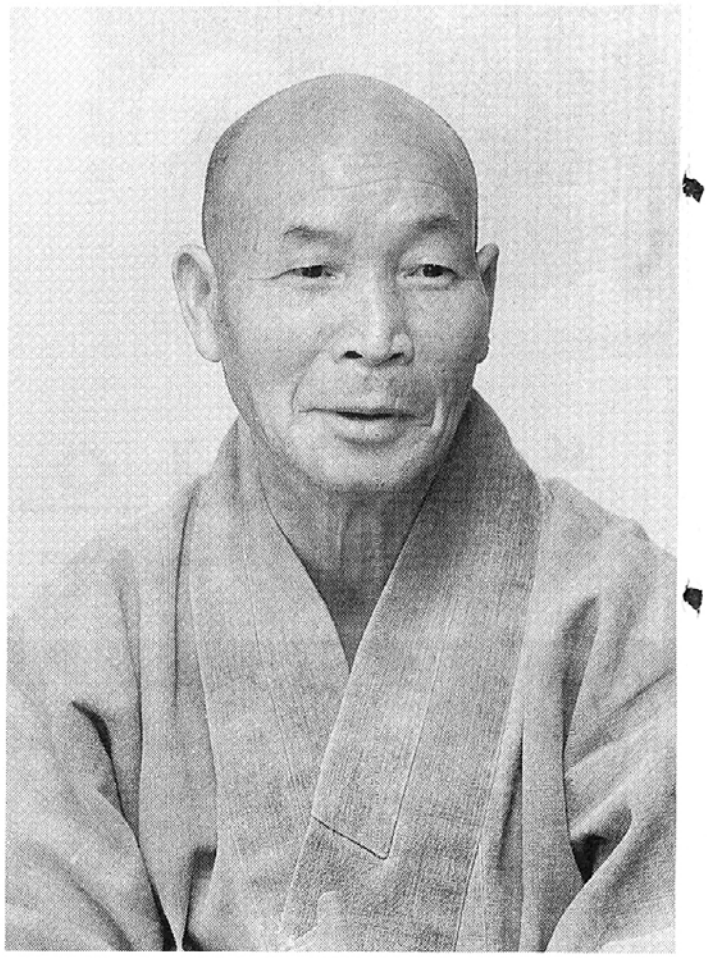
이 근본의 수행법을 따르는 이
그리하여 갈애 번뇌를 벗어나리니
만약 공부하는 마음에서 깨닫게 되면
한마음의 열락을 알게 되리라

龍眼

큰 스님 수행 한담

"사는게 苦라고요?

활안스님 〈천자암 조실〉



"행복하려면 밝아야 합니다 마음도 보고 듣는 것도 밝으면 시비할것이 없습니다"

풀 한포기, 벌레 한 마리도 그 생명은 존귀합니다. 모든 생명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지자연의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밑받침을 가지고 있고 그 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천지자연의 근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각자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을 탓하고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시 한 생명으로 일체중생의 만복이 이뤄지는 것이고, 흠처가 있으면 보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가 흠처라면 자신을 버리면 되는 것이구요.

사실 나는 평범한 유년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13살 되던 해 속가 부친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후 20일만에 어머니도 세상을 뜨셨습니다. 나 역시 무슨 병인지 몸이 풍풍 붓는 바람에 사느냐 죽느냐 할 정도로 시급한 때가 있었습니다. 소피를 먹으면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장터에 소피를 구하러 다니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먹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일체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여동안 온갖 생활고를 겪으면서, 어린 소견에도 천지성현에게 책임을 추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16살 되던 해 함경도 성진의 어느 군수공장에 취직해 4년간 일하다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혜와 학문을 갖추어 내 인생을 바꾸어 보리라고 결심하고는 20살 되던해 월정사로 발심출가했습니다. 외숙모에 이끌려 간 절에서 석달동안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바로 이 길이 내가 가야할 길이라는 환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22살 때 월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33살때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을 때까지 기도와 참선에 정진했습니다.

사는게 고(苦)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생각 돌려보면 그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말할것도 없이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고 싶다고 모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마음으로 바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행복하려면 밝아야 합니다. 마음도 밝아야 하고, 보고 듣는 것도 밝아야 합니다. 밝으면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탓으로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밝기 위해서는 견성대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견성대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지혜입니다. 자신이 못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자리인 마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노력하게 되고, 노력이 뒤따르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못이룰 것이 없습니다.

견성도 본인 마음이 정한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불성현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노력은 지혜를 얻게 하고, 자연법의 이치를 터득하게 합니다. 선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대우주 자연생명의 이치를 바로보고자 함입니다. 생활철학이 명확하면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선(禪)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출가한 이후 오로지 참선수행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흔히들 선이라고 하면 밤나무에다 대나무를 접(接)하는 것처럼 매우 추상적이며 비(非)세간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은 결코 추상적인 것도 비세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선은 참마저 무너지고 우주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이를 위한 노력이 선의 시작인 것입니다. 선의 시작이 이럴진대 어떻게 선이 추상적이고 비세간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선가에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은 언어나 문자,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의식이나 사상으로 여여하게 표현하려고 해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음은 예나 지금이나 불멸의 원칙입니다. 여기 하나의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물건의 핵심과 경지는 아무리 타인에게 가르치려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느끼고 터득해 자신의 의식과 사상으로 실천하고 체험하는데서 비로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느끼고 맛보는 것밖에 달리 선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사는 이치는 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되고자 마음을 정하면 얼마든지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일에 마음을 정하고 머무르지 않고 실천한다면 거기에 선이 있고, 도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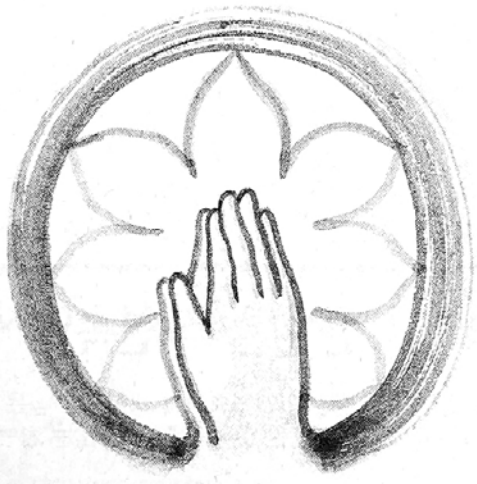
나는 비구계를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선수행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참문, 참방을 했습니다. 상원사 청량선원,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40안거를 지내고 구산, 전강, 금오, 향곡스님 문하에서 참선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재미있었던 일도 느낀 것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인천에서 한철 안거를 마쳤

약력
- 1926년 전남 담양 生
- 1953년 월산스님 은사로 득도
- 1958년 자운스님 계사로 비구계
- 수지 이후 상원사 청량선원,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제방선원에서 40안거 성만
- 現 송광사 천자암에서 주석 정진

"禪은 세상사는 이치와 같습니다 마음자리 결정하고 일념으로 노력하면 스스로 느끼고 맛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⑫⓪

누군들 보시할 형편이 못된다고 하랴.



"마음을 기울여 일체를 내 몸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 같이 생각하며 내 자리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어찌 내 생명 내 것은 아깝고 남의 생명 남의 것은 아깝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이요 진정한 보시이다.

남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다해도 탐탁치 않은 생각, 찌푸린 얼굴로 주었다면 곧 마음에 찌푸림이 있었으니 공덕이 되질 못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하고 물질로 보시한다해도 나의 이익이나 복을 바라고 했다면 그것은 홍부의 보시가 아니라 놀부의 보시이니 공덕이 될 수 없다."

하나를 심어 열을 거두고 열을 심어 백을 거두고 백을 심어 천을 거두는게 보시의 공덕이다. 그러나 참다운 보시에는 그런 계산이 없다. 무주상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상에 대해 의식하는 바가 없다. 보시물에 대한 집착도 없다.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도 없다. 보시를 했으니 과보가 따르리라는 기대도 없다. 있다면 오직 내 몸 내 아픔 같이 생각하는 자비의 마음이 있을 뿐이다.

저 홍부같은 마음이다.

자연은 중생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하나를 심어 열을 수확하게 해주고 중생이 살아 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길러준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로지 아낌 없이 주고 있을 뿐이다. 완벽한 무주상인 것이다. 그렇게 산 같이, 물 같이, 바람같이, 태양같이 주는 것이 보살의 마음자리요 진정한 보시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 보시를 한다.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묶여서하고 보시의 내용물에도 집착한다. 이름을 써서 '내가 했노라' 확인하고 싶어한다. 보시를 했으니 조만간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은연 중에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보시의 대가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부추기는 일도 벌어진다. 놀부식 보시를 권장하는 것이다.

남들은 때 맞춰서 보시를 잘도 하는데 나는 재물이 없어서 보시하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나 핑계이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보시할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설사 째지게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물 한그릇, 풀 한포기 없다고 할 사람은 없다.

다만 입은 옷 한 벌 뿐이라해도 옷깃을 찢어 남의 상처를 싸매줄 능력은 있다.

또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 남이 보시하는 것을 거들어 주고 남이 보시하는 것을 기뻐해 줄 힘은 있지 않겠는가. 부처님 재세시에 난타라는 노파가 동냥한 돈으로 등 하나를 밝혔다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교훈도 있다. 동냥할 기운만 있으면 보시할 힘이 있다.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보시할 힘이 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재벌이라도 보시하지 못한다. 놀부보시 말고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보시다. 용서하는 마음도 보시다. 스승을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도 보시요 하심·겸양도 보시다. 모임의 화합을 위해 애씀도 보시요 부드러운 말도 보시다.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하는 것도 보시행이요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일도 훌륭한 보시이다.

굶주리는 이를 보고 내 한끼의 식사를 아껴서 도와주는 것도 보시다.

장애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을 묻는 이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는 것도 보시행이다.

경전의 가르침 한 구절을 일러 주는 것, 단 한 부의 포교문건이라도 전해 주는 것 그 또한 훌륭한 보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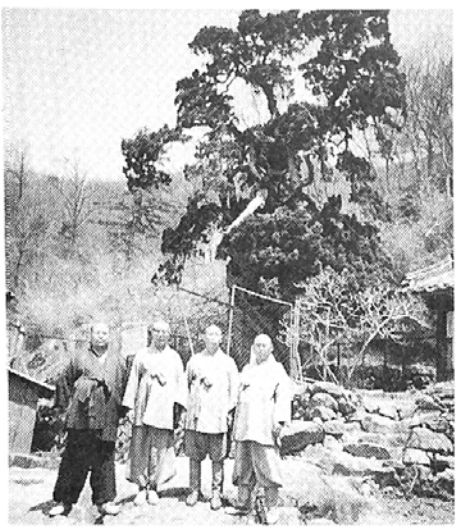
몸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 보시할 재물이 없음을 탓하지 말라.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은 직접 보시하는 것과 같다(인과경)고 했다. 자비심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백천생에 칠보가 구족하다(지장경)고 했다.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어찌 보시할 게 없다고 하랴. 몸보시 마음 보시 법 보시가 있음에야… .

협찬 : 민수기 · 김명숙

큰 스님 수행한담

한생각 돌려보세요"

"겉으로 고상한척 하는 지도자들
용맹 부족하여 뇌물에 혹하니
국운이 강해질리 없습니다"



◇보조국사 지눌의 제자 담당국사가 쓰던 지팡이를 꽂아 큰 나무가 되었다는 쌍향수(雙香樹) 앞에서 84년 도반스님들과 함께한 활안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

자기계산에 속지 않는것이 마음공부 시작

"문턱 두고 생활하면 아상만 높아집니다"

을 때 어느 스님의 '무간지옥에 대해 일러보라'는 질문을 받고 '대우주 용광로에 눈 한점 떨어진 것과 같다'고 답했더니 그 스님이 '불에 타서 죽으려고 하느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전에는 한철 날때마다 질문을 던지고 정답을 제시하면 선지식으로 인정하곤 했습니다. 무간지옥이 눈 한점의 터럭과 같다고 한 내 대답이 신통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전남 광양 백운산에서 4년간 참선수행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36살때 일이지요. 그때는 참선수행을 하면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손수 마련하곤 했습니다. 어느날인가 해가 넘어간줄도 모르고 논에서 일을 하다가 낫으로 손을 베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방에 들어와 촛불을 켜보니 방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더군요. 손을 동여매고 부엌에 들어가 찬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자니 쓸쓸한 마음이 낙엽 날리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척이나 되는 여래신이 나타나 자신의 오른팔로 베개를 삼아 나를 뉘이고는 내게 "과거의 제불, 오늘의 제불도 너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미래의 제불도 너와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허기진 차에 밥을 먹고나니 잠시 졸았던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부처님께 삼배하고 도를 달라고 발원했습니다.

이곳에서 50살 되던 해부터 살았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처럼 선지식을 찾아 다니지는 못하지만 참선수행은 예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선과 기도로 살아왔으니 할 줄 아는게 없는 탓도 있지만 탐심이 일어나지 않으니 마음 가는대로 참선하는 것이 지금의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되는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준비를 하고 기도정근을 합니다. 잠이 래봐야 하루 3시간 정도 밖에는 안잡니다. 수행자는 터럭만큼의 안일함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수행자가 게으르면 늘 문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는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추상같이 하면서 본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깨달으면 부처요, 미혹하면 중생인데 출가한지 오래되고 나이 많다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수행자라 부르겠습니까. 스님이 문턱을 두고 생활하면 아상(我相)만 높아지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생사(生死)와 같아서 전후고저(前後高低)가 있을 수 없으니 어찌 수행에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출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세속을 사는 사람들도 세속법으로는 수행자인 셈이고, 따라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과정은 밝거나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성장과정은 변하지 않는 내 마음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자리를 결정하고 노력하면 생산지혜를 얻게 됩니다. 깨달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노력과 공로는 낭비되지 않고 목표에 밑거름이 됩니다. 연잎에 물방울 도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마음이 정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연천지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한생각이 자연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것은 나를 버리고 우주법계의 순리를 깨달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쓸 줄 알면 한 번 부딪친 것은 두 번 부딪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필요없게 됩니다. 결국 자기 계산에 속지 않는 것이 마음을 정하는 시작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요즘은 별로 충효(忠孝)를 강조하지 않는듯 합니다만 예전에는 교과서는 물론 어디엘 가도 충효를 강조하는 문구가 눈에 많이 띄였습니다. 충(忠)이란 본시 천지지혜를 말합니다. 천지지혜는 일을 처리하는 용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효(孝)는 생활질서를 말하며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을 한 번 봅시다. 온갖 추한 짓은 다하면서도 겉으로는 고상한척 '지도자입네'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다. 매일 앉아서 쓸데없는 망상으로 세월을 보내려 하지말고 간절한 원력으로 '이뭣고'를 참구하면 시간도, 공간도, 형상도, 음성도 모두 잊게 됩니다. 화두 일념이 흐르는 물과 같이 지속되면 천사탑만사탑이 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법입니다.

가고 오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뚱이를 지배하는 참주인공이 무엇입니까. 일념으로 뼈에 사무치고 오장육부를 찌르는 대의심으로 화두를 챙길것 같으면 자신도 모르게 공부가 무르익어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하루 한생각만 또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선 수행자에게 이르나니 생각생각에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간의 모든 것이 한마음을 좇아 생겨나니 미물을 생각하면 곧 미물이요, 축생을 생각하면 곧 축생이며, 부처의 마음을 내면 곧 부처인 것처럼 마음은 참으로 미묘한 것입니다. 한생각도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본고향에 도달하니 생각생각에 화두를 간절히 붙잡아야 합니다. 화두를 놓치는 순간 곧 한생각이 일어나니 한생각 일어남이 무명이요 업의 굴레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생각생각 일념으로 간절히 생멸미생전 시심마(生滅未生前 是甚麼·나고 죽는 이전의 나는 이 뭣고)를 놓치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수행하면서 늘 지고 있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부족하다싶은 것이 부처님 공부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년 1백일 폐관(閉關)정진에 들어갑니다. 천자암에 온지 2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수행자가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어찌 시간과 노력을 아끼겠습니까.

법거량을 하려고 찾아드는 제방의 수좌들에게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장님이 눈 뜬사람을 그리려면 그려지느냐 집어치워라." 그러면서도 화두 하나를 던져줍니다 "죽는게 옳은가 사는게 옳은가."

'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我)가 공(空)해야 바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면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도를 닦든지, 염불을 하든지 제불성현과 똑같이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경제등 시국이 어수선한데요

문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 한보사태까지 겹쳐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김미주·경남 창원시 신촌동〉

답 본래 우리는 공심 공체로서 같이 먹고 같이 쓰고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다, 내것이다를 고집하고 남을 몰라라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돈이라는 것도 누가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것이니까 나는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관리자로서 우리 모두를 위해 바르게 써야하겠지요. 그러나 그걸 어기고 공생 공용하는 도리를 무시하니까 제가 먹었으면 제가 싸야 하듯이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건 어느 개인에 국한된게 아니라 한 가정, 한 회사, 나아가서는 한 국가, 그리고 전 인류의 차원으로 넓혀서 생각할 수 있는 데 그 도리를 모르니까 개인은 개인끼리 집단은 집단끼리, 나라는 나라끼리 다투고 싸우게 되지요.

그러나 어디 혼자 사는 것이 있나요? 한 나라를 보아도 경제가 어렵고 적자가 난다고 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든지 재정을 빌려 오든지 해서 이를 메꾸고 살림을 꾸려가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우리들의 몸 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령 어느 부위에 기가 모자란다든가 영양이 좋지 않다고 하면 다른 부위에서 밀어주고, 얻어오고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요. 그와같이 우리들은 남이 아니라 모두 나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공심 공체로서 공용·공식·공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누굴보고 잘못한다고 하기 이전에 그 모습을 내 모습으로 보는 마음이 절대적입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이전에 내가 못했을때, 못났을때의 내 모습으로 보고 아픈 사람을 보면 내 아픔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참 모습입니다.

물론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오히려 편안합니다. 못나고 어렵고 또는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옛날의 내 모습으로 보고 내 아픔 내 어려움으로 본다면 그걸 보고 짜증내고 불쾌해하고 싫어하고 성내는 것보다 오히려 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때에 보태주고 하는것은 나 잘나서도, 내 이름 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결국은 나 편안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통달입니다.

그러나 세상인심이 각박하고 잘들 몰라서 그렇게 해보질 못했으니까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맛도 모르고 먹고싶은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세상 모든 일은 나를 공부시키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닥치는 경계마다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자리가 바로 불국정토가 되겠지요. 틀림없이 말입니다.

수련하면 초능력 생깁니까

문 얼마전에 '천국의 문'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을 집단자살로 몰고 갔습니다. 세상엔 무슨 신흥종교다, 무슨 능력자다 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또 수련을 통해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성인후·전북 김제시 용지면〉

답 신흥종교라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은 마구니지요. 죽어서 갈 곳이라고는 구렁이굴 밖에 없지요. 남을 속이고 착취해서 제 욕심이나 채우고 잘못 인도했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법을 만나고 바르게 공부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받고 나와서 불법 만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왜냐? 세상 만물이 다 불교 아닌게 없고 따라서 설법하지 않는게 없는데 내가 그걸 잘못보는게 탈이다. 그래서 불법 속에 살면서도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 했던 것입니다.

가령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하면 귀신은 있는 것입니다. 귀신 중에도 이런 귀신 저런 귀신 가지가지로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가지가지로 있게됩니다. 다 마음의 장난이지요.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니 구렁이속 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또 능력이라는 것도, 무슨 기도를 해서, 무슨 수련을 해서 쌓는다고 하는게 그게 한 줌의 능력이지 뭣이 대단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누구나 오신통을 하는 세상이라서 지구 반대편 일도 안방에 앉아서 듣고 보는 마당에 뭘 좀 안다, 남보다 육신 무예를 잘한다 하는 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이왕 공부해서 능력을 갖추려면 마음공부해서 우주를 내집마당 드나들듯 해야지요. 이 공부는 심성의 천체물리학이요 무엇이든 아니 미치는게 없는 광대무변한 공부입니다.

봉축현수막과 어깨띠 및 리본 대용 버튼도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법보시용 소책자

부처님의 생애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석가모니부처님의 감동적인 일대기를 인도 현지의 원색사진들과 함께 편집한 불교신행의 길잡이.



※ 국판(148×210㎜) 68면 1부당 1,500원
※ 500부 이상 주문시 뒷표지에 사찰명, 주소, 전화번호, 법회안내 등을 별도 인쇄해드립니다.
※ 봉축위원회가 제정한 E·I·P 규격에 입각하여 제작한 현수막은 하단에 법회일시와 사찰명을 기입해드리며, 서울 인근지역에는 별도의 설치비를 받고 설치도 해드립니다(4월 28일부터 5월 8일 사이).
※ 어깨띠는 1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별도인쇄의 부담이 있으므로 주문은 최소 10일 이전에 해주십시오.

가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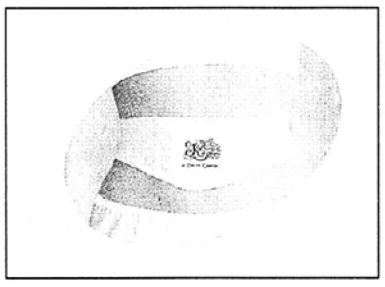
품 명	가 격	규 격
현수막(6m)	40,000원	600×90cm
현수막(8m)	50,000원	800×90cm
현수막(10m)	60,000원	1,000×90cm
봉축어깨띠	2,500원	10×180cm
봉축버튼(100개)	40,000원	직경 55㎜
부처님의 생애(책)	1,500원	국판 68면(원색)

문의처: 포교사업팀
서울(02) 718-4625~9
(02) 719-7115~6
광주(062) 228-5114
대구(053) 744-0032
원주(0371) 763-8575, 0857
불교방송 (02)705-5305~7
불교부산방송 (051)644-5114
불교광주방송 (062)520-1114
불교대구방송 (053)427-5114
불교청주방송 (0431)211-2090
제작/열린불교 (02)739-0108
전화문의 주시는 사찰에는 견본 1부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괴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져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로 2~3년전부터 방광염과 불면증이 생기면서 기미가 끼기 시작했어요.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하루는 언니가 한약재 성분인 "향비"를 써보라 했습니다. 착용하는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 불면증이 없어지고 기미도 얕아지고 혈색도 잘 도는 것 같아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약 9개월이 되었는데 끈기있게 사용하고 있고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고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심하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회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인간계 그림

금륜 외곽을 삼엄하게 둘러선 철위산과 니민달라산 사이의 바다는 다른 일곱바다보다 크고 넓다.

그 큰 바다의 동남북서에 걸쳐 서로 쉽사리 건너오고 갈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인간계들이 그 큰 바다 위에 떠있는 큰 땅 위에서 마치 그곳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강한 집착의 뿌리를 내린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5억년전의 진흙이 큰 비의 홍수로 떠내려가다가 바위가 된 곳이 그들이 살고있는 이 세상인 것이다. 하지만 그따위 5억년이란 1겁이라는 시간, 80겁이라는 시간 앞에서 무슨 티끌이란 말인가.

찰나라는 그 순간은 극미(極微 · 4225분의 1초)이지만 이런 극미에 대한 무한대로서의 겁이 있으므로 그런 시간과 함께 무한대의 공간이 있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겁을 반석(盤石)의 겁이라고도 말하거니와 그것은 그 어마어마한 너럭바위는 한 변(邊)이 1유순-7km-이나 된다.

바로 그런 바위에 백년만에 한번씩 천인(天人)이 춤추러 내려와서 그 천의(天衣) 한 자락을 바위에 스치게 한다.

그렇게 얇은 옷자락으로 굳센 바위가 닳기 시작하여 마침내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질 때가 곧 1겁인 것이다.

도무지 인간계의 수학으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대상이어서 다만 범어리의 입이 찍 벌어질 따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간계는 그런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지극히 그들 자신의 한계가 이어지는 것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 축생과 미물들이야말로 그 가운데는 하루살이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못한 반나절짜리 일생, 태어나자마자 죽는 일생도 엄마든지 있다.

하루살이에게 잠자리가 내일쯤 만나자 했더니 '쳇, 내일이 어디 있어'라고 핀잔을 주었다.

그런 핀잔을 받은 잠자리가 참새를 만나 한번 만나자 했더니 참새는 요즘 바쁘니 내년에나 만나자 했다. '쳇, 내년이 어디 있어'라는 잡자리의 핀잔을 듣고 참새는 짹! 소리도 그만 두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80여세를 이 세상의 교사로 살다 열반에 들었고 그의 첫머리 제자 가섭은 그보다 더 많이 살기는 했으나 대개의 인간은 50에서 60이 장수였다. 그래서 동양 동북부에서는 인생 70은 예로부터 지극히 드문 일이라 해서 그런 장수는 큰 축복을 받기까지 한다.

이같은 인간계라는 삶과 죽음이 지루한 줄도 모르고 태고 이래 이어지며 되풀이되는 것이 이 세상의 처음도 끝도 없음을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아직 참된 진리 드러내지 않음이여
(未窮眞實)

인간계란 그렇게 진리가 아직 오지 않은 곳이며 그렇게 진리가 와서 인간의 탐욕과 망상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큰 바다는 바람 부는 날 마음껏 출렁거리는 파도로 일하고 있다. 아마도 바다까지도 그렇게 해서 정진하는 사실을 그 누군가가 짐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4곳의 인간계 중에서
조용한 날 없는 섬부주는
실상이 허상임을 깨닫게 하는 도량

인간계에 걸쳐진 바다는 다른 바다들과 달리 단수가 아닌 염수이다.

인간계의 남쪽 섬부주는 10만의 작은 나라까지 크고 작은 여러 나라가 강성해서 그곳의 왕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운명도 움직이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강대국의 통치자가 콧털 하나 뽑아 심심풀이로 훅 불어버리면 바로 그 이웃에 옹기종기 속해있는 작은 나라의 왕들은 에취! 에취! 하고 마구 재채기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을이었다.

섬부주야말로 바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계로 북쪽 인간계보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떨어지지만 바로 이런 괴로움의 땅인 섬부주에서 여러 부처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기도 하다.

이 세계에는 염부-잠부-나무, 혹은 섬부나무라는 교목(喬木)이 있는데 이 열대의 나무는 4~5월 무렵 화려한 꽃을 피우고 진한 보라빛 열매를 맺는다.

그런 나무로서 세계의 이름이 된 것도 매우 풍류적인 격조가 없지 않다.

해가 섬부주에 내리쬐며 섬부주를 멀리하는 동안 어느덧 서쪽우화주가 나타난다.

그곳 인간의 신장은 섬부주 인간의 4배가 크다. 수명 5백세. 워낙 큰 사람들이라 황소나 암소를 화폐의 단위로 삼는 그런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북쪽 구로주의 인간은 섬부주 인간의 8배나 된다. 수명 1천세. 미인이 많은 곳이다.

이런 곳이야말로 섬부주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가를 반영하거나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바로 인간이 인간만의 크기 이상을 지향하는 꿈은 이미 그런 다른 종류의 인간 현실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한 체험과 다를 바 없다. 꿈과 현실, 상상의 미래와 과거의 현실이 이렇게 한통속일 줄이야 섬부주의 큰비 직전에 이어지는 개미의 행렬인들 모를리 없지 않겠는가.



"언제 내가 옷입고 태어났나"
땀을 많이 흘리는 우녀는
부끄러웠지만 나체생활을 시작했다

동쪽의 승신주는 인간의 신장 2배 이상인데 평균수명 250세. 땅 모양은 반달과 같다. 사람들의 성격은 지극히 온순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없다.

이에 비하면 섬부주는 전설과 파괴, 광화와 전쟁이 되풀이되며 항상 조용한 날이 없다. 우화주는 원통(圓筒) 모양의 대륙, 구로주는 자연과 물질이 풍부한 낙원인데 1천년 뒤에는 어디론가 옮기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 네 곳의 인간계는 거의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섬부주의 한 점 조선땅 무욕도에 남겨진 우녀는 그런 인간계의 여러 곳을 그의 회복되는 지혜로 하나하나 잠작하게 됨으로써 그가 사는 섬부주 이외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그것은 우녀의 신령스러운 선험과 예시의 능력이 돌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니와 섬부주의 한 고독한 삶에 대해서도 다른 인간계의 지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시들어버린 나무 뒤에서 용의 울음소리가 나오는가(枯木鳴卿)

그런데 우녀는 그런 네 곳의 인간계만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섬부주 부근의 바다 속에 아귀계가 있어 그곳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아귀 중생들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굶주림의 극한까지도 알게 되었다.

아니, 그런 아귀계가 바로 섬부주로부터 아주 먼 곳에 있지 않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섬부주 인간계의 아귀적인 요소를 뜻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귀란 먹을 것이 없는 세계이며 동시에 지혜에의 극빈까지도 아우르고 있는지 모른다.

아귀 33종류! 그 온갖 아귀중생의 실상을 그 어떤 중생도 어떤 보살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이 없다. 놀랍게도 무욕도에서 한때 가장 배타적인 신심과 치열한 구도심으로 공부에만 열중했던 사람인 수원이 바로 아귀계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다.

어느 상현달이 일찍 보이지 않게 된 깜깜한 밤의 명상 가운데 하나의 망상이 들어왔는데 그 망상 속에는 바로 수원이 아귀계 중생이 되어 그의 키는 무려 5킬로미터나 되는데 머리 꼭대기는 구름 속에 나와 고개를 사방으로 젖히는 광경이 들어있었다. '식토(食土)'라는 아귀가 되어 다른 중생이 먹은 것을 그 과식증으로 토해낸 더러운 음식인 구토물을 구름 위에서 뒤지고 있는데 끝내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생전에 저 혼자만 맛있는 것을 독점해서 처자와 이웃에게 주지 않은 죄업으로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먼저 부처가 되겠다고 다른 동료와 도반들을 무시하고 혼자서만 공부에 탐착한 죄업이기도 한 것일까.

아귀계에 대해서는 좀더 얘기할 것이 있거니와 섬부주 바로 밑의 금륜 수륜의 지하에 층층으로 만들어진 지옥계이말로 처절한 암흑세계이며 극단적인 세계이다.

이것이 바로 섬부주의 인간이 한발만 내려디디면 들어갈 수 있는 지옥의 첫걸음을 그 바탕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아슬아슬한 사실도 인간과 지옥이 얼마나 그 동질성을 가진 이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지옥이 저기 있다고 말하지 말라
지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
지옥이란 바로 그대 마음 속
가득한 그림인 것을
왜 모르랴
왜 모르랴

우녀에게서 이런 노래가 입을 심심파적으로 열자 흘러나왔다. 그 자신의 노래인지 그 누구의 노래가 그의 입을 빌려서 나왔는지 모른 채.

그는 아무도 없는 무욕도에서 한참 여름을 맞고 있었다. 지난 날과 달리 땀을 많이 흘리는 터라 날마다 뜯에 젖은 빨래를 하기 싫어서 차라리 온몸을 다 벗어버린 채 아무도 오지 않는 섬 한 구석에서 나체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주저되지 않는 바 아니었다. 파도에도 거북했고 갈매기들한테도 부끄러웠다. 더구나 그의 바위굴 속에 들어가면 한참 뒤 땀이 들어가며 굴안의 시원한 고요 가운데서도 여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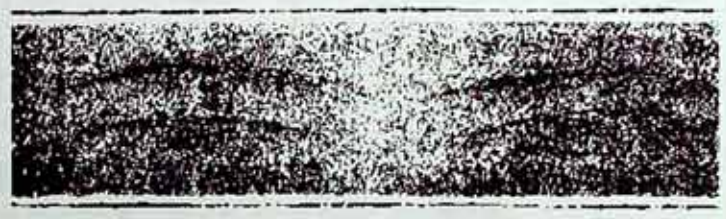
그러나 언제 내가 옷 입고 태어난 세상이던가
한 오리 실날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핏덩이로
응애!
응애!
응애!

그림 · 조향숙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 마이트레야의 노래



"길 떠나는 자에게 용기와 지혜 있으라"



혜문스님 지음

'현대인에게 미륵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큰 물음을 던지면서, 불교의 깊은 정신세계와 그 철학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고 있는 이 책은 정신과 물질세계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물질과 마음에 대한 순수이해의 문을 열어 새로운 차원의 정신세계로 이끌어준다. 추상적인 이론이나 교리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불교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길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현대인이 생활 속에서도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수행지침서이기도 하다.

★신국판/297쪽/지금 곧 서점에서 만나십시오

가람기획의 인문교양 스테디셀러

●신세조 108
고요함과 깨어 있는 삶을 위한 정신체조
수행서/혜원 스님 지음/신국판 292쪽

●한 권으로 보는 불교사 100장면
석가의 탄생에서 성철스님의 입적까지
임혜봉 지음/신국판 430쪽

●그래도 사람은 하늘이다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준열한 통찰!
이무영 편저/신국판 356쪽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전4권)
동서고전 200종을 갈이있게 해설한 본격 해제서/번역된 편저/신국판 500쪽 안팎

●한 권으로 보는 세계명작 111선
고전 감독 · 현대 문학작 111편 엄선 해설
가람기획 편집부엮음/신국판 432쪽

●한 권으로 보는 한국명작 111선
우리 소설 명작 111편의 내용과 작품 해설
김희보 지음/신국판 467쪽

가람기획
도서출판 가람기획
Tel. 815-1253
823-9105
Fax. 823-9106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봄이 오는 소리

大地를 적시는 빗방울 소리
가슴에 와 머문다
조그만 틈일 뿐에도
따뜻한 生命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한바탕 불어오던
겨울은 지나고
삼엄을 끝 녹아 내리는
힘찬한 여울 물소리

버들 가아지도 겨울잠 깨고
입맛을 터트리는 속삭임
상큼한 풀 내음
생기를 머금고
돌멩 따스한 온기가
大地를 모근하게 감싸며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노래하
며 아장은 춤을 추다
내 그리움
또한 그곳에 어우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현장 이자임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 (불교문화예술원 원장)의 생필(眞本)

玉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佛子任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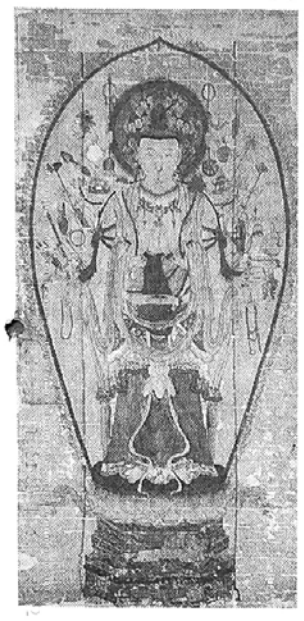
●선착순 한정본(품)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 · 242-0255

5월 문화 인물
초의스님

"茶향기로 세속 청정"

학술세미나·답사등 추모행사 다채



◇초의선사는 선사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조선후기 뛰어난 불화작가로도 평가되고 있다. 초의스님이 그린 '42수 천수관음도 (대흥사 소장).

한국 다도(茶道)의 중흥조로 불리는 초의선사(1786~1866)가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됨에 따라 초의선사를 기리고 그 업적을 선양하는 많은 기념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5월1일 조계사에서의 추모재로 시작되는 초의선사 관련행사는 특별기획전, 헌다례의식, 초의성상(聖像)봉안식, 전국차인큰잔치, 고궁차문화큰잔치 등 특별행사와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고 차의 효능을 살피는 학술발표회, 유적지답사 등의 행사가 한달내내 개최될 예정이다. 〈표 참조〉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는 5월1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초의선사 추모재를 봉행한다.

또한 3일부터 31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태평양박물관소장의 초의스님 영정을 비롯 〈동다송〉 〈다신전〉 등 저술 판본과 초의스님이 직접 그린 '천수관음도'등 불화, 친필 10폭 병풍, 행장자료, 초의관련 저서 논문, 차문화관련 전시품 등 2백여점을 전시한다.

한국차생활문화원은 5월18일 오후 1시부터 덕수궁에서 '고궁차문화큰잔치'를 열고 궁중전통차례의 고려연등의식행사를 재현한다. 열림굿과 풍물굿으로 시작되는 고궁차문화큰잔치는 고려궁중 복식·다구·의례·음악 등을 고찰해보는 학술강연과 고려연등의례 재현, 행다시연 차겨루기 대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차문화협회는 5월 9일 오전 11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차 학술발표회를 주관한다. 25일에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초의선사에 대한 헌다의례와 차만들기 시범, 차음식 만들기 경연대회, 행다례 발표회와 차그릇 및 녹차전시회, 녹차의 효능 및 제조과정 사진전 등도 연다.

한국차인연합회는 10일 세종문화회관대회의실에서 '초의 장의순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초의연구의 현황과 과제 △선승으로서의 초의 △초의의 예술세계 △다도 중흥조 초의 등 세미나를 갖는다. 또 16~18일에는 전국 차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의스님유적지답사를 떠난다.

초의문화재단은 5월11일 인사동 초의선원에 초의스님 헌다제와 함께 성상 봉안식을 거행한다.

무안군은 초의스님 탄생지인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유허비와 추모각 건립을 추진중이며 초의사상 학술세미나, 스님이 출가한 문흥사와 주석 수행했던 일지암 등 유적지 답사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초의스님 관련 인터넷 서비스는 'http://www.mocs.go.kr' 이다.

이경숙 기자

초의스님과 차 관련 5월행사

분류	행 사	일 시	장 소	주 최
추모행사	초의선사추모제	1일(11:00~)	조계사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02)921-5825
	초의선사 헌다제 및 성상봉안	11일(11:00~)	초의선원(인사동)	초의문화재단(02)732-2317
	초의선사 헌다례의식	17일(11:00~)	일지암	한국차인연합회(02)734-5866
	제17회 차의날 기념식	25일(10:30~)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한국차문화협회(02)701-0475
	제17회 차의날 기념식	25(13:00~18:00)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한국차인연합회(02)734-5866
특별기획	초의선사 특별기획전	3~31일	법련사 불일미술관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전통차 시연	17일(15:00~)	무안군 새마을회관	한국차문화협회
	고려연등의식다례재연	18일(13:00~)	덕수궁	한국차생활문화원(02)3672-3061
	전국차인큰잔치	25일(10:3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차문화협회
학술세미나	차(茶)학술발표회	9일(11:0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차문화협회
	초의 장의순의 종합적 고찰	10일(10:30~)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한국차인연합회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	11일(13:00~)	초의선원(인사동)	초의문화재단
	초의의 생애와 문화적 고찰	17일(13:00~)	무안군 새마을회관	무안군청(0636)450-5221
답사	차밭 견학	2~4일	보성 반야다원	불교전통문화원(02)732-2068
	초의유적지 답사	16~18일	무안~대흥사~칠불사	한국차인연합회
	차문화기행	17~18일	선암사·보성	터사랑(02)725-1284
	초의출가·유적지답사	23일	문흥사·일지암	무안군청
	불교문화테마여행	25일	대흥사·일지암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기타행사	보성다향제	9~10일	전남 보성	보성군청(0694)52-5924
	무료차시음회	11일(14:30~)	초의선원(인사동)	초의문화재단
	우리차 마시기 운동	11일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	한국차문화협회
	산신각 헌다	11일	수원 신흥사	한국차문화연구소(02)563-4583
	야생녹차축제	17~18일	경남 하동	하동군청(0595)83-9124
	차그릇 및 녹차전시회	25일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장	한국차문화협회
	차음식만들기 경연대회	25일(13:0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차문화협회

민족문화대학 개강

불교미술사·불화등 특강

한국불교문화원(대표 홍무흠)은 97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민족의 뿌리를 찾고 새로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만남의 장으로 '민족문화대학'을 마련했다.

오는 7월2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7시~9시) 자비의 전화 강의실(종로구 인사동 남양빌딩 4층)에서 진행되는 민족문화대학은 특강 '불교문화의 올바른 이해(홍무흠)'를 시작으로 △한국불교미술사(김영주) △한국 전통목판화의 발전과정(김영만) △불교 조형예술의 탐구-건축·탑(진철문) △탱화와 벽화의 이해(고영을) △전통불교문화-범패·영산재(법현스님) △불교시의 이해(진준섭) 등 불교문화 전반을 관련전문가가 강의한다.

(02)739-8430, 730-9216

화엄사 영산회상도등 40건 국가문화재 지정 예고

성보 37건 포함



화엄사 영산회상도(사진)등 불교문화재 37건을 비롯 40건이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엄사 영산회상도 등 불화 26건,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등 조각 3건, 해인사 대적광전 흥치4년명 동종 등 공예 2건,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전적 등 고문서 9건 총 40건의 중요자료를 23일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관보에 예고했다. '사전예고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되며, 30일간 고시한 후 이의가 없는 자료에 한해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최종 확정된다.

화엄사 영산회상도 등 불화류는 17~18세기에 해당하는 괘불 및 후불탱화로, 구도와 양식, 채색 등 도상적인 특징이 조선후기 양식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연대와 제작자, 시주자 등을 알 수 있어 불교회화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림사 목조사천왕상(1515년 제작)과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49년 제작)은 각종 자료를 통해 조성시기와 배경을 알 수 있어 당시의 양식적 특성을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더욱이 사천왕상의 경우는 아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바가 없어 관심을 끈다.

해인사 대적광전 흥치4년명 동종은 정확한 주조연대를 알 수 있는 조선초기의 대표적인 종으로 화려한 문양과 우수한 주조솜씨가 돋보인다.

전적·고문서류는 사경, 불경, 교지 등으로 서지학 및 인쇄사, 불교문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 가운데 광덕사소장 면역사패교지는 '사찰에 잡역을 경감하라'는 내용의 조선 세조의 친필과 수결을 담고 있어 조선불교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며, 사경 3종은 변상도와 함께 남아 있어 서지학은 물론 조선초 불화 연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초조본 아비달마대비파사론 권제172는 고려시대에 인출된 초조대장경판본이다.

윤기석 기자

호암미술관 금속유물전

"한국금속공예 우수성 보자"

금동미륵삼존불등 500점 전시 5월1~25일

빼어난 예술성과 우수한 기술수준을 보여주는 금속유물특별전이 5월1일부터 25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열린다. '호암미술관 소장 금속유물특별전'은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이 97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마련한 것.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평생동안 수집해온 김동현옹(86세)의 수집품 169건 398점을 중심으로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17건을 비롯한 220건 500여점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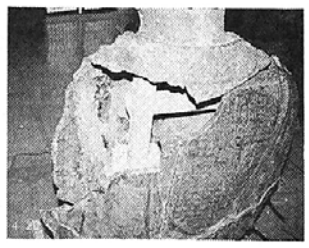
불교조각사의 백미로 꼽히는 신묘명 금동미륵삼존불(국보 85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국보118호) 등 삼국시대의 불상들은 섬세하고 우아한 선이 아름답다. 또 금동탑형사리기 등의 공예품들은 한국금속공예의 유구함과 우수성을 대표하며, 금동미륵보살반가상(보물 643호)과 함께 발견된 상아로 만든 사리기도 눈길을 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7월1일부터 자리를 용인 호암미술관으로 옮겨 8월31일까지 계속 전시될 예정이다.

삼화사 철불서 명문 발견

한문-이두문 혼용 신라불

"현존 4대철불에 버금"



강원 동해시 삼화사 철불(강원도 문화재자료112호)에서 불상을 조성한 뒤 그 내용을 기록한 불상조상기가 새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삼화사(주지 원행)에서 처음 공개된 명문은 지난 10일 상반신만 남아있던 철불을 복원하고자 봉합된 시멘트를 제거하던 중 발견됐다. 철불 등에 새겨져 있던 명문(사진)은 약 170여자 중 21자 정도가 결실되었으며 한문과 이두문 혼용으로 되어 있다.

황수영박사(성보보존위원회 고문)는 "원만한 상호에 명문의 존재까지 확인돼 명문이 남아 있는 보림사, 도피안사, 실상사, 장곡사 철불 등 현존하는 4대철불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종교수(관동대·이두 구결문 전공)는 "명문이 순수한 한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두와 혼용돼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불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불상의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전되어 오던 약사불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명문에 노사나불과 미륵의 존명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석〉

봉영사 불사 선서화전

봉영사(주지 철안) 대웅보전 중창불사를 위한 선서화 도예전이 5월 14일까지 봉영사 대웅보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청담 운허 벽암스님을 비롯 월하 석주 월운 일타 석정 수안 스님 등 원로 중진스님들과 김응현 김세룡 김규현 차대완씨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선화 서예, 도예작품 1백여점이 전시된다. 고승달사(高僧達士)의 청량하면서도 격조높은 법향의 세계를 가득 느껴볼 수 있는 기회이다.

(0346)571-0555

수덕사 연꽃사진전

최차열씨의 연꽃사진전이 5월 18일까지 예산 수덕사 성보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최차열씨가 국내외 연지를 돌며 촬영한 연꽃사진과 백두산 전경 등 사진 2백여점이 선보이고 있다. (0458)37-6565

김동환 가곡발표회

'반야심경' '청산은 나를 보고' '무상게송' 등 찬불가를 작곡한 김동환교수(중앙대 음대)의 화갑을 맞아 김동환 가곡작품 발표회 '내 마음의 노래'가 5월2일 저녁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문화소식

발표회에는 소프라노 최인애 양혜정, 바리톤 이재환 최현수, 국악인 김성녀 김성애 씨 등과 인천시립합창단이 나와 '사랑아' '그리움' '보리피리' '삼세가 둘아닌 노래' '산' 등 22곡을 연주한다.

불교사진연합회展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전이 5월6일부터 14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다. 이번 사진전에는 관조영담 동욱 선암 스님 이승민 안장헌 이병윤씨 등의 사진작품 40여점과 지난 2540년 부처님오신날 행사사진 20여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02)725-6641

세계문화유산 표석설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석굴암과 불국사(제461호), 해인사팔만대장경 및 판전(제463호)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표석이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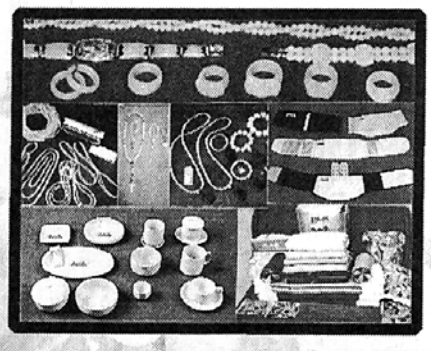
문화재관리국은 5월14일 세계문화유산의 의의와 배경, 해당 유산의 연혁과 가치 등을 국·영문으로 표기한 표석을 해당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종묘(제462호)의 표석은 이보다 앞서 5월3일 설치된다.

40회 밀양아랑제

밀양아랑제 집전위원회(회장 이재인)는 5월 3~6일 밀양시 전역에서 제40회 아랑제를 개최한다. 아랑제 행사중에 사명대사 평양성탈환 재현과 승장행렬이 포함돼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야제 행사로 2일밤 남천강변에서 진행되는 평양성탈환 재현은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와 승병들이 관군들과 평양성을 탈환하는 것을 3백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재현하고, 3일에는 승전보고를 알리는 승장행렬이 재현된다.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 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찻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장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잡혀 갑니다. (조금의 차이도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주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도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玉山家 옥만을 꼭찝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옥은 액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리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2000여 사람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고급 탑보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質의 경면주사인 사용하여 조상
규격 : (가로)63㎝×(세로) 160㎝

스님들께는 스님용책자내용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리니에서 계속적으로 방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연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리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발복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름없는 영가의 불명짓는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불탑다라니는 로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길게하는데 일조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들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등을 제시해드림으로서 다소나마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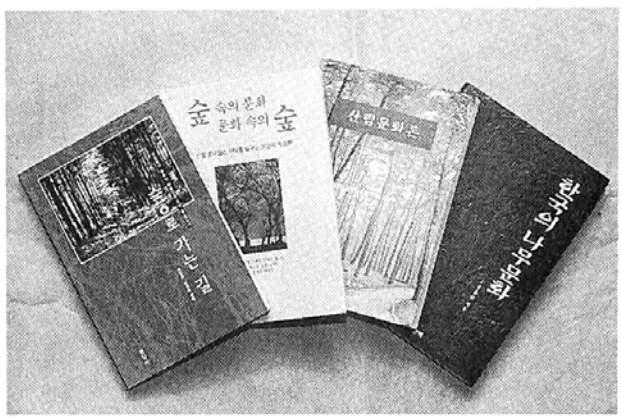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숲은 순수하고 맑은 세계"

◇최근 서점가에 선보이고 있는 숲 관련서들은 인류문화의 보고인 숲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있다.

'한국의 나무문화' '산림문화론' 등 숲 관련서 인기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 숲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숲'관련도서들이 최근 잇따라 출간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숲 속의 문화 문화 속의 숲〉〈산림문화론〉〈숲으로 가는길〉〈한국의 나무문화〉〈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무 백가지〉등이 그것.

이 책들은 단순한 실용서적의 단계를 초월해 숲을 문화로 확장시키고 숲과 종교의 상관성도 조명하고 있는 등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를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숲 속의 문화 문화 속의 숲〉(열화당)은 국내외 산림전문가를 비롯 철학자, 민속학자, 시인, 언론인 등 14명의 산림에 대한 진지한 견해를 담고 있다. 특히 이책은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는 산림과 철학을 연결하는 역사적 단초가 된다며 불교와 숲의 관계를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고타마 싯달타의 출가는 바로 산림으로의 입산(入山)을 의미하며 사바에서는 이룰 수 없었을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 할 수 있었다는 것. 고타마 싯달타가 다른 곳이 아닌 산림속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부처를 이뤘던 것은 인간자신을 깨닫는 과정에서 산림의 가치가 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부처님 출가 산림과 철학 연결
입산은 '자연속 깨달음' 의미

자연 산림이 사람을 가장 순수한 자연상태로 이끌어 간다는 점과 그 산림의 자연력으로 해서 수행자가 가장 심오한 명상세계로 진입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이래 수많은 수행자들이 산속으로 들어간 것과 중국과 한국, 일본의 사찰들이 산중에 자리한 것은 산림의 자연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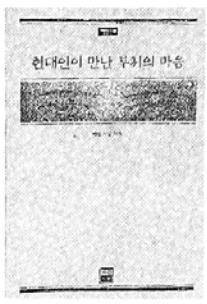
전영우교수(국민대)가 쓴 〈산림문화론〉(국민대출판부)은 산림문화 전반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있다. 전교수는 '상징속에 나타난 나무와 숲' 부분을 통해 불교와 숲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다. 석가모니는 사라수 나무밑에서 태어나고 열반에 들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도에서는 오늘날까지 사라수 나무를 생명의 나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인도에 있어 보리수나무는 브라만과 동일시 되며 석가모니는 바로 그 나무아래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보리수나무는 지혜의 나무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하고 있다. 전교수는 "단순히 생산적, 환경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숲은 인간 삶의 원천이 되고 있는 만큼, 숲을 이해하고 보호하는데 모든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밖에 〈숲으로 가는길〉(현암사)은 우리 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숲을 답사기 형식으로 꾸며 숲을 찾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한국의 나무문화〉(문예산책)는 민속, 풍습, 설화, 전설속에 나타나는 나무이야기를 통해 선인들의 삶을 흥미롭게 조명하고 있다. 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무 백가지〉(현암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아주 오래전에 이땅에 들어와 그 정서까지 한국화 한 우리 나무 1백가지를 선정해 칼라사진과 함께 알기쉽게 풀이해 자연과 문화의 보고인 숲에 대한 인식의 장을 넓히고 있다.

이은자 기자

깨달음 향한 실천 수행방법 제시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원 지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본래 부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어리석음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지혜와 사랑을 완성하고 참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궁극적 목표와 그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에세이 형식의 불교입문서인 이 책에서 지은이 혜원스님은 텅 빔의 세계(공사상), 차별 없음의 세계(중도실상), 평등의 세계(절대평등사상), 인연따라 생겨난 세계(인연생기), 나 없음의 세계(무아), 마음이 지어낸 세계(유심조)등 깨달음을 위한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깨달음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수행방법으로 좌선수행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방법도 자상하게 안내해 준다. 한국참선체조구도회에서 선체조 수련과 법회를 열고 있는 혜원스님이 집필했다. 〈가람기획 7천5백원〉

사회가 불안할 땐 명상책 '불티'

'마음을 열어주는…' 50만부 판매
'마음다스리는 법' 출간 3주만에 4만부



최근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불황과 한보비리등 각종 사건에 대한 허탈한 심정을 달래려드는 듯 각종 명상서, 지혜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이레)〉가 지난해 10월 출간 이래 50여만부가 판매됐다. 또 쇼펜하우어, 타고르 등 동 서양 성현들의 우화를 간추린 〈배꼽(장원)〉 둘째 마당도 출간 넉달만에 30만부가 팔렸다.

불교의 명상수행법인 위빠싸나의 개념과 수행방법을 정리한 〈마음다스리는 법(둥지)〉은 출간되자 마자 인기를 몰아가고 있다. 〈마음 다스리는 법〉은 불안과 무력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평화의 지름길을 안내하며 출간 3주 만에 4만부가 판매됐다. 법정스님의 에세이 〈무소유(범우사)〉도 다시 베스트셀러에 진입했고, 프랑스 작가 생떽쥐베리의 명상소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움직이는 책)〉도 13만부나 팔렸다.

이러한 명상서의 열기는 혼란한 사회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현대인의 '지혜찾기'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20대 독자들이 찾고 있다고 서점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와제의책

방방곡곡 암자 찾아 떠나는 구도기

암자로 가는 길 정찬주 지음



오늘날 대부분의 고찰들이 관광지로 세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깊은 산중에 오롯이 앉아 수도처로서의 청정함을 지켜가고 있는 암자.

〈암자로 가는 길〉은 수행자들의 구도처로서 불교의 정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암자를 찾아 떠나는 구도여행기다.

소설가 정찬주씨가 95년 11월 부터 96년말까지 암자를 직접 돌아다니며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이 책은 조계산 불일암, 지리산 상무주, 무등산 규봉암 등 우리나라 52곳의 암자에 대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광을 생생한 올 칼라사진으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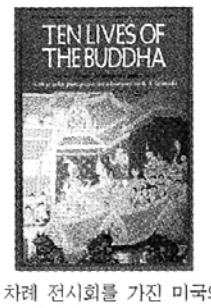
쌍봉사 다성암에서는 떨어지는 낙엽과 청량한 공기에 더욱 파란 생명력으로 성장하던 배춧잎을 통해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일' 라는 염불구절의 참뜻을 가슴으로 받아들였다는 저자의 종교적 감흥을 책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좋은날 9천5백원〉

해외출판

'부처님 십생담'

美 웨더힐社, 전생담중 10개 이야기 묶어



부처님 전생담을 새롭게 엮은 〈부처님 십생담〉(Ten Lives of the Buddha)이 출판됐다. C.로센필드(美)가 쓰고 웨더힐 출판사에서 출간한 〈부처님 십생담〉은 5백50개의 부처님 전생담 중 마지막 10개의 이야기를 묶은 것.

이 책의 저자 로센필드는 태국과 인도의 전래설화를 작품의 소재로 즐겨 선택하는 작가로 이번 책에는 E.웨레이가 직접 그린 32개의 삽화도 담겨있어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웨레이는 태국의 전통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차례 전시회를 가진 미국의 저명한 화가다.

구입처(www.wheatherhill.com), ISBN은 '0-8348-0374-7'이다.

불교도서 전시회

5월 15~21일 부산역

불서(佛書)를 통한 포교확대를 꾀하는 '불교도서전시회'가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부산역 1층 문화관에서 열린다.

부산불교신도회 주최 부산불교교육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현재 유통중인 국내의 불서와 시청각자료, 불교용품 8천여종을 주제별로 분류, 전시판매하게 된다.

(051)464-2020

새로나온 책

▲고요한 숲 속의 연못=명상참선 수행을 통해 대중교화에 앞장섰던 태국 아잔차스님의 법문을 모은 책. 아잔차스님의 미국인 제자인 잭 콘필드와 폴 브로이터씨가 엮은 이 책은 현재 인사동에서 위빠사나 명상센터를 운영중인 김열권씨가 번역했다. 〈고요한 소리 5천원〉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십수년간 일선에서 청소년을 포교해 온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조달현사무국장이 듣고 체험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모은 명언집. 부처님의 말씀과 여러 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깨우쳐 준다.



〈여래 5천원〉

▲중국고대사상의 세계=도서출판 살림이 펴낸 중국연구서 시리즈 중 하나. 공자, 묵자, 도가, 유가등 중국에서 출현한 사상의 종류와 이에따라 이어지는 중국지성사의 흐름을 설하고 있다.

〈살림 1만8천원〉

▲현대인을 위한 요가=요가의 이론과 철학체계, 수행방법과 효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요가입문서.

요가의 다양한 체위중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체위를 히말라야 현지 요가수행자의 사진을 통해 상세하게 지도해 준다. 광주대학교 사회체육과 장우인교수가 집필했다.

〈서평 7천5백원〉

▲팔공산 자락=경북지역의 남부지역인 팔공산 자락을 9개의 답사코스로 제시하고 있다.

추풍령 아래 옹골찬 사람들의 꿈을 담은 '김천, 성주'와 신라불교의 씨앗이 뿌려진 텃밭인 '구미(선산)', 영남인의 미소를 담은 고담스런 삼존석굴이 있는 '군위'와 갓바위로 오르는 발길과 염원을 담은 '팔공산'과 칠곡, 청도, 달성, 영천, 포항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준다.

〈돌베개 1만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마음 다스리는 법	김 정 빈	둥 지
4	그까짓 삶쯤있으면 어때	학 림	여시아문
5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 원	가람기획
6	살아있는 선	라즈니쉬	성 하
7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8	한글 아함경	고 익 진	동국대출판부
9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10	한국불교사	김 영 태	경 서 원

구입문의:(02)737-0695

石葉 哲牛 율사「四分律 (60책)」16권으로 번역, 완간!!

계율은 불법의 목숨입니다.

특히 사분율은 비구·비구니가 반드시 의지해야 할 부처님의 근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분율장 정신에서만이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룰 수 있으며, 부처님의 혜맥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오직 부처님의 바른 법이 온 누리에 두루 두루 빛나기를 발원하며, 石葉 哲牛 스님께서 지난 3년간 全 16권으로 번역, 완간하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고려대장경의 '四分律' 부분만 원본 그대로 인경하여 최고급 韓紙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1. 단행본

사분율 全 16권 (1질)

- 번역 : 石葉 哲牛 (영산율원 율원장)
- 판형 : 신국판
- 정가 : 80,000원 (1질)

2. 영인본 (韓紙)

四分律 12책 (1질)

- 해인사 고려대장경 영인
- 책크기 : 가로 30cm, 세로 40cm
- 정가 : 900,000원

⊙ 계율관련

1. 律藏全書 (全 55권, 2,000,000원)
2. 四分律 (고려대장경 영인본, 韓紙, 900,000원)
3. 四分律 (全 16권, 哲牛 역, 각권 5,000원)
4. 律藏研究 (平川 彰/박용길 역, 40,000원)
5. 韓國佛敎戒律思想硏究(I) (채인환, 50,000원)
6. 戒律學 논문집 (全 6권, 40,000원)
7. 沙彌律儀 (일타 편역/철우 역, 5,300원)
8. 沙彌尼律儀 (일타 편역/철우 역, 5,300원)
9. 四分比丘戒本 (운허 역, 4,500원)
10. 四分比丘尼戒本 (慈雲 역, 5,000원)
11. 戒律논문집 (中國, 근간)
12. 大愛道比丘尼經 (慈珉 역, 4,500원)
13. 菩薩戒目 (일타 역, 1,500원)
14. 梵網經菩薩心地戒品講義鈔案 (10,000원)
15. 삼귀의오계 수계의식 (4,000원)
16. 범망경보살계 포살본 (2,000원)
17. 보살계본사기 (원효/석성우 강의, 근간)
18. 사미율의 증주 (철우 강의, 근간)
19. 문수사리보살 최상승 무생계경 (도일 번역, 근간)
20. 도선율사 정심계관법 (지운 번역, 근간)
21. 250계의 연구 (平川 彰 저/혜능 역, 근간)
22. 뿌리 없는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 (지운 학술논문집, 근간)

⊙ 일반

1. 마음의 비밀 1 (星雲大師 법어집/依恩 역, 6,000원)
2. 마음의 비밀 2 (星雲大師 법어집/이인옥 역, 6,000원)
3. 상당법어 1 (석성우·김규대 엮음, 12,000원)
4. 상당법어 2 (석성우·김규대 엮음, 12,000원)
5. 영가천혼법어 (석성우·김규대 엮음, 15,000원)
6. 푸른 산울림 (哲牛 지음, 4,500원)
7. 맑은 바람 빈 뜰 스쳐가네 (哲牛 지음, 4,500원)
8. 마음의 향기 (석성우 지음, 4,000원)
9. 태교 (석성우 지음, 6,000원)
10. 태양처럼 솟아나소서 (석성우 지음, 4,000원)
11. 茶와 禪 (석성우 지음, 7,500원)
12. 열반사상 (석성우 엮음, 근간)
13. 반야사상 (석성우 엮음, 근간)
14. 대원지장점찰선악업보경 (4,000원)
15. 一百五十讚佛頌 (운허 역, 1,500원)
16. 地藏菩薩本願經 (한자, 5,000원)
17. 地藏經 (한글, 5,000원)
18. 장수멸죄경 (묘찬 역, 4,000원)
19. 지장보살寫佛 (2,000원)
20. 아가마 (김규대 엮음, 8,000원)
21. 깨끗해 텅 빈 마음 밝기가 대낮같네 (김규대 엮음, 3,500원)
22. 길흉화복은 이름에 달려 있다 (조영암, 5,700원)
23. 禪詩송서 1 (조영암, 15,000원)
24. 극락세계유람기 (4,500원)
25. 흰 연꽃 피는 소리 (구본일, 4,000원)

⊙ 土房詩選

1. 꿈꾸는 黃砂 (전병희, 2,500원)
2. 갈 수 있을까 (脫 후반기 동인, 2,500원)
3. 四行詩 三百首 (박희진, 5,700원)
4. 하늘아래 작은집 (이상범, 2,500원)
5. 마음비워 좋은날 (석성우, 2,500원)
6. 고요를 쓸며 (최성국, 2,800원)
7. 무한대의 사분음표 (김충호, 2,500원)
8. 통영별곡 (이국민, 3,500원)
9. 이상한 섬 (김영희, 3,000원)
10. 고요詩法 (이상범, 3,500원)
11. 하늘 맑은 날 (석성우, 3,500원)
12. 行間의 바람 (김영희, 3,500원)
13. 누군가 또 떨이 되는 밤 (홍석하, 4,000원)
14. 禪詩 (석성우, 4,000원)

⊙ 한국시조選

1. (김상옥, 근간)
2. 오동잎 그늘에 서서 (정완영, 3,000원)
3. 紫霞山舍 이후 (리태극, 3,500원)
4. 오두막집行 (이상범, 5,000원)
5. 襄仲孫 생각 (김종, 3,500원)
6. 아침 山行 (정재익, 3,500원)
7. 銀河의 가을소식 (박옥금, 3,500원)
8. 미리내 이야기 (김해석, 3,500원)
9. 달빛 배인 쑥물치마 (안을현, 3,500원)
10. 이문동 所見 (정신재, 3,500원)
11. 허리춤에 세월 차고 (김대현, 3,500원)
12. 가을꽃 여울 타고 (이정자, 4,000원)
13. 적막을 즙는 새 (김삼환, 4,000원)
14. 신문을 들고 (박희서, 4,000원)
15. 風蘭 (김기호, 30,000원)
16. 연등 들고 서는 바다 (장식환, 4,000원)

土房 서울 종로구 견지동 39-2 상운중심 401호 전화 : 722-4588 팩시밀리 : 722-4589

※ 도서출판 土房에서는 계율정신 고취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계율 관련 서적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중도사상 서구사회 처방전"

성철선사상硏 '선불교와 해체론시대…' 세미나


◇윤원철 교수


◇이승종 교수

윤원철 교수 "돈오돈수론 문화비평 접목가능"

이승종 교수 '나' 해체 '자아' 해방…禪과 비교

최근 철학·불교학계에서 선불교와 서구 해체철학의 유사성을 찾는 노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이 5월3일 연세대 인문관에서 '선불교와 해체론시대의 서구철학'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준비해 관심을 끈다.

'절대 이성'과 '자아 중심'을 강조해 진여(眞如)를 고정화했던 서구철학이 해체철학에 이르러 '이성'과 '나(我)'를 부정하고 '타자(他者)'로 관심을 옮겨 불교의 공(空) 연기론(緣起論) 등과 가까워졌다는게 학계의 지적. 따라서 이 세미나는 심리학 문화비평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선불교와 해체철학의 유사성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다. 미리 나온 두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과)는 '문화비평으로서의 돈오돈수론' 주제 발표에서 "깨침이라는 순수한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는 이른이라 할지라도 당대의 사회와 생활풍토에 관한 담론이 은연 중에 남아있어 성철스님의 〈선문정로〉에 돈오돈수론도 문화비평의 신(新)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교수에 따르면 현대인의 세계관은 나와 남을 구별하는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반면 "망념(妄念)과 분별(分別)로 가득찬 대중을 위해 불교는 중도불이(中道不二) 사상을 통해 완전한 세계관을 가르쳤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교수는 "돈오돈수론은 분별심이 더욱 심화된 현대사회를 처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종교수(연세대 철학과)는 '동일자와 타자'에서 "서양의 전통철학은 '나'(我)를 지키기 위한 절대적 질서를 확립해 '타자'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자아만을 강조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수학·물리학·언어학 등에서 '차이성'을 발견한 서양철학은 '이성과 감각' '나와 타자'와 같은 분별심의 오류를 알게되는 계기가 됐고 '나'의 해체는 결국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얽매여 있는 '자아'를 해방해 서양철학이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서양철학의 중심이 자아(自我)에서 타자(他者)로 이동된 것은 선불교에서의 깨달음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교수는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규탁교수(연세대 철학과)가 '참실재의 자각과 지성활동의 왜곡' 박순영교수(연세대 철학과)가 '앎과 깨달음' 이광준씨(동서심리학연구소장)가 '선심리학과 해체철학' 김용정 명예교수(동국대)가 '선의 깨달음과 이성의 자각'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증욱 기자

진실한 믿음없이 현실 참여에만 급급한 서구불교의 성향을 경고한 백첼러교수(영국 살콤大)의 기고문 '믿음없는 불교'가 미국의 불교시사지 〈트리싸이클〉 봄호에 게재돼 주목을 끈다.

백첼러교수는 "서구불교가 개인·사회 문제에 개입하면서 세속적인 종교로 변질되고 수행불교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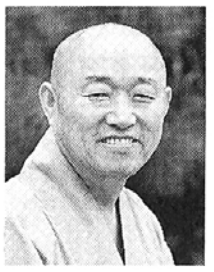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는 참된 수행과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진실한 믿음없이 여성·반핵·마약퇴치 등의 문제에만 매달리는 종교로 전락해 가는 서구불교의 모습은 기존 종교와의 대립속에서 생겨난 역기능"이라고 진단했다.

"믿음없는 서구불교"
英 백첼러교수 경고
트리싸이클誌 봄호 게재

백첼러교수는 "불교가 인간이 직면한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수행으로 얻은 깨침을 사회로 회향될 때 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나와 경전 5

범망경


성 우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어느 바람결에 구름 모일지, 어느 구름결에 비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중생들의 살림살이는 모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평소 그저 평범한 수행승으로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다. 특별나게 경전을 잘 알아서 강사도 아니고 참선을 골똘하게 하여 선사도 아니고 또 계율에 밝아서 율사도 아닌 그저 스님이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사미시절 불교전문강원에서 경전을 인연짓고 보니 부처님 말씀에 경 율 론 삼장이라고 배웠는데 강원이란 곳에서는 경만 가르치고 율을 가르치지 않아 그것도 한 번 보았으면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가야산 해인사를 찾아가 어느 스님께 이야기하여 율장을 보게 되었다.

그해 겨울, 율장을 배워야 하는데 책이 없으므로 백련암 성철스님의 장경각에 깊이 잠든 속장경 속의 율부를 빌려오게 되었다. 그것을 매일 베껴쓰는 일이 일과의 대부분이었다.

그때 〈범망경〉을 접하였다. 〈범망경〉은 대승불자로서 출가 재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지니고 지켜야 할 계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열가지 무거운 죄를 범하지 말라는 십중대계는 불교윤리의 대표적인 계율로서 보살대승의 대계를 밝히고 있다. 십중대계란 첫째 살생하지 말라, 둘째 주지 않는 것은 훔치지 말라, 셋째 음행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째 술을 마시거나 팔지 말라 등의 기본적인 오계와 함께 여섯째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일곱째 자기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라, 여덟째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아홉째 상대방의 참회를 성내지 말고 잘 받아주라, 열번째 불법승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등이다. 〈범망경〉에서는 이 십중대계야말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확실한 지표임을 설하고 있다. 출가·재가자의 구분을 떠나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금언이 아닐 수 없다.

흔히 계율을 지니면 살아가기 힘들고 우리네 생활을 얽맨다고 잘못 아는 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계율은 어두운 마음에서 밝은 마음으로 가는 좋은 사다리이다. 계율을 가지므로 불자가 되고 또 크나큰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범망경〉에도 '마음을 가진 일체 중생은 불계(佛戒)에 섭해 있으므로 계를 받은 중생은 부처의 지위에 들어가 대

출·재가 누구나 지켜야할 계목 수록
"계율은 어둠서 밝음 향하는 사다리"

의 갖추어진 이름은 〈불설범망경보살심지계품〉이다. 범망경을 일타스님께 강의 받았다. 그리고는 접어두었다. 그게 30여년전 일이다. 그런데 저지난해 해인강원 강주스님이 학인들을 위하여 특강을 해 달라기에 그저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날짜가 잡혔다고 다시 연락이 와서 큰일났다 싶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뒤적이던 중 우연찮게 〈범망경〉에 관한 좋은 자료를 발견하였다. 여지껏 우리나라 스님들이 〈범망경〉에 관하여 말씀이나 저술할 때 중국 스님네의 저서를 많이 의지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원효스님 〈범망경보살계본사기〉, 태현스님 〈범망경고적기〉, 의적스님 〈범망경계본소〉, 승장스님 〈범망경술기〉를 구하게 되어 그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태현스님의 〈범망경고적기〉는 대만, 홍콩, 중국에서는 단행본으로 나와 읽혀지고 있다.

〈범망경〉은 대승불자로서 출가 재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지니고 지켜야 할 계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열가지 무거운 죄를 범하지 말라는 십중대계는 불교윤리의 대표적인 계율로서 보살대승의 대계를 밝히고 있다. 십중대계란 첫째 살생하지 말라, 둘째 주지 않는 것은 훔치지 말라, 셋째 음행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째 술을 마시거나 팔지 말라 등의 기본적인 오계와 함께 여섯째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일곱째 자기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라, 여덟째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아홉째 상대방의 참회를 성내지 말고 잘 받아주라, 열번째 불법승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등이다. 〈범망경〉에서는 이 십중대계야말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확실한 지표임을 설하고 있다. 출가·재가자의 구분을 떠나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금언이 아닐 수 없다.

흔히 계율을 지니면 살아가기 힘들고 우리네 생활을 얽맨다고 잘못 아는 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계율은 어두운 마음에서 밝은 마음으로 가는 좋은 사다리이다. 계율을 가지므로 불자가 되고 또 크나큰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범망경〉에도 '마음을 가진 일체 중생은 불계(佛戒)에 섭해 있으므로 계를 받은 중생은 부처의 지위에 들어가 대

세계 20여 박물관 소장 불상·불화등 한눈 조망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아시아 미술'

'아시아 미술'(Asian Art)은 중국 영국 인도 네팔 등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불교미술품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네팔의 '무스탕 박물관' 티벳의 '조캉사원' 영국의 '국립박물관' 미국의 '바바라 미술관' 등 세계 20여 대형박물관에 소장된 불화·불상·티벳경전 표지 등의 불교미술품의 사진자료를 제공해 준다.

'아시아 미술' 사이트는 불교미술관련 학술논문도 제공한다. 이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논문에는 '티벳의 불화연구' '중국의 문화연구' '네팔의 불상 연구' '몽고의 불교미술 개관' '티벳의 불교의식 미술연구' 등 15편에 이른다.

이외에도 화랑 '삼발라 고대건축' '인디고 화랑' '히말라얀' 등과 같이 인터넷에 개설된 불교관련 화랑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동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미술'은 http://asianart.com/index.html 이다.

"김시습, 해동화엄전통 계승"

김지견박사 선무학술논집 6집에 발표



철학·의학·문학·무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禪)을 연구한 〈선무학술논집(6집)〉이 출간됐다.

'김시습(1435~1493)의 〈화엄석제〉의 주석적 연구'에서 김지견박사(전통불교연구원장)는 "김시습은 의상(625~702) 균여(923~973) 지눌(1158~1210)로 이어진 해동화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시습이 〈화엄석제〉에서 배휴(797~870)와 징관(788~838)의 저술을 인용한 것은 화엄의 성기(性起)와 선(禪)의 깨달음을 동일시했기 때문"이라며 "사유세계에서 화엄을 바라본 것은 의상·균여·지눌의 전통을 따른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최순택교수(원광대)의 '한국선서화 연구'는 신행(704~779) 김명국(1600~1662) 탄연(1070~1592) 초의(1786~1866) 경봉(1892~1982) 등 선사들의 시·오도송·그림·글씨를 집대성하고 현대 선승들의 선묵·선화의 특징과 양식이 2백여개의 선서화의 도판을 곁들여 체계적으로 연구됐다.

이 논집에는 이외에도 김철교수(원광대)의 '선무의 기초수련에 관한 연구' 오종근교수(동신대)의 '선과 시의 사적 고찰' 등 논문 11편이 수록됐다. 〈욱〉

학술단신

'원효片文蒐逸' 펴내

잃어버린 원효선사의 가르침을 국내외 대장경과 저술에서 찾아 묶은 자료집이 나왔다.

김상현교수(동국대)가 최근 발표한 '원효편문수일'(元曉片文蒐逸)은 韓·中·日의 대장경과 불교관련 저술 등에서 '원효운'(元曉云)으로 밝힌 총 53개 인용구를 모아서 정리했다.

인용구는 〈삼미륵경소〉(경흥) 〈법망경고적기〉(태현) 〈교분기원통초〉(균여) 〈원통선불론〉(지눌) 〈대방광불화엄경〉(징관) 등 40여권의 전적(典籍)에서 채록됐다.

'신라문화' 13호 발간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가 〈신라문화〉(제13호)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에서 '경주부' 전체 내용을 새롭게 역주하고 원문의 출전과 신라시대의 지리를 연구한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역주(譯註)'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이강래교수(전남대 사학과)의 '신라내기군고'(新羅奈己郡考) 조병종교수(우석대 사학과)의 '울진 봉평비(鳳坪碑)에 나타난 노인(奴人)의 성격 검토' 등을 수록했다.

"황룡사종 고려때 녹였다"

경주시가 황룡사대종 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황룡사종은 바다에 수장된 것이 아니라 고려때 녹여 없앴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이병호명예교수는 22일 "〈삼국유사〉 황룡사종 관계기사에 고려 숙종때 심한 균열을 보인 황룡사종을 녹여 일부를 화폐 만드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작은 종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마음 맑히는 책들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큰스님/법어/모음집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0쪽
값 7,000원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마음 맑히는 책들 ②

삶은 苦가 아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행/스님/법어집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값 6,000원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을 위한 경전 공부 ①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팔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가다가 산이 막히면 넘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망과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般若船)로 건너고 금강의 칼(金剛劍)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요 금강의 칼,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게이다.

— 본문 중에서 —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0695 (영업부), 737-0691(편집부) 팩스 : (02) 737-0696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좌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주·야·七一一·四三七〇 五四三·七三〇六
院長 張三沫 압구정역 전문시술원

간경화·정신질환·만성신장병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대체의학
0552-82-8128, 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사찰안내

10여년 정성으로 살아온 도량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합니다. 포교와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락처 011-279-4600

위 치 : 평택 대로변
서울에서 1시간이내
시장, 터미널, 주요관공서와 10분이내
평 수 : 57평
보증금 : 5000만원
시설비 : 1000만원(최고시설)
연락처 0333)665-6686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소재
- 건 평 : 750평(건평 108평, 법당 30평)
- 객실 10개, 보일러시설
- 신축 2년 6개월
- 해외이주로 파격적인 가격 - 1억 5천

연락처 0373)374-7417

포교당 안내

- 위 치 : 경주시 동방동 600번지
- 시 설 : 주택 30평, 창고 60평
  배나무 1500수, 자연녹지 5000평
- 가 격 : 평당 10만원
- 경주시에서 불국사방향 중간도로 접하고 있음

연락처 0561-745-7768
051-756-3301

위 치 : 부산 동상동 시장통 사거리
평 수 : 24평
보증금 : 1500만원 월세15만원
시설비 : 가격절충
연락처 051)531-0313
011-851-8224

학생모집

-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 종무 행정 : 상담심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
(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자,정역논리사, 종합생활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정과목 통학가능
3. 추후과정에서 일 3회~4회 강의

연락처 (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허가 도)
만대교학대학원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393-1
대 원 사
연락처 : 0331)262-0606

기타정보

천부경

81권의 화엄경을
81자의 천부경에

도서출판 바른믿음
☎ 597-2460
<법문 테잎도 나와있습니다>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중사 복진함
- 음성(심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법무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다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다경상
- 서울(학림사) 최관 불사, 그외 다수 시창

대진(전승)공예사
핸 드 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通真 I 합장

귀의 삼보하옵고
하얀만 도화지처럼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제작한 불교그림동화(완색) 「깨달음의 세계」 (6버라 밉)밉 단행본 「부처님일대기」가 재판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에 관한 출판 (소설, 시, 수필)밉 사찰에 필요한 행사 홍보물등을 의뢰하시면 성심 성의껏 기획·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원 TEL.(02)932-6327, 937-5759

모시고 싶습니다
청정한 계행으로 보살의 길 걷고 있는 불자님들과 함께 큰사업 펼치고 싶습니다.
◎ 명예·정년 퇴직하신 분
◎ 사업실패후 재기하실 분
◎ 인사·조직관리 경험있으신 분
※ 힌업에 종하시면서 부업으로도 하실 수 있는 사업
一日不作 一日不食의 精訓의 말씀 깊이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활하시는 40대이상 거사님 보살님들의 보람찬 일터임을 확신합니다.
청호물산(주) 사업본부
771-9957~8
본 부 장 보 문 합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분하게 되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 위 치 : 경남 거제시
◈ 대 지 : 약 800평
◈ 건 평 : 200평(허가)
◈ 매매가 : 약 8,000만원
◈ 바닷가 근처로서 전망이 매우 뛰어나며 벌장으로도 제격임
연락처 : 017-553-4080
BB : 012-501-1888

病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외룡산 응님선원
-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현대 산중 사람의 스님들을 위하여 혹일제(검은깨)와 강식초회에 10여종의 발아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밥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파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맑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미얀마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습니다. 부처님을 친견하는 희유한 인연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2일 용인 대원사에서 미얀마 종교성 부처님 진신사리 기증 및 친견법회 봉행

대한불교해동종(총무원장 송산스님)은 4월 12일(음 3.6) 용인 대원사에서 미얀마 종교성 부처님 진신사리 기증 및 친견법회를 해동종 종정 석봉큰스님과 종회의장 성타스님, 임원스님, 그리고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했습니다.

이날 대법회는 제1부 미얀마 종교성의 유각타자나 스님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종교성 직인이 있는 진골사리) 기증식과 제2부 친견법회로 진행되어 불자들에게 환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송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진신사리를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종정 석봉스님은 법어를 통해 "업의 장애를 벗어나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진신사리를 모시는 것도 수행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오늘 친견법회를 통해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불성을 찾아 성불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라고 설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을 가까이서 친견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충족이 아닌 불제자로서의 발심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소중한 인연으로 성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원력을 심어줍니다 부처님의 광대한 법력이 한국의 불자들과 이 땅을 불국정토로 장엄하게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을 친견함으로써 무한한 복덕을 얻고 발심의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친견문의 0331~262~0606)

환자를 도와 드립니다.

심장병, 안면기형, 안과(백내장 녹내장)

● 삶을 함께 나누는 사회
작은 정성일지라도 실천으로 옮겨질때 그 향기로 이웃을 감동시킬수 있습니다. 기쁜마음으로 행하는 헌혈이나 감로심장회 회원이 내는 회비가 고통속에 쓰러져 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불어사는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로심장회와 함께 사회봉사에 동참합시다.
나와 이웃이 삶을 함께 나누는 감로심장회를 통해 사회복지 증진의 꽃을 피웁시다.





- 심장병 수술
- 안면기형 수술
- 농어촌 순회 무료검진
- 장기기증 주선
- 심장병 예방 홍보 및 회지발간
- 안과(백내장·녹내장)수술
- 헌혈 지원

● 환자 접수 서류 ●
1. 종합병원 진단서
2. 주민등록 등본
3. 지방세 비과세 증명서
4. 전·월세 계약서 사본
5.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6. 환자 증명사진 2매
7. 의료보험 카드 사본

● 접수처 : 사단법인 감로심장회 사무국
주 소 : 경남 진주시 계동 55번지 진주불교회관(660-240) 전화 : (0591)747-0106 팩스 : (0591)747-0107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부처님 오신 날 특선 佛書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특선 佛書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신 판매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부처님 일대기
고타마 붓다의 생애/E.H. 브루스터/6,000원/시공사
보살은 누구인가/법회연구원/3,000원/정우서적
부처님의 생애/미야사까 유우소우/5,000원/불교시대사
부처님의 생애/박경훈/6,000원/불광
부처님의 생애/한정섭/8,000원/불교대학교교재
붇다(팔상록)/고성훈/7,000원/우리출판사
불타 석가모니/와다나베 쇼오꼬/4,000원/샘터
불타의 세계/김지견/18,000원/김영사
붓다 그 생애와 사상/마스다니 후미오/4,000원/대원정사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김형중/5,500원/밀알
석가여래행적송/법성/15,000원/조계종출판사
성중성 부처님 팔상록/백용성/6,000원/홍법원
팔상록/오고산 회/12,000원/보련각
신타르타/헤르만 헤세/3,000원/범우사
붓다차리타/김달진/6,000원/고려원

고승 일대기·법어
경허선사/이홍우/6,800원/민족사
경허집/명정/8,000원/모아
고봉화상 선요어록/통광 역주/8,000원/불광
구산선문/구산문도회/2,000원/불일
나옹스님 어록/무비/5,500원/민족사
방한암 선사/김호성/5,000원/민족사
백운스님 어록/무비/10,000원/민족사
보조국사전서/지눌/5,500원/고려원
보조법어/심재열/10,000원/보성문화사
부처님이 계신다면/탄허/6,500원/교림
살아있는 부처/편집부/8,000원/불교영상
삼소굴 소식/명정/3,000원/극락선원
의상 그의 생애와 사상/김두진/15,000원/민음사
진정국사와 호산록/허흥식/15,000원/민족사
진흙소의 울음/경허/7,000원/홍법원
참선의 길/대혜보각선사, 장순용/7,500원/고려원
청산의 메아리/불교전기문화(현)/4,000원/불교영상
청허당집/동국역경원/12,500원/동국역경원
평상심이 도라 이르지 말라/동산, 동봉/17,000원/불광
한암일발록/한암대종사문집/25,000원/민족사
한암집/명정/6,000원/모아
효봉법어집/효봉문도회/15,000원/불일
달마어록/야나기타 세이잔/7,500원/김영사
임간록 上下/백련선사간행회/上4,000원, 下5,000원/장경각
마조록, 백장록/백련선사간행회/5,000원/장경각
임제록, 법안록/백련선사간행회/5,000원/장경각
위앙록/백련선사간행회/4,500원/장경각
조동록/백련선사간행회/4,500원/장경각
운문록 上下/백련선사간행회/上4,500원, 下5,000원/장경각
양기록, 황룡록/백련선사간행회/4,500원/장경각
조주록/백련선사간행회/5,000원/장경각
설봉록/백련선사간행회/7,000원/장경각
현사록/백련선사간행회/7,000원/장경각
나옹록/백련선사간행회/7,000원/장경각
태고록/백련선사간행회/5,500원/장경각
나호야록/백련선사간행회/5,500원/장경각
고애만록/백련선사간행회/5,000원/장경각
산암잡록/백련선사간행회/5,000원/장경각
훨훨 털고 같이 가세/서암/6,800원/정토출판사
위대한 자기의 발견/서암/6,800원/정토출판사
마음 벗 그리고 땅/서암/6,800원/정토출판사

입문서, 개론서
100문 100답(불교입문편)/편집부/4,000원/대원정사
100문 100답(불교강좌편)/편집부/7,000원/대원정사
기도/일타/5,000원/효림
근본불교의 이해/마스다니 후미오/5,500원/불교시대사
깨달음의 거울/법정/5,000원/불일
깨달음의 노래/이기영/5,000원/한국불교연구원
마음 닦는 길/지눌, 강건기/4,000원/불일
밀교의 세계/정태혁/8,000원/고려원
바웃드하 불교/나카무라 하지메/4,500원/김영사
부처님 말씀(1~5)/윤제영/15,000원/영산법화사
부처님 말씀/성열/13,000원/현암사
불교개론/마쓰야 후미오/5,000원/현암사
불교교리개론/가베코다 이에이, 고명석/6,000원/불교시대사
불교 기초 입문/장인석/5,000원/한국불교통신대학
불교 길라잡이/곽철환/18,000원/시공사
불교로 가는 길/월운/7,500원/경서원
불교를 알기 쉽게/종범/5,000원/밀알
불교를 찾아서/석지현/8,500원/일지사
불교와의 만남/강건기/6,500원/불지사
불교의 기초 교리/심재열/5,000원/선문출판사
아함경 이야기/마쓰야 후미오, 이원섭/5,000원/현암사
화엄경의 세계/다마키 고시로, 이원섭/5,000원/현암사
불교의 체계적 이해/고익진/7,000원/샘터
불교입문/다까사끼 지끼도/3,500원/우리출판사
불교입문/신법안/5,000원/김영사
불교입문/조계종포교원/3,500원/조계종출판사
불교학 개론 강의실(입문편)/장휘옥/5,000원/장승
불교학 개론 강의실(교리편)/장휘옥/5,500원/장승
불교학개론/김동화/7,000원/보련각
불교학개론/교양교재편찬(위)/6,000원/동국대출판부
붓다의 가르침/월폴라 라훌라/4,500원/대원정사
붓다 해석 실천/일지/4,000원/불일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김현준/7,000원/교보문고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정화/8,000원/장경각
생활 속의 기도법/일타/8,000원/효림
선가귀감/서산대사, 이종익/9,000원/보성문화사
선문촬요/혁암/5,000원/현문출판사
시작하는 마음/일타/5,000원/효림
한글 아함경/고익진/12,000원/동국대출판부
알기 쉬운 불교/권성제작국/6,000원/불교방송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권영한/15,000원/전원문화사
유마힐 소설경/이기영/8,000원/한국불교연구원
육조단경/광덕/12,000원/불광
육조단경/탄허/8,000원/교림
이것이 불교다/K. 스리 담마난다/5,000원/대원정사
참선 교육/현담/6,000원/수선출판사
천수경 이야기/김호성/4,500원/민족사
천수경/무비/4,500원/불일
한국불교사/김영태/15,000원/경서원
한국불교사 산책/김상현/7,000원/우리출판사
한국불교의 법맥/성철/5,500원/장경각
한국불교통사/정의행/10,000원/한마당
한글 세대를 위한 불교/E. 콘즈/8,000원/세계사
현대불교 입문/마츠다니 후미오/5,000원/현암사
화엄의 사상/카마타 시게오, 한형조/4,300원/고려원
나의 부처님 공부/김정아/5,500원/문학아카데미
반야심경 이야기/법륜/7,000원/정토출판사
해설 반야심경/청담/9,000원/보성문화사

금강경(조계종·법륜종·조동종·태고종)
금강경 대강좌/청담/3,000원/보성문화사
금강경 대강좌/이계열/8,000원/여시아문
금강경/오쇼 라즈니쉬/7,000원/태일출판사
금강경 이야기 上下/법륜/上9,500원, 下8,500원/정토출판사
금강경/이기영/5,000원/한국불교연구원
금강경/불전간행회/5,500원/민족사
금강경 강의/무비/5,500원/불광
금강경 강의/신소천/5,000원/홍법원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上下/우학/上5,500원, 下5,500원/좋은인연
금강경 간정기/선우도량(편)/25,000원/선우도량

법화경(천태종·조동종·진흥종·법화종·보문종·의태종·일승종)
법화경/운허/7,000원/동국역경원
법화경/이원섭/6,000원/삼중당
한글 세대를 위한 법화경 上下/감산대사/각권5,000원/세계사
법화경 강의(1~10)/이법신/1권10,000원/영산법화사
알기 쉬운 법화경 강설/능가/4,000원/대흥기획
한글 묘법연화경/문정영/10,000원/보련각
묘법연화경 역해/한정섭/2,000원/불교통신교육원
(국역)묘법연화경/안진호/25,000원/법륜사
묘법연화경/불전간행회/13,000원/민족사

화엄경(조동종·법륜종)
화엄경/법정/7,000원/동국역경원
화엄경/최호/6,500원/홍신문화사
화엄경/불전간행회/12,000원/민족사
지송한글화엄경/해주/5,000원/불광
화엄경 강의/무비/9,000원/불광

찾아오시려면


책방 여시아문의 통신 판매 서비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통신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즉시 보내 드립니다.
(무승료 책방 부담)
전화 (02) 737-0695, 732-1521 팩스 (02) 737-0696
온라인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6-21-0569-439 예금주 조동규
서울은행 15504-3385504 예금주 조동규
농 협 053-01-226498 예금주 조동규

5월 동심에 꿈을…

탑돌이·노래공연·연극등 초파일 행사 다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신심함양과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립을 위한 어린이·청소년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의 '청소년탑돌이한마당', 전북불교회관의 '연등제작 시연 및 컵등만들기', (사)불국토 선우마을의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청소년' 등 사찰 및 지역신행단체 백일장 사생대회 연극 노래경연 등이 풍성하다.

이들 행사는 '97 문화유산의 해, 가정의 달 5월과 뜻을 같이하기도 해 눈길을 끈다.



◇부처님오신날, 천진동자들의 물심이 전국 20여곳에서 마련한 어린이·청소년 행사에서 다채롭게 보여질 전망이다.

◇부처님오신날 전국 어린이·청소년 행사

행 사 명	주 최	일 시	장 소	전 화
초·중·고등학생 글쓰기 및 그리기대회	청교련 대구지부	5/4 오전10시	두류공원	(053)741-1442
연꽃노래잔치	서울불청	5/4 오후1시	동국대 중강당	(02)730-9108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청소년	(사)불국토 선우마을	5/4~5/5	경주	(051)808-4569
어린이부처님그리기대회	월간 〈불광〉	5/5 오전10시	목아불교박물관	(02)420-3200
소년소녀가장돕기	송광사	5/5	송광사	(0661)755-0107
연등제작시연 및 컵등만들기	전북불교회관	5/9 오후2시	전주 코아백화점	(0652)226-7878
가족찬불가 경연대회	대구광역시 신도회	5/9 오후4시	고려예식장	(053)253-2886
청소년 탑돌이한마당	파라미타	5/10 오후6시	탑골공원	(02)723-6165
봉축백일장	금정중학교	5/10	금정중학교	(051)517-3984
어린이백일장 및 사생대회	대불어 경남지부	5/11 오전10시	마산 산호공원	
전주소년원위문	전북불교회관	5/11 오후2시	전주소년원	(0652)226-7878
연극발표회와 거리시화전	청교련 대구지부			
기초교리경전대회		5/11 오전10시	두류공원 및 금용사	(053)741-1442
소년소녀가장 무료진료	개금사회복지관	5/11, 5/18	복지관내 진료실	(051)893-5034
속리산 탑돌이	보은농공고	5/14 오후1시	법주사	(0433)43-3615
백일장 및 찬불가, 독경대회	삼광사	5/14	삼광사 법화당4층	(051)808-7111
참나청소년등일환경문화예술대전	한국불교청년회	5/18 오전9시30분	보라매공원	(02)747-5787
천진불어린이무용단 정기공연	천진불어린이무용단	5/25 오후3시	제주문예회관대극장	(064)57-7470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	청교련	5/25 오후2시	동국대 중강당	(02)735-8165
연꽃백일장 및 사생대회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련	5/25 오전10시	범어사 탑앞	(051)808-4570

불교TV 어린이날 특집 '신나는 연꽃동산'

놋다리밟기등 '게임천국' 볼만

불교TV는 5월1일 김수진 이성훈씨가 진행하는 '신나는 연꽃동산'(PD 김민석) 어린이날 특집을 마련한다.

여주 목아박물관에서 열리는 '신나는…'은 은석초등학교 불자 어린이 80명이 출연해 두 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벌인다. 진행관에 연꽃이 많은 팀이 우승팀이 되는 이날 경기는 '긴가민가 ○× 퀴즈' '놋다리 밟기' '어린이불교 기네스' '3종경기'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며 MVP(엠 브이 피)도 선정해 수상한다. '어린이 불교 기네스'에서는 만(卍)자 빨리 만들기, 〈반야심경〉 빨리 외우기 등을 겨루며 점프 덩크슛, 참쌀떡 먹기, 풍선물고 트랙돌기 등 3종경기로 재미를 더한다. 경기 중간 중간 벌어지는 응원전, 찬불동요 부르기, 팀 대항 줄이름 대기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

한우물정수기 약알칼리성 육각수 생성

생상품



한우물정수기는 세계 유일의 전기 정수기로 건강에 좋은 약알칼리물을 만들어 낸다. 이른바 전기분해에 의한 6각형 고리 구조를 가진 육각수를 만들어 내는 것.

특히 세안용(산성), 화초용(강알칼리), 음료수용(약알칼리) 물을 동시에 만들어내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다. 또 자체내에 청소기가 내장되어 있어 반영구적이다.

전국 우수발명품에 선정되기도 한 이 정수기의 가격은 일반 정수기(120만원대)의 절반 가량인 79만5천원이다. 본지 독자에게는 10% 할인. (02)929-4804

지상 알뜰 재활용시장

현대불교신문·소비자위·맑고향기롭게모임 공동 주최

탈수기·냉장고·보행기 새주인 기다립니다

30일 현재 지상 알뜰 재활용시장에는 286PC, 보행기, 성인·아동의류, 탈수기, 360ℓ 냉장고, 탁상시계, 손목시계, 책, 2단 플라스틱 선반 등 다수 물품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의·접수=현대불교신문사(02)722-4162·중단협소비자보호위(02)3452-7485·맑고향기롭게모임(02)741-4696

건강과 식품 〈5〉

당근·고추·고구마등 천연색소식품 암·심장병 노화에방



당근, 토마토, 고추, 고구마, 호박의 붉은 색소는 카로티노이드라고 불리는 천연색소이다. 이 천연색소는 식물뿐만 아니라 계란의 노른자, 김, 미역과 같은 해조류(海藻類)에 이르기까지 전 생물체와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으며 그 종류도 6백여종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종류에 따라 노란색, 주홍색 내지 붉은 색을 내며 대개 기름에 잘 녹고 물에는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색소중 카로틴(알파, 베타, 감마)등은 우리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돼 비타민 자원의 영양소로서

천연색소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무해한 천연의 식용색소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우리 건강에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녹색채소 중에는 모든 나무 잎과 같이 카로틴 외에 3~4 종류의 천연색소가 있다. 이들 모두는 청색의 엽록소와 공존해서 노란색 내지 붉은색은 보이지 않고 녹색을 나타내고 있다. 나무잎, 해조류에 이들 색소가 항상 엽록소와 더불어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의미와 그 기능은 오랫동안의 수수께끼였다. 식물체, 조류가 빛을 받아 탄산동화작용을 하는 광합성(光合成) 과정중에 부산물로 활성산소, 자유라디칼 분자들이 쉴새없이 발생된다. 이때 캐로치노이드는

유해분자들의 작용으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최근 알려졌다. 처음에는 관심을 별로 끌지 못 하였던 베타 카로틴이 실험관 내에서의 모형실험에서 두드러진 유해분자 제거작용이 있음이 확인되고 동물실험 결과에서도 보호작용이 있음이 입증 되었다.

한편 음식섭취와 암 심장병발생 경향에 관한 역학조사를 통해 녹색채소와 토마토 등 카로티노이드가 다량함유된 식품섭취의 식이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암과 심장병 발생률이 적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질병예방에 이들 색소가 갖는 보호 작용이 크게 주목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타민 A 작용을 하는 카로틴 뿐만 아니라 A작용이 없는 모든 기름에 녹는 노란색 내지 붉은색을 띤 카로티노이드들은 새로운 종류의 노화 질병 예방 가능성이 있는 항 산화(抗酸化) 작용을 갖는 식품성분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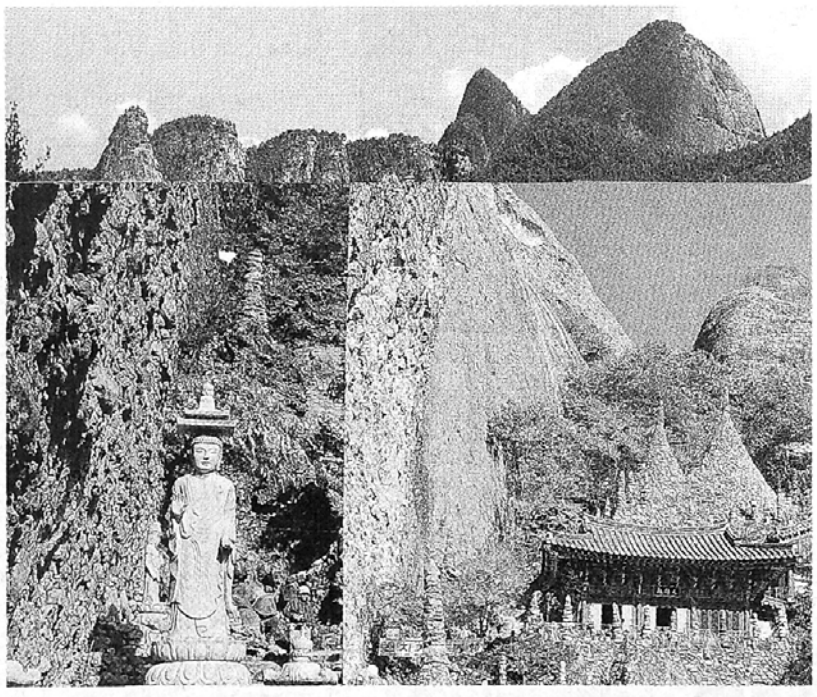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화학〉

만화 백유경(百喩經) 이향원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求道의 길"

雲水日記는 日本의 한젊은 僧侶가 人生一代의 큰 뜻을 품고 求道의 길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 修道過程을 그림을 곁들여 가며 재미있게 日記式으로 소개한 것이다.

저자 佐藤 義英
平田 精耕
加藤 隆芳
역자 釋 圓 然

정가 6,000원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8
TEL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종단소식

조계종

신흥사 종회 분담금 논의

제3교구 본사 신흥사(주지 도후)는 21일 교구종회를 열고 97년도 분담금 배정을 논의했다.

20여명의 교구종회의원이 참석한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29일 통일전망대 점등식과 5월10일 백담사 만해기념관 상량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동화사 통일전 현판 복원

동화사(주지 무공)는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3일 노태우 前 대통령의 친필 현판인 '통일기원대전'을 가리고 있던 회색 무명천을 벗겨냈다. 이날 통일대전의 주련을 달면서 동시에 천을 벗겨낸것.

이 현판은 지난 95년 11월 6공 비자금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철거될 위기에 몰렸으나 일단 천으로 가려졌었다.

태고종

중부전선 평화의 탑 점등

총무원(원장 인곡)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남북평화통일 및 조국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평화의 탑 점등식을 5월1일 중부전선 월정리 전망대에서 봉행한다.

이날 점등 법요식에는 총무원장을 비롯해 종단 간부 및 신도, 군불자 장병 등 5백여명이 참석하며, 인곡스님의 봉축법어 및 점등식에 이어 위문법회와 위문품 전달식이 이어진다.

원각사 불교대학 개설

제천 원각사(주지 원명)가 제천불교대학을 개설, 26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3개월간의 제1기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제천불교대학 학장을 맡은 원명스님은 "불법을 배우려는 지역민이 많은데 비해 마땅한 교육장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며 "제천불교대 개설로 지역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며, 불교기초교리 및 불교학, 불교사 등의 과목이 개설돼 있다.

천태종

명락사 청년회 19돌 법회

명락사 청년회(회장 최기표)는 13일 명락사 법당에서 청년회 창립 1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중앙청년회원 등 모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기념법회에서 최기표 회장은 "활발한 청년회 활동을 통해 종단발전은 물론 불교발전에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총지종

통리원 전방 OP 점등식

통리원(원장 법공)은 5월 1일 육군 7사단 전방 OP에서 점등식을 봉행한다.

통리원장을 비롯해 종단 스승 및 신도 3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점등식은 사단장의 환영사에 이어 통리원장의 봉축법어 순으로 진행되며, 위문품도 전달된다.

종단 장학회(이사장 정희수)는 13일 97학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화엄종

62명에 종단장학금 전달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동국대 불교학과 학생 5명등 대학생 8명과 고등학생 54명등 모두 62명에게 4천1백8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원효종

원효성사 1311주 열반재

총무원(원장 무진)은 5월6일 서울 효창공원 원효성사동상앞과 원효종 본산 부산 금수사 두 곳에서 오전11시 원효성사 열반 1311주년 추모대재를 봉행한다.

서울·강원·경기·충남교구는 서울에서, 나머지 지방교구는 금수사에서 나누어 치러질 이번 열반대재는 헌화, 법어, 권공의 순으로 진행된다.

총무원은 특히 이번 열반대재를 전후해 〈원효는 누구인가〉 책자를 발간 전국 2백60여개 사찰에 배포, 신도들에게 원효사상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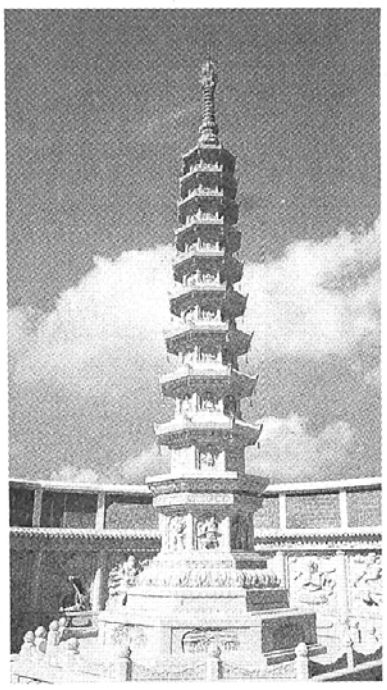
보문종

보문사 연등원 개설 운영

보문사(주지 법준)는 신도들로 하여금 초파일 행사때 밝힐 자신의 연등을 손수 만들어 보라는 취지에서 대법당인 선불장에 '연등원'을 개설, 30일부터 5월9일까지 운영한다.

보문사 청년회(회장 최기표)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02)737-0698



◇높이 30m의 대보탑은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꾀한 대형 석탑이다.

국내 최대 53존불탑 낙성

삼광사 진신사리 10과 봉안… '호국호법' 기원

점등식 6만신도 참석

천태종 삼광사(주지 춘광)는 19일 국내 최대규모의 53존불 8면9층 대보탑 낙성식을 봉행했다. 현존 최고 석탑인 익산미륵사지동탑(27.8m)보다 2.2m 높은 높이 30m, 기단 폭 14.55m 규모의 석탑인 이 대보탑에는 티벳 달라이라마와 미얀마에서 봉정한 부처님 진신사리 10과가 봉안됐다. 불교조각가 권정학씨가 설계했다.

기단부에는 십이지신상, 팔상도상, 사천왕상이 조각돼 있으며 탑신부에는 53존불을 봉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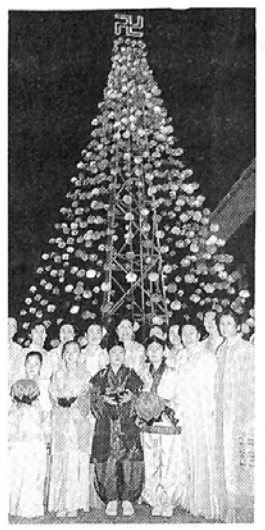
삼광사는 호국호법, 남북통일, 민족문화 전승의 원을 담아 6년간의 대작불사끝에 완공한 대보탑 낙성을 축하하기 위해 18일 점등 법요식 및 전야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불교협회 도술인 비서장, 일본 천태종무청 야마다순와 스님, 미얀마 부종정우 무마라스님 등 해외 불교인 20여명과 신한국당 김운환 의원을 비롯한 정관계인사 10여명, 각급 기관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6만여명이 참석했다.



◇천태종 1백60만 물자들의 정성과 염원을 담은 대보탑 낙성식이 6만여 불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19일 봉행됐다.

부산=한명우 기자



불밝힌 애기봉 봉축탑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애기봉 호국광명탑 점등식이 24일 사부대중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소년가장돕기 음성공양

성보사 18명에 장학금

대한불교법사회 성보사(원장 구윤회)는 30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소년소녀 가장돕기 음성공양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고양지역 소년소녀 가장과 성보사 신도 등 모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성보사는 18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3백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어 성보사 합창단의 음성공양과 함께 참석자들이 함께 하는 여흥시간을 가졌다.

구윤회 원장은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며 "이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지종 정각사 법당 헌공

부산 총지종 정각사(주교 정심)는 17일 3층 서원당에서 종단 스승 및 각 사암 주교, 지역 기관장 및 지역민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이번에 완공된 정각사 법당은 93년 착공 연건평 4백8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건평 5백40평의 지하 2층 지상 4층의 부속건물을 갖추고 있어 영남 포교의 중심기능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교방송 포교프로 강화

'진리의…' '라디오쇼' 등 신설 눈길

불교방송이 '부처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에 유익한 방송'을 기치로 봄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으로 불교방송은 포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음악교양 오락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시도해 다양한 '들을 거리'를 제공한다.

불교방송은 이번 개편에서 △진리의 수레바퀴(PD 김상준)-오전7시10분 △아침을 열며 1·2부(PD 박상필)-오전7시15분(1부) 오전8시25분(2부)△ 인연의 길(PD 이선희)-오후2시10분 △음악여행 1·2부(PD 강선문)-일요일 오후6시15분(1부) 오후7시10분(2부) △음악의 마을(PD 황용관)-오후4시5분 △BBS라디오쇼-일요일 오후1시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한편 '오늘의 법구경' '전정봉의 열린 경제' 'BBS스포츠' '주간 북한소식' '가릉빈가의 합창' '트롯트 한마당' '명상음악' 등의 프로그램은 폐지된다.

BBS 개국 7돌 특집

5월1일로 개국 7주년을 맞은 불교방송이 공개방송 축하공연 등 개국 기념 특집 프로그램 3편을 선보인다.

◇창사특집 '진리의 빛 온누리에'(1일 오후5시10분)=개국 당시 참여했던 불자들의 염원을 들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장묘제도를 근본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화장제도정착 등 장묘제도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위성생방송 'BBS 창사 7주년 기념 축하공연'(1일 오후12시20분)=서울랜드 삼천리대극장 현지 생방송으로 청취자를 찾아간다. 김흥국과 이매리의 진행으로 1부에서는 트롯트의 향연으로 가수 설운도 현숙 최진희 최백호씨등이 출연하고 2부는 언타이틀 주주클럽 구피 신효범 등이 노래와 춤을 선사한다.

◇BBS '자비의 전화'(1일~3일 오전10시)=송강스님(개화산 미타사 주지), 동봉스님(경기도 곤지암 우리절 주지), 본각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등이 출연해 불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특히 이번 특집은 스님과 불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을 열어줄 예정이다.

〈연〉

'진리의 빛…' 장묘제도 해결방안 모색

'위성 축하공연' 서울랜드 가요향연 생방

독일주재 사찰 봉축행사 다채

한마음선원·석왕사지원 등 각종 전시회·세미나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행사가 유럽의 독일 땅에서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독일 주재 각국 사찰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봉축행사는 5월 11일 스리랑카 독일법당의 법요식과 학술 세미나, 석왕사 독일분원, 광법사의 제등행렬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어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5월 14일 법요식과 '부처님 일대기' '산사의 하루' 비디오 상영, 제등행렬을 갖는다.

베를린 불교연합회도 5월 24일 한국 베트남 등 5개국 스님들의 〈반야심경〉 봉독, 연꽃놀이잔치, 한글·한문 사경회와 각국 불교문화 예술행사를 개최한다.

보문사(주지 병오)는 5월 25일 사진 전시회 및 시낭송회, '지혜와 자비의 등불은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또 세계문화재 장경 판서 및 서예·사진전시, 사경법회 등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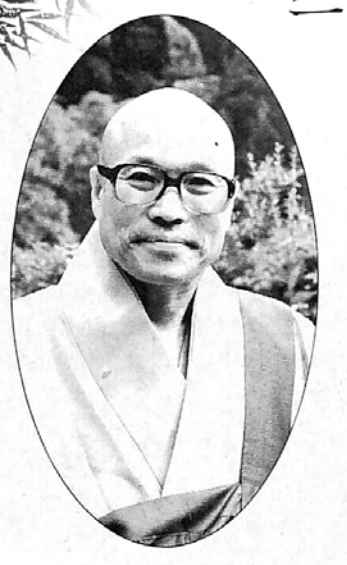
해외불교

마음 놓고 돌리는 공덕

다 놓고 돌릴때 그 공덕은 무한량이다. 첫째로 일체의 오무간 지옥이 무너진다. 둘째로 인연따라 억겁 전생부터 내려온 모든 습이 녹고맙다. 셋째로 번뇌망상으로 착찬던 그릇이 비게 되면서 마침내 빈것도 없고 담긴것도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 바로 '참나'가 발견된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기도 —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직장·직능단체 지역연합

대구신행단체협 내달초 창립
부산불교신도회 사단법인 추진
재불련 범종단 신도조직 재건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가 지난달 15일 출범한 가운데 직장·직능 단체들이 중앙신도회와는 별도로 지역별로 연대하는 등 재가조직이 결집되고있다. 〈관련기사 3면〉

한국재가불자연합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 대구신행단체연합회(가칭) 등이 독자적인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조계종 개혁과 중앙신도회 창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재가불자연합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직능·개별 신도단체의 가입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다. 60여개의 범종파 신행단체와 신도회로 구성된 부산불교신도회는 올 상반기중 독자적인 사단법인화를 추진한다.

또 대한불교대불회 개인택시정법회 정법회거사림회 등 20여개 신행단체가 모인 대구신행단체연합회는 내달초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재불련은 23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이종구 前국방장관을 공동회장으로 구본청, 정인악씨 등 부회장 4명을 새로 선임하여 공동회장 4명, 부회장 10명으로 강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불련은 중앙신도회가 흡수할 수 없는 직능 및 개별 신도단체를 대부분 참여시키는 자율적인 범종단 신도조직을 재건한다는 방침이다.

재불련 등 3개 연합단체 활동 강화 방침은 신도단체의 조계종 사찰 등록이 독자성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들 단체들은 중앙신도회와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총무원을 견제하는 자율적인 신도단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앙신도회측은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점차적으로 직능단체를 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행자교육 1년으로 확대해야"

조계종교육원 공청회

조계종 행자교육과정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2회 실시하던 행자교육원의 1회 개설과 4년간의 기본교육 이수후 사미계를 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교육원(교육원장 원산)이 22일 '기초(행자)교육'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전국 교구본사 교무스님 등 참석자들은 종단 기본교육 마이수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기초교육 제도개선, 상설기초(행자)교육원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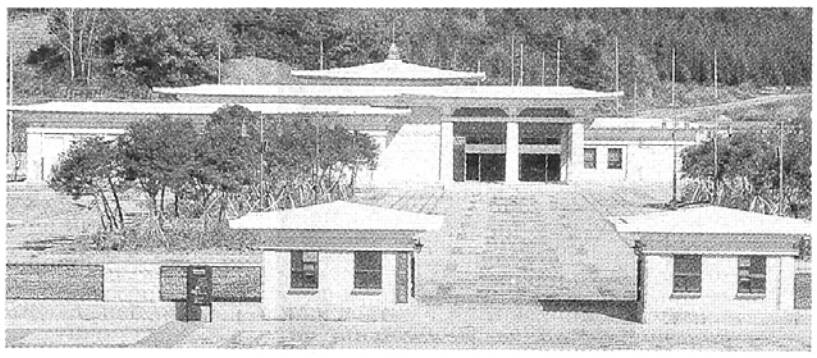
불방 공금횡령 수사촉구
컴퓨터조작 밝혀

18개 단체가 참가한 '불교방송정상화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4일 서울지검에 9개 조항에 걸친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의 진실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범대위 자료집을 각교구본사 종회의원 신행단체 언론사 등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범대위는 29일까지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종하스님과 영담스님의 이사직 사퇴 등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고에 대한 재단수습대책위 실무위원 박원식기자는 종회사회분과위가 밝혀낸 8억3천6백만원 횡령에 대한 조사결과 변조된 대구와 청주의 컴퓨터 회계관련자료는 지난 3월19일~21일 사이에 서울 본사에서 누군가에 의해 밤늦은 시간에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조작사실은 김선도 김현안 등 경리부 직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또다른 공범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개관 백제 최대규모의 사찰이었던 익산 미륵사지에 유물전시관이 개관된다. 전북도청에 의해 5월 9일 개관되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지상1층 지하1층으로 총건평 594평 규모에 4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전시될 유물은 지난 80년부터 96년까지 17년간에 걸쳐 발굴조사된 미륵사지 유물 1만8천7백여점 중 3백40점이다.

청주 BBS 개국…"충청불심 모은다"

불교청주방송(FM 96.7MHz)이 25일 오후2시 10층 문화센터에서 개국기념법회를 개최하고 첫전파를 발사했다.

이날 개국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불교청주방송 운영위원장 혜광스님(법주사 주지),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스님, 불교방송 서돈각사장, 불교청주방송 박재선 사장과 공보처 및 3당 관계자 주병덕 충북도지사 김영세 도교육감 김현수 청주시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해 개국을 축하했다.

혜광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청주방송은 앞으로 충청지역의 불자와 불교를 하나로 모으고 부처님의 법음을 홍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중일 우호 경도대회
대표단 60명 파견 합의

종단협의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경도대회 집행위원회(위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는 22일 3차 회의를 갖고 대표단 인원구성 및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단 60명, 개회식 인사말, 기조연설, 공동선언문 낭독 등에 대한 소임자 선정을 비롯 경도대회 제반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노인위안 성지순례
수원 개인택시 불자회

수원개인택시불자회(회장 조완희)는 17일 소속회원택시 23대를 동원하여 연꽃마을 용인양로원 노인및 인근지역노인 66명을 초청, 속리산 법주사 성지순례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행사는 법주사에서 특별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은 팔상전 미륵대불 대웅전등 경내 모든전각을 돌며 참배했으며 속리산 법주사주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연꽃마을회원들과 수원개인택시불자회가 제공한 점심공양 떡 음료등을 나누며 여흥도 곁들어져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용인양로원 염춘성함머니는 "오늘같이 좋은날 노인들을 위해 마음을 내준 수원택시운전불자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기뻐했다.

인도파견 유학생 선발
조계종, 송광사승가대 인가

조계종교육원(원장 원산)은 23일 교육원 회의를 열고 송광사 승가대학을 정식 인가하는 한편 인도 뿌나대학에 파견할 유학승으로 현행스님(승가사)을 선발했다.

교육원은 또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법산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 역경위원회 위원장에 종림스님(대장경연구소장), 교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무관스님(계단위원회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대장경에 새생명을 후원자 1만명 돌파

해외동포도 관심

3월24일 시작된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8만 후원인모집 캠페인이 지난 22일 현재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국민적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캠페인은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들도 다수 참가하는 등 전 지구촌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주교의 김영식 신부가 제1호 후원자가 돼 출발부터 화제를 뿌리고 있는 캠페인에 동참하는 후원자들의 사연도 가지가지.

월남전 상이용사가 매월 나오는 연금의 일부를 후원하겠다는 사연이 있는가 하면, 살인죄로 옥중에 있는 한 수감자는 뒤늦게 불교에 귀의, 영치금 중 일부를 계속 내놓으며 참회의 삶을 살겠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 말못하는 아들의 말문이 트이게 해달라는 어머님의 애틋한 바람과 모든 장애인들에게 조금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어느 시각장애인의 원(願)도 담겨져 있다.

교계 '가정의달' 잔치 풍성

효도관광·가족마라톤·백일장등 줄이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각종 행사들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자비의집(회장 동광스님)은 3일 오전 11시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어버이날 노인잔치'를 벌인다. 또 코문사는 가족들간의 사랑을 글로 전하자는 주제로 4일 오전 11시 경내에서 초등학생~성인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한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스님)은 5일 오전 9시 속초시 영당동 범바위에서 소년소녀가장과 주역주민이 함께하는 미니올림픽을 마련하고, 7일 오전 9시 지역내 6백여 무의탁노인을 초청, 백담사 오색온천으로 경로효도관광을 떠난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복현)도 6일부터 10일까지를 경로주간으로 정하고 8일 경로잔치, 9일 효도관광, 24일 청소년어울마당을 펼친다.

또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7일 독거노인을 초청, 카네이션 달아 드리기 및 어린이 재롱잔치를 연다. 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범산스님)과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각스님)도 8일 장수한마당을 각각 마련한다.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11일 가족마라톤대회를 개최, 가족간의 사랑과 소중함을 일깨운다.

목탁소리

김 중 근 〈취재1부 기자〉

봉축 전통등의 빛

'불자들만의 행사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

97연등축제를 주최하는 봉축위원회가 내세우는 행사방향을 요약한 말이다. 봉축위원회는 이번 연등축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전통등 재현을 꼽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등축제는 장엄물, 가장행렬 등 행사를 위한 행사위주로 치러져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서는 초점이 흐렸다는 지적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금년에는 수백년간 문헌속에 묻여있던 전통등이 재현돼 연등축제의 새 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봉축위원회 전통등 연구모임은 22일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문헌상으로 전해내오는 전통등 18종류를 재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전통등은 불교의 전통기법으로 옛모습 그대로 재현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왕실의 내불전에서 국운의 번창을 위해 불을 밝혔던 봉황등은 그 의미 뿐만 아니라 화려한 채색과 세밀한 터치로 일반인들까지 큰 관심을 갖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불교의 상징적 동물을 형상화한 코끼리등, 불교의 4물을 형상화한 북등 종등 목어등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재현된 전통등이 갖는 의미는 크다. 첫째 등문화의 맥을 잇는다는 것이다. 둘째 연등축제를 국민들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셋째 사라졌던 놀이문화, 불교의식, 지공예 등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됐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전통등 재현은 민중속에 깊이 뿌리내려 온 연등행사를 국민적 축제로 재탄생시키고 세계적인 종교로서 우뚝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불뉴스

도원스님 사리 22과 수습

13일 열반한 진제당 도원대종사의 법구에서 오색영롱한 정골 사리 22과와 연골사리 8과가 나왔다. 현재 대구 삼보사에 보존되고 있는 좁쌀크기의 금은홍흑회색사리는 49재가 끝난후 조성될 사리탑에 봉안된다.

日반출 신라금동불 '환국'

지난 91년 경희대 박물관에서 도난돼 일본으로 밀반출됐던 통일신라금동불상 등 문화재 7점이 6년만에 국내로 되돌아왔다.

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22일 도난당한 문화재를 시중에 팔려한 혐의(장물취득)로 김명철(32·노동·제주시 내도동)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씨는 2월25일 골동품상 강모씨에게 금동여래입상, 가야시대 금동팔찌 1개 등 문화재 7점(시가 7천만원상당)을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군 백양사현수막 파기

백양사(주지 지선) 납골당건립과 관련 군(郡)비 지원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장성군(군수 김흥식)이 24일 직원을 시켜 사찰경내 현수막과 대자보를 파기하려다 스님들에 의해 발각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백양사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 20일과 22일에도 파손행위를 했었다.

포교국장단 해외연수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6월 7일부터 13일까지 6박7일간 일정으로 '전국 포교국장단 해외 포교현황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일본 오사까 및 교토, 나라지방의 불교 사회복지시설 및 포교현황을 살펴보고 임제종 총본산과 교육시설, 천리교 본부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불청 북돕기 모금법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6일 저녁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스티브린턴 초청 굶주리는 북녘동포를 위한 모금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북한실황 비디오 상영과 사진이 전시된다. 또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온 유진벨재단 스티븐린턴 회장의 강연이 있다.

"진관스님 국보법과 무관"

18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속개된 진관스님 1심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순정씨(77·범민련 서울시 위원장)는 "스님이 범민련 집행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것도 종교대표로 추대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관스님의 최종공판은 5월2일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소쩍새마을 후원바자회

'소쩍새마을' 후원을 위한 자선바자회가 승가원 빈가회(회장 성지민) 주최로 5월1일부터 3일까지 동국대에서 열린다. 이날 바자회에는 각종 의류 잡화 신발 완구 등을 전시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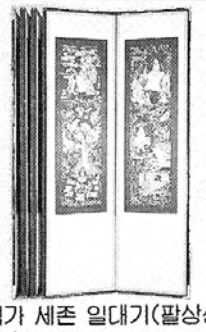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특가 보급



◆금강경 10폭병풍 (고급공단 金書)
• 후면 : 석가세존일대기(팔상도)
• 재질 : 스기목/양면비단/목후지
봉축특가 : ₩49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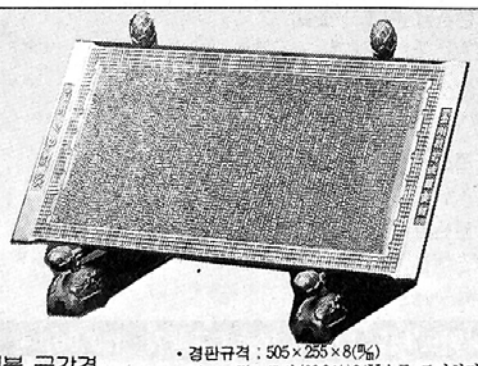
◆부모은중경 10폭병풍 (고급공단 금 서·화)
• 후면 : 반야심경(추사 영인본)
• 재질 : 스기목/양면비단/목후지
봉축특가 ₩480,000원



8폭병풍
◆석가 세존 일대기(팔상성도)
• 후면 : 금강경(고급공단 금 서·화)
• 재질 : 스기목/양면비단/목후지
봉축특가 : ₩380,000원



• 코끼리 꽃꽂이반 350×230(㎜) 특가 ₩120,000
• 탁생불(코끼리 받침포함) 1자 3치 390㎜ 특가 ₩330,000



◆천불 금강경
봉축특가 ₩480,000원
• 경판규격 : 505×255×8(㎜)
• 재 질 : 주석(99.9%)24K순금 표면처리
※경판테두리에 천불을 모셨습니다.

국제유네스코 세계유물지정 팔만대장경
국보 제32호 金銅般若心經



• 규격 : 268×209(㎜) • 재질 : 순산주/순금세금 봉특가 : ₩80,000원

• 금강호신불시계



금강호신불시계특징
• 1PG순금도금
• 고급금강밴드
• 3기압 방수
• 문자판 양각조각
봉특가(남·여각) : ₩50,000원

기획제작전문불사의 집
三田佛事
서울(02)732-6095~6



전통연등 첫선 봉축위원회 전통등 연구모임이 재현한 전통등. 22일 조계사 경내에 내걸린 석류 수박 잉월 법륜 칠성 마늘등.

"밝은세상 만들자"

5월 11일 거리장엄

화 재현된 전통연등 보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던 전통등이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다. 봉축위원회 전통등 연구모임(회장 백장호)은 문헌상으로 전해오는 전통등 18종을 재현, 22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전통등은 코끼리등, 탑등, 종등, 법륜등, 복어등, 북등을 비롯 수박등, 참외등, 마늘등, 석류등, 새우등, 용등, 거북등, 원앙등이다. 이날 공개된 등은 전통등 연구모임 회원들이 작년해 12월부터 큰스님들의 구술과 문헌, 사진자료 등을 바탕으로 5개월여의 산고 끝에 불교전통기법으로 옛모습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봉축위 전통등 연구모임은 누각등, 수복등, 태평등을 5월초까지 재현, 올해 부처님오신날 맞이 5월11일 거리축제(동대문~조계사)때 장엄등으로 일반에 선보인다. 〈관련인터뷰 4면〉

김중근 기자



용등 국민들의 통일염원이 담긴 용등 (55㎝×85㎝).



종등 불교사물중 하나인 종등(60㎝×110㎝).



봉황등 왕실에서 달았던 봉황등(150㎝×100㎝).



코끼리등 불교상징 동물인 코끼리등(120㎝×85㎝).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생명바쳐 불법심은 아들 〈②·끝〉 〈특별상〉

끝내 아들은 이승을 떠났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인과 믿으며 전법의 길에…



그림 · 이준석

병이 재발한 복신이는 항암치료를 시작했고, 또다시 힘들고 고통스런 삶을 지탱해야 했다. 난 기도처를 찾아 다니며 밤낮기도를 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복신이가 꼭 완치될 것이라고 믿었다. 만약 복신이가 잘못된다면 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1996년 4월 어느날, 주치의 선생님께서 MRI 촬영결과를 확인하시고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다. 기도를 드리며 좌절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져 먹었지만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난 직장을 그만두고 좋다는 약, 좋다는 기도처를 찾아 다녔다. 그러던중 다시 보리암으로 기도를 다녀왔다. 3일간 장성스레 기도를 하고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나 복신이는 날로 병이 악화됐다. 5월14일 갑자기 숨이 멈춰 버리더니 죽음의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져 갔다.

아내와 내 앞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복신이를 보며 나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복신이는 괜찮아, 깨어날 거야'라는 생각뿐이었다. 의료진들이 몰려와 응급조치를 하기 5분여 심장이 멈추었던 복신이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렇지. 복신이는 괜찮아, 부처님이 지켜주시는데 잘못될리가 없지' 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의사들은 한결같이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병원법당에서 기도를 하며 복신이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렸다.

매일같이 밤을 꼬박 새워가며 3천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복신이의 호흡이 또 멈췄다. 의사들이 이제 더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복신이는 소생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으니 고통을 덜어 편하게 해주는게 좋겠다고 했다. 기가 막혔다. 그후 또다시 무번씩이나 호흡이 멈추었고 의사들은 한결같이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신이는 그때마다 소생했다. 의사들은 그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듯 놀라워 했다.

복신이의 병이 더욱 악화돼 입에서 피를 쏟기 시작했고, 그 순간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복신이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의사들 말대로 복신이를 편히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복신이는 다섯번의 소생을 거듭하다 생을 미감했다. 13세의 어린 나이로 다시는 못 올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

내가 만약 지홍스님의 말씀대로 교리공부를 하지 않고, 불교가 무엇인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오직 복신이의 완치를 비는 기도만 해왔다면 나도 복신이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났을지 모른다.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는 종교를 버렸을 것이고,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다.

복신이가 내곁을 떠난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하루에도 몇번씩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곧 죽을것만 같은 순간을 겪는다.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나마 나를 지탱할 수 있는건 부처님 가르침 덕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피안에 이르는 길을 믿고 윤회와 인과를 믿고 있기에 삶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다. 내가 삶을 포기한다거나 어리석게 남은 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빠에게 봉심을 심어주고 간 복신이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일게다.

나는 지금 복신이 덕분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도록 포교전단을 제작해 전법활동을 하고 있다. 장기기증도 했다. 부족함이 많은 중생이라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는 듯 하지만 멈추지 않고 부처님말씀 전하는 일에 남은 생을 다 바칠 계획이다. 복신이를 생각하며 약해지는 믿음과 의지를 다진다. 복신이의 거룩한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전에 다짐한다. 불제자로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최성구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영상을 다하도록 기획 · 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 · 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획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큰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 · 자비의 샘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① 서옹 큰스님 (고불총림 방장)
백양사 주지 서선스님이 존사스님의 서열한 구도정신을 자로잡 받는 상문의 소리

② 서암 큰스님 (전 조계종 종정)
불교환경교육원 유성장 공자가 큰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상량한 삶을 조명

③ 월하 큰스님 (조계종 종정)
탱린트 고두심 공자가 동도사를 배경으로 큰스님께 정해 듣는 이시대 개인의 법문

④ 석주 큰스님 (참보사 조실)
동화작가 정채봉 공자가 큰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⑤ 월산 큰스님 (불국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곤교수가 지면속에 동화속의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큰스님의 삶을 위해

⑥ 성수 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송가대 송천호교수회의 대담으로 큰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이 전개되는 감동적 영상

⑦ 고송 큰스님 (미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탤런트 임영란 공자에게 설파

⑧ 비룡 큰스님 (월정사 조실)
관음보살같은 자비스런 얼굴을 한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대담

⑨ 원담 큰스님 (덕숭총림 방장)
관회가 황남새 공자가 속세의 방경이 닿지 않는 큰스님의 산중관지를 선방

⑩ 일타 큰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현대인의 가슴에 폭폭한 물비같은 설량감을 주는 말씀을 면화상세계 입기준 대표가 진행

* 위 차례는 방송된 순서임

비디오 테잎 · 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